

# 杏雲 2013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행운

2013  
杏雲

제34호



##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제 직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게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베풀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는 직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 없이 존중하겠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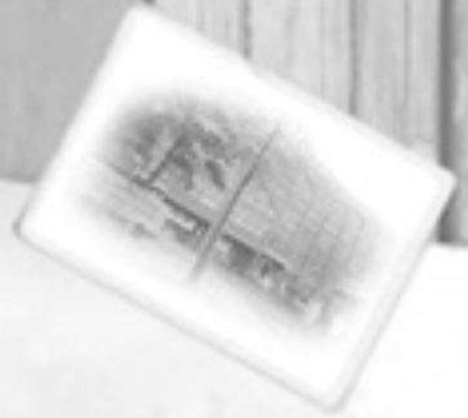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 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나는 자유 의사로서 나의 명예를 걸고 위의 서약을 하노라.

# Section I

## 축사

- 발간사
- 진리와 정의의 전당 모교를 위하여
- 행운 축사





# 발간사

교정의 꽃들이 만발하고 신록이 초록을 더해가는 축제의 계절 5월에 행운제와 함께 행운 34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장 의학박사  
서장수

올해는 우리 학교가 의학교육을 시작한지 9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1923년 일제 강점기 어려웠던 시절에 조선인 의사 양성을 위하여 관립 대구자혜의원 부속 의학강습소에서 3년제 의학생을 모집하여 의학교육을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국내 의학교육기관은 경성(서울), 평양 그리고 대구뿐으로 우리 학교가 한강 이남의 유일한 의학교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술 및 문예 잡지인 '杏雲'은 6.25 전쟁의 폐허에서 복구가 지지부진하고 사회가 어수선하던 시절이었던 1959년도에 의학도의 본질을 고민하던 당시 학생들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杏雲'이라는 지명도 '신선전'의 동봉이라는 의사가 완치된 환자로부터 치료비 대신 받은 살구나무가 숲을 이루어 봄마다 살구꽃이 만발할 때 꽃구름을 이루었다는 고사에서 착안한 것으로 인술을 펴는 의사에 대한 선배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Edinburgh 대학의 Carlyle 총장은 말하기를 '대학은 지식을 주는 곳이 아니라 지혜를 주는 곳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적 지식만을 습득한 의사가 환자를 대함에 있어 병적 과정의 증례로만 판단하는 우를 범하여 불친절한 의사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됨을 우리는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의학적 지식 습득 이외에 동아리 활동, 학교 축제, 멘토와의 만남 등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함께 체득하는 전인적인 의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운 34집에 지식이 아닌 지혜를 갈구하는 학생들의 글들이 많이 실리기를 바라며 소중한 글을 보내 주신 동문, 학생들과 책 출간을 위해 애쓰신 편집위원들, 지도교수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5월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원장 의학박사 서장수

# 진리와 정의의 진당 모교를 위하여

- 모교의 개교 90주년을 맞아 -



행운편집부  
고문지도교수  
김 세 식

2013년 9월 23일은 경북대의학전문대학원(경북의대)의 개교 9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다. 우리 모교의 연혁은 103년이 되는 1910년 9월 7일 관립대구차혜의원으로 창설개원했던 경북대학교병원에서 1923년 9월 23일 대구의학강습소로 창립 개설되어 오늘 날 까지 온갖 험난한 역경을 겪으면서 일제로부터 1945년 8월 15일 갑격의 광복(해방)을 하여 독일 의학을 바탕으로한 일본 의학으로부터 서양문명의 현대의학으로 진화하고 지금은 초과학적인 현대의학으로 발전을 거쳐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한 불가사의한 최첨단의 초현대의학으로 발전을 하였고 지금 모교는 세계 속의 대학으로 성장발전을 하여 명실공히 세계를 선도하는 명문대학이 되었다. 실로 만감이 교차하는 대우주적 간회와 격세지간을 금치 못한다. 해방되었던 1945년만 해도 전국적으로 6개의 의과대학만 있었던 때를 생각하면 의과대학은 사회적으로 무척 존귀하고 선망의 대상이었고 전신 대구의전(大邱醫專) 배지를 단 사각모를 쓰고 다니던 때의 긍지(프라이드)는 하늘을 찔렀다 그만큼 낭만의 대학생들도 만끽할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무척 어려웠던 그 때가 어떻게 그렇게 희망에 부풀고 낭만이 넘쳤던가 하고 잠시 회상을 해 본다. 그것은 바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구의전이라는 명성을 자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남에서는 최고명문대학이었다. 아니 실제로 전국 최고이었다. 현재의 우리 대학은 사실 세계적인 일류대학으로 진화하였다고 자부한다. 그것은 그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세계를 다니면서 대구의전의 역사를 과시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 긍지 때문이다. 기가 죽지 않고 용감하게 대적할 수 있었던 우리의 실력이 경북대 의대(의전원)에 있기 때문이다. 결코 실력에서 위축이 되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오직 모교의 실력과 저력 때문이라 호언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을 능력있고 유능하고 결국 전지전능한 바로 위대한 의학도로 키워 한 사람의 의사가 분당등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통합의학의사(새전문의학)로 만들어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일차진료기관 의사가 되도록 하겠다. 현재로서는 한 개의 무의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십가지 전문의를 보내야 하는 국가적 인력낭비 때문이다. 환자가 권위의식 때문에 삼차의료기관 대학병원만 찾을 때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은 위축되며 삼차기관은 세분화된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막대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대한 병원이 되고 환자가 몰리기 때문에 심한 인력난과 막대한 시설수요를 해결하는데 과부하가 걸려 운영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건전한 의료전달체계를 통하여 의료기관별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이 적정진료의 질서를 대학병원에서 솔선하여 모든 의료인이 공평하게 잘 살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나의 국민건강정책의 기본이념이다.

한편 오늘 날의 국내외정세는 무척이나 혼란한 나머지 흥미한 지경이다.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본다. 한마디로 정의(正義)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기 때문이다. 가깝게 36년간 일본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안중근선생의 항일부쟁역사에 이어 간격의 광복과 극단적인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미소양대국대립으로 인한 38선의 국토분단에 이어서 6.25라는 참담한 동족상잔의 사상적인 한국동란을 거치고도 아직도 비극적인 남북분단의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에서 온 세계가 종교전쟁 까지 겪고 있는 와중에 국내적으로는 경제는 극도로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나 국본분열과 끊이지 않는 고위층 부정부패(不正腐廢)등 흉악한 사건사고는 정말 종교적으로 말하는 말세현상이라고 할까? 정말 불안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가 해결을 못하면 의자치자(醫者治省)의 원리로 정의의 의사(醫師)가 정의의 메스(mess)로 잘라 내지 않을 수 없다. 사회의 암(癌)적인 존재는 위인치료 즉 근치치료로 도려 내어야 하겠다. 이렇듯 우리 의사의 책임은 신현대의학적 환자치료를 넘어 대의(大醫)로서 과거 어느 때 보다 그 책임이 막중하다.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36년간 식민정치를 했던 일본은 치사하게 조그만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하고 침략을 안했다고 하며 군용위안부도 부정하는 국제적 파렴취행위와 교과서왜곡등을 예사로 일삼고 있어서 더 이상 선진 이웃나라로 볼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의학과 임상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 임상적으로는 전문과가 너무 세분화 되어 의사간 불통시대를 만들었다 정의로운 공공의학과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을 위한 능력있는 동네의원 개업의사중심으로 개혁하여야 하며 따라서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제도화를 서둘러야 하며 문란한 의료이원화제도를 일본처럼(1895년 의회에서 한의사제도폐지)처럼 의료일원화를 하여 미국과 일본등 최선진국처럼 명실공히 진정한 선진국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한국정부의 최우선과제임을 세계에 선포하여야 하고 법제화해야 한다. 의학도들이 기초의학에도 눈을 돌려 세계적인 노벨생리의학상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의술이 인술이 아니고 상술화하여 사회적인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다. 치부를 위한 경쟁적인 전문의양성쪽으로 편향되어 있어 양질의 환자진료가 어렵다. 또 한가지 과제는 서구처럼 생활의 과학화를 통하여 새로운 한국적 새마을 사업으로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악습인 미신(迷信)을 완전히 타파하여야 한다. 정약용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국가를 세워야한다. 이것을 우리 경북대학교가 선도하여 진리 증지와 봉사의 모범이 되었으면 한다. 더욱이 잘못된 본 대학교내의 소수에 의한 불의하고 부당한 역사왜곡이나 저해사건은 결코 엄단되어야 하겠다.

그 동안 오랫동안 행운편집부지도교수와 교문지도교수를 맡아 학생들과 호흡을 같이 한 자그마한 노력으로 바쁜 시간을 할애하면서 합심하여 동창저서전시회까지도 참여하고 한바 있는 과거의 편집부와 금년의 고상진편집장(의 3)외 편집부원 모두에게 오늘까지의 헌신을 길이 기리는 바이며 앞으로 우리 모교가 웅비의 날개를 펴고 세계속에 우뚝 서도록 깊은 모교애를 발휘해 줄 것을 모교의 모든 가족과 함께 염원하는 바이며 금년으로 34집을 내는 교지 '행운(杏雲)'이 90년의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우리 대학의 전통과 함께 더욱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세계속에서 선도하는 의학의 전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 사랑하는 의학도들의 건승과 행복을 빌어 마지 않는다.

( 2013. 5. 명예교수실에서 )



## 행운' 제 34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학생회장 추승균

올 해는 다른 때보다도 유난히 겨울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분명 봄인데도 쌀쌀하던 날들이 많았고 벚꽃도 피었다가 바람 따라 급방 저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6월에 다가서며 햇빛 좋은 날들과 함께 맞게 된 이번 행운제가 더욱 반갑고 기쁜 것 같습니다.

'행운'은 매년 열리는 학교의 축제, 행운제가 열리는 시기에 맞추어, 경북의과대학의 학생회 편집부이자 웹진인 '이음(E:UM)'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 해 34번째 발간을 맞은 '행운'에는 우리 학교의 소식을 담은 기사들과 더불어 교수님,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교내 학생들의 글들이 담겨, 우리 학교의 소식지이자 대표하는 책자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입학해서 1학기를 채 보내지 않은 신입생일 때, 축제 때 발행된 '행운'을 보며 선배님들의 다양한 생활 후기와 교수님들의 글들을 통해 1학년 생활로만은 알 수 없었던 학교생활을 엿보았던 게 기억납니다. 현재 학교를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현재 재학 중인 후배들을 통해 종종 '행운'을 찾으신다고 하니, 이미 이 소식지는 이 학교 안팎을 넘어서서 동아줄처럼 끈끈하게 경북대생들 간의 소식과 함께 정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날아가 버리는 말과는 달리 '남겨지는 글'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행운지는 우리 학교의 역사가 소중한 기록으로 쌓여가는 것과도 다름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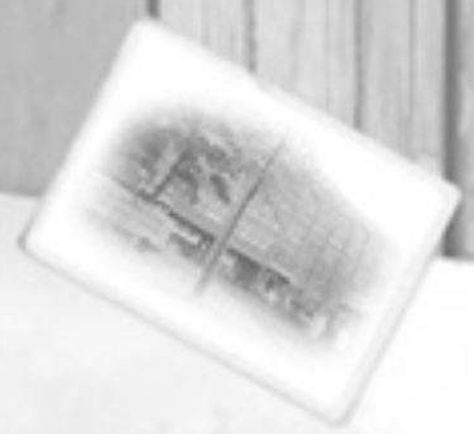
올 해, 제 34호 행운지를 발행하는 데 도움을 주신 학교, 병원, 지도교수님 및 편집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도 이 행운지에 담길 좋은 글을 보내주신 선배님들과 바쁜 생활 와중에도 다양한 글을 기고하신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올 해도 이 '행운'이 많은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 서로의 마음까지 이어지는 소통이자 따뜻함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34번째 '행운'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 Section II

## 학교/병원

- 장봉현 교수님 인터뷰
- 4차병원으로의 도약
- 타이수처대회
- 시리랏 병원 실습수기
- 하마마쯔 실습수기
- 인성관 실습후기
- 봉사활동
- 골학기사





## 의학교육학교실 장봉헌교수님을 만나다

글 / 2학년 정지윤 사진 / 2학년 오정석

4월 봄 비가 추적추적 오던 어느 날, 장봉헌 교수님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정지윤, 오정석 학생인가? 와서 앉아요."

장봉헌 교수님께서서는 PBL시간마다 뵈던 서글서글한 눈으로 우리 기자들을 맞아주셨다. 본과 1학년 첫 PBL은 '나습차씨 내원'으로 시작되었다. 장봉헌 교수님께서 들고오신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첫 환자 케이스였던 셈이다. 그때 그 학습지를 받아든 생소하고 어리숙한 마음이란 모두가 한 번씩 느껴보지 않았을까 싶다.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런 사연을 듣고 찾아오나?"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더 나누기로 하고 봄 비가 흠어지는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 #. 의학교육학?

우리 대학원은 1923년 개교해 90주년을 맞았다. 그 긴 역사 동안 의학교육학교실의 역사는 10년이 조금 넘었다. '의학교육학'이란 단어 자체도 몇 번이고 껌씹지 않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기 힘들다. 처음 장봉헌 교수님과 인터뷰를 기획할 때에도 그것이 특히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수업시수, 수업평가 시간표 등 전체적인 틀이 모두 의학교육학교실의 기획 하에 놓여있었지만 막상 학생들은 의학교육학교실에 대해 연혁, 조직 구조 말고 아는 바가 없다. 의학교육학교실, 무엇을 하는 곳인지 여쭙었다.

"최고의 학생에게 최적의 교육을 해 주자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교수님께서서는 이어 의학교육학 교실의 시작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제도와 교육도 변해야만 했다.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이 한층 강화되면서 의학교육도 변화의 범주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이런 요구에 맞춰 2004년 부터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내렸다. 이런 시기적인 문제와 맞물려서 의전원 체제에 적합한 교육내용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생겼던 것.

"다시 2015년이면 2+4 의과대학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지. 또 다른 변화의 요구인가야. 어떤 것이 학생들에게 좋은 시스템이 될지를 고려해야 해. 그게 의학교육학 교실이 할 일이지."

교수, 학습, 평가 방법의 개발,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의학교육학교실은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요구와 우리의 수업공간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는 셈이다.

의학교육학교실이 설립된 2001년 이전까지는 전임교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전공이 다른 각각의 교수님들이 겸임하고 있는 일종의 모임으로 지속되어왔다고. 학과 평가, 의료 역사, 윤리, 예술 등을 포괄하는 인문학분야를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고민 하에 의학교육학 교실이 틀을 잡아 갔다고 한다.

"앞으로 졸업생들이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해. 주전공은 따로 있고, 부전공으로 의학교육학을 겸 하는 걸 추천하고 싶어. 의사라는 직업은 사회로부터 면허를 부여받는 직업이지.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책무감을 지녀야 한다는 말이야. 후학을 가르치는 데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덧붙여 교수님께서는 영국의 의과대학에서는 전공의들이 해야 할 업무 중 하나가 후배들에게 lecture를 기획, 제공 하는 일이라고 하셨다. 그만큼 후학을 생각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의학교육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시는 교수님의 톤은 진지하지만 무겁지 않았다. 많은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현실에 녹여 살고계시기 때문이리라.

## #. Problem Based Learning

앞서 언급했듯 꿈에 그리던 의학도가 된 후, 우리의 첫 환자케이스 대면은 바로 PBL시간에 이루어진다. 주소도 배경도 다양한 그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햇병아리 의학도인 우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인지 교수님께 여쭙었다.

"PBL을 준비하며 가장먼저 우리가 하는 일은 '주제' 정하기지. 그리고 전체 교육과정상 자네들이 어떤 학습목표를 이뤄야 하는지 파악하고, 해당 필드에서 만날 수 있는 전형적인, 빈번한 주제를 탐색하네. 어떤 중재가 필요한지를 떠올리고 시나리오를 개발하지. 임상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내원한 환자의 질병역학, 사회경제적 측면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도록. 그리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각 과에 보내면서 사례를 개발해달라고 의뢰하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

우리가 지면으로 만나는 (덧붙여, 이름이 지극히 환원적인) 환자들은 사실 각 과의 진료실을 찾은 실

제 환자들이다. 얼굴도 모르는 그들이 자신의 배경, 생활습관, 그리고 온 몸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매 PBL시간을 채워주시는 튜터 교수님들 역시 튜터 교육을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사례 개발 못지 않게 튜터선정 또한 쉽지 않았어. 초기에는 많은 부분을 튜터 재량으로 남겨두었었지. 이를테면 학습지를 튜터가 주도적으로 나눠주는 것이었으니까 주도자가 바로 튜터라고 할 수 있었어."

그러나 전공이 다양한 튜터들을 표준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학생주도형 PBL로 학생들이 knowledge application 방법을 탐구하는 것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대학원은 PBL을 시행한지 14주년이 되었다고 한다. 94년 캐나다 맥마스터 의과대학의 PBL 수업을 벤치마킹 한 것이 그 시초가 되었고, 처음에 예과 2학년 생들을 불러다 시범운영을 해 보며 가능성을 검증해보았다. 하나의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조편성에서부터 수업시간의 확보, 사례 내용과 통합강좌와의 관계 등 쉬운 일이 아니었으리라. 교수님께서는 1996년부터 PBL 수업 책임교수를 맡아오셨고 2005년부터는 한국 의과대학 PBL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실 정도로 PBL에 대한 교육학적 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계신다.

현재 우리 대학원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하와이 JABSOM(John A. Burns school of medicine)의 교육과정은 완전한 PBL로 모든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2007년부터 계속된 하와이 의과대학 PBL 워크숍은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렇지만 학생인 자네들을 실험상대로 어떤 교육적인 개혁을 해 보인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네. 자네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실정에 맞게 재단되어야 그것이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지 그네들처럼 전체를 PBL로 진행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야."

PBL 수업이 grading system에서 벗어나있지만 체계적이고 단단하게 우리 수업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이런 교수님의 철학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말씀 그대로, 도구의 교육적 가치를 떠나 우리 실정에 맞게 재단되어야 그것이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 # 후배이다 학생들에게

교수님께서는 학생시절 정우회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고. 그 당시 교수의 방학은 출근 테니스로 채워져있었다고 하셨다.

"본과 1학년 때에 생화학 교수님을 찾아갔지. 학교 대표로 테니스 대회에 참가하는 데, 혹시 시험을 다른 기회에 칠 수 있는지 여쭙보려고. 그런데 안통하더라고. 학생때는 자부심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교수입장 되어보니 그게 그렇게 통할 게 아니야(웃음)."

교수님께서서는 체육활동이든 미술, 사진이든 건전한 취미가 있어야 한다고 몇번이고 강조하셨다.

"의사라는 직업이 까딱하면 발을 헛디디기 쉬운 직업이거든. 항상 약에 가까이 있고. 술이면 술, 담배면 담배-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으면 뭔가에 빠지기가 아주 쉬워."

그리고 진로에 대한 조언또한 아끼지 않으셨다.

학생들은 졸업 후 의사로서 진료의(practitioner), 그리고 학자 혹은 과학자(scholar, scientist), 또는 윤리 도덕성을 가지고 사회적 책무를 지닌 전문인(professional)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학창 시절 학업은 물론이고 사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임상 의사, 기초의학자, 의료행정가, 의료방송인, 교육자 등 폭넓은 진로가 있음을 말씀하셨다. 임상 의사를 하다가도 기초연구에 관심을 품게될 수 있고,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될 수도 있다. 흉부외과 전문의이신 장봉현 교수님께서 의학교육학에 몸 담고 계신 것을 떠올리면 커리어는 끝 없는 배움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저녁식사 중간중간 이야기를 나누다 어느덧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까지 우리 앞에 나와 있었다.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두시간여 동안 빗방울은 더 굵어졌다.

사회는 계속해서 급변해. 환자들의 교육수준도 그렇고 의료환경, 우리를 둘러싼 제도들도 그렇지."

교수님께서서는 이런 때에 커뮤니케이션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 많은 지식을 머리에 넣고 또 구현해내고 하는 모든 배움의 과정 끝에는 진료실의 환자와 의사가 있다. 사회 제도 안의 의사, 환자가 있다. 그들을 이어주는 것은 결국, 커뮤니케이션이다. 의사소통뿐 아니라 태도, 윤리성과 관계형을 포괄하는 개념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맥락에서 의료윤리학을 포함한 의료인문학과 의학교육학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덧붙이셨다.

#### #. 마치면서

장봉현 교수님께서서는 앞으로 정년이 7년 정도 남아있다고 하셨다. 88년 전문의 자격증을 획득하시고 89년부터 흉부외과 교수로 재직하셨던 것이 이제 2013년. 인터뷰 내내 장봉현교수님의 차분하고 조용한 음색에서 여전히 후학교육에 대한 교수님의 열정이 느껴졌다.

의학도로서 만나는 첫 환자에게 우리를 이끄시는 장봉현 교수님. 졸업한 학생들이 가는 길을 보며 보람을 느끼신다는 교수님 말씀에 든든한 멘토 한 분을 모시게 된 것 같아 벅찬 마음으로 인터뷰를 마쳤다.

# 4차병원으로의 도약! 지방 유일의 연구중심병원, 경북대병원

글 / 2학년 김태경

현재 세계는 Post-IT시대로 Health Technology(HT)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지금 보건의로 기술개발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기초의학 분야에의 MD참여 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모든 과학이 인간을 위한 학문이듯 그 연구 역시 인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의대가 중심이 되어 연구가 진행되어야 인체를 알고 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실정에서 대구 경북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경북대 병원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많은 변화 중 특히 주목해 봐야 할 것이 3월 26일에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이 그것이다. 연구중심병원이란 기존의 병원과 다르게 환자의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시스템과 더불어 진료 외에 연구를 위한 조직, 인사, 재무 시스템 등이 갖추어져 있는 병원을 뜻한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이 되면 국가 R&D 집행 상 인센티브, 연구비 재원 조달, 조세감면,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병역 대체 복무 인정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런 병원으로 지방에서 유일하게 경북대학교 병원이 선정 되었다.

경북대학교의 연구 중심병원으로의 길은 처음부터 치열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연구중심병원 심의 위원회 심의로 선정이 되는 방식이었는데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였고, 많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다른 병원과의 치열한 경쟁은 불을 보듯 뻔하였다. 실제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등,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3~4개 밖에 선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여러 소문이 돌아 경쟁이 과열되었고, 이런 경쟁 속에서 각 병원마다 심사를 비밀리에 진행하기도 하였을 정도이다. 신청접수단계에서 25개의 병원이 신청하여 1차 평가에서 14개의 병원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2차 평가와 현장조사를 거쳐 10개의 병원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는데 10개의 병원 중 9곳에는 수도권에서, 단한 곳 경북대학교병원

만이 지방에서 선정되었다.



그림1 연구중심병원 심의 위원회 심의로 선정

경북대학교 병원은 2011년 선도형특성화 연구 사업으로 선정되어 5년간 매년 45억 씩 총 279억원의 연구비를 받으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 이외에도 많은 연구 사업단을 형성하여 언 제라도 연구중심병원이 되어있



있을 만큼 연구에 기반을 쌓아 왔었다. 또한 경북대 병원 자체에서도 교수진은 연구중심병원으로의 길에 88% 찬성을 하였다. 연구 기반이 있는 동시에 많은 교수진의 관심이 보태어져 연구중심병원으로의 길을 밟아 가기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경북대병원이 내부 경쟁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연구 주제는 크게 4가지로 대사성질환, 난치성 혈관질환, 암 진단, 생체조직 장기 재생이다.

이 4대 중점 연구 분야는 내분비내과의 이인규 교수님께서 책임을 맡고 있는 대사성 질환 분야, 신경외과의 박재찬 교수님께서 난치성 혈관 질환, 셋째는 박재용 교수님께서 암 진단 분야, 마지막으로 정형외과의 김신운 교수님께서 생체조직장기 재생 분야를 맡고 계신다.

대사성 질환 분야는 2011년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단을 기반으로 당뇨병 치료제와 합성신약을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성화해 장기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기술 이전 성과를 달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25년간 소아 당뇨캠프를 운영하고 30년간 당뇨병 교실을 운영하는 등 사회보건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난치성 혈관질환분야는 지난 4월 5일 EBS 명의를 소개될 정도로 우수한 권역심외혈관센터를 기반으로 뇌동맥류 치료법, 수술법 개발과 혈관질환 진단법 개발 등을 특성화할 계획이다. 규성심근경색증 3년 연속 1등급 우수기관 선정돼 규성기 뇌졸중 2년 연속 1등급 우수기관 선정되는 등 연구 실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복지부 말기신부전 임상연구센터와 장기이식 센터실적으로 5년간 지역 최다 신장이식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암 진단 분야 또한 칠곡 지역 암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대장암 로봇 수술 실적을 자랑하며 자궁경부암 진단 상용화 사업단을 유치하고 있다. 또한 최첨단 방사선 치료 장비인 VERO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면서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2012년 칠곡 경북대병원은 개원 1년 6개월 만에 의료기관 인증제를 통과하여 주목을 받았다. 더 나아가 폐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분야의 진단키트 개발과 맞춤형 치료를 위한 바이오 마커연구를 특성화 할 계획이다.

생체조직 장기 재생 분야는 국내외 최고 모발이식센터와 동시에 재생의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재생의학 연구소는 2009년 미국 Wake forest institute for regenerative medicine(WFIRM)의 제임스윌교수와 경북대학교 병원이 공동으로 국제공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생체조직, 장기 재생 팀은 생물학, 의공학, 단백질체학, 생리학, 약물 전달학 등 다학적 접근으로 여러 생체 장기를 재생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우선 2016년 3월까지 3년간 연구중심병원의 자격을 가지고 이후 재평가된다. 이에 경북대병원은 단계적 목표를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기반을 준비한다. 향후 10년 뒤 [한국형 연구중심병원 완성]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 목표를 달성하고 3년 단위의 지정 과정을 통해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려한다. 크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지속가능한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 참여 임상 의사 비율, 연구전담의사, 전임규 연구전담요원 등의 연구인력 확보와 양성 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공의와 임상강사의 수련기간에 전일제 연구수행은 필수 요건화 하고, 신임 임상의 채용 시 MD/Ph.D. 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하는 등 연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확대를 도모하려 한다. 그리고 진료감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를 통해 임상의사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나타나는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목표를 세워 추진하려고 한다.

	도입기('12~'15년)	성장기('16~'18년)	성숙기('19~'21년)
목표	지속가능한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기술산업화 기반조성	고부가가치 제품·서비스 창출 R&D 선순환
연구·산업화 수입 비중	5% ~ 8%	8% ~ 12%	12% ~ 15%

그림2 연구중심병원 성장 목표

또한 대구 첨단 의료 복합단지과 연구 인력을 공유해 KNU Catalyst를 만들어 기술사업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4개의 중점 연구 분야를 토대로 장기적인 파이프라인 기술이전 성과를 달성하고 의료기기 임상 진입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서비스 창출을 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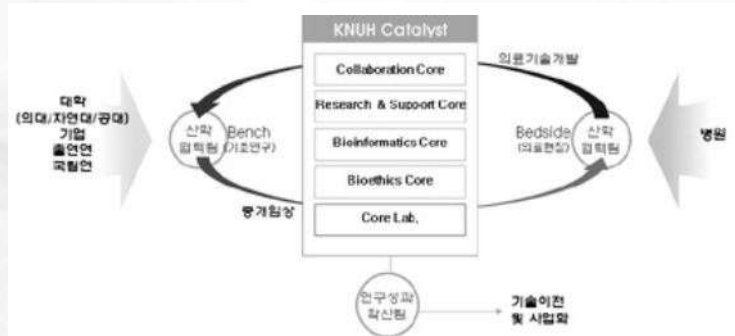


그림3 KNU Catalyst

이런 도전적 목표는 지금까지의 의료 수익 대비 연구비 비중이나 경북대학교 병원이 이런 연구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연구 중심 병원 지정을 통해 더욱 고도화되면서 충분히 달성 가능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공동발전으로 새로운 치료방법과 신약이 개발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의료산업 발전에도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대학교 2012 Tie and Suture 대회

## 내과? 외과? 외과에 관심이 있다면....., 니도 한 번?

글/ 2학년 오정석 사진/ 2학년 이승제



의학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들의 직업은 대부분 외과의사이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도 외과의 한 영역인 외상외과를 주제로 해서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의사하면 떠오르는 의사의 모습은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모습이다.

외과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외과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외과는 의학의 한 분야로 내과에 대비되는 학문 분야이다.' 내과에서는 주로 약물치료를 하는 반면에 외과에서는 수술로 환자의

질병이나 상태를 치료한다. 영어로 외과를 'surgery'라고 하는데 이는 그리스어인 'cheirurgike'에서 기원하였다고 한다. 이를 풀이하면 'hand(손)+'work(작업)' 즉, 손으로 하는 작업이라는 뜻이다.

외과는 일반외과라는 명칭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1950년대를 지나면서 의학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특히 외과는 질적, 양적으로 엄청나게 팽창하여 각 부문이 전문성을 가진 별도의 학문 영역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흉부외과 등이 자연스럽게 분리 독립하게 되어 그 모태가 일반외과라는 이름으로 남았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정책국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증에 전문 과목 표기는 1954년까지는 외과로 하였고, 1955년부터 1989년까지는 일반외과로 하였으며, 1990년 이후 다시 외과로 개정된 상태이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흉부외과 및 이후에 분리된 성형외과를 통틀어 넓은 의미의 외과라고 한다. 그 밖에 두경부, 유방, 위장관, 대장항문, 간담체, 이식, 혈관, 소아 및 외상 외과 등도 있다.

외과에 대한 이런 설명은 일반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는 외과를 전공하고 계신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과의국에서 1년간의 병원실습이 끝나고 자신의 전공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본과 3학년을 대상으로 외과라는 과에 대한 설명과 외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교류를 위해 Tie 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Tie, Suture, 복강경대회 그리고 대회 후 만찬 순서로 되어 있다. 우리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일찍 대회장소를 찾았다.

## 1. Tie 대회

Tie 대회는 실과 테이프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실제 수술에서 Tie는 3~4회 정도만 한다고 한다. 하지만 대회에서는 1분 30초 동안 누가 가장 많이 그리고 예쁘게(?) 모양이 잘 나오게 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Tie라는 것은 수술용 실의 매듭을 말하며 양손으로 실을 잡고 매듭을 짓는 것이다. 위에는 연습 중인 선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타이 하는 것을 보면 연습량에 따라 개인마다 속도의 차이가 있었다.



Tie 대회는 책상 중간에 테이프로 실을 붙여놓고 타이틀 한다. 테이프에서 Tie가 떨어지거나 너무 힘을 줘서 테이프가 끊어지면 탈락이다. 예선을 마치고 결선에는 총 8명의 선배님들이 올라갔고 긴장감을 주기 위해

서인지 아니면 엄정한 평가를 위해서인지 교수님과 외과레지던트 선배님들이 직접 Tie 수와 실이 끊어지지 않는지 감독해 주셨다. 대회가 끝나고 교수님들이 모여서 순위를 결정하시는 모습이다. 결선 질로 본 평가 방법은 극히 주관적이지만, Tie수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매듭의 모양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았다. Tie수가 너무 적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넘어가면 매듭의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누가 더 많이 했나보다 모양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던 걸 보면 아마도 어느 정도 수와 매듭의 모양이 중요한 것 같아 보였다.

## 2. Suture 대회

Tie 대회가 끝나고 suture대회가 시작되었다.



책상위에 suture에 필요한 모든 도구가 세팅되어 있다. suture는 최대한 사람의 신체와 비슷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돼지 족을 이용한다.

suture 대회는 5분 동안 돼지 족에 칼집을 7cm가량 내어서 suture를 하는데 suture 간격은 1cm. 가장 중요한 것은 suture의 수와 모양이라고 말씀 하셨다. 제일 잘한 한 땀과 제일 못한 한 땀을 제외하고 판정을 하겠다고 하

셨다. suture대회는 예선전 없이 바로 결선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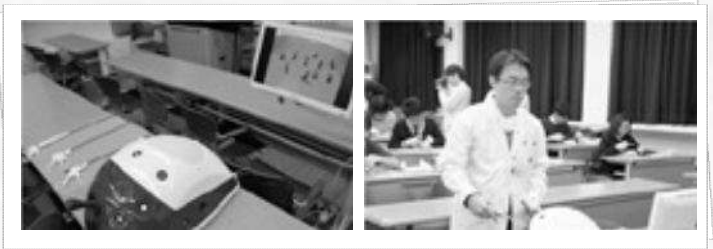
suture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교수님. suture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셨고, suture하기 편하게 칼집은 대각선으로 내는 게 낫다고 팁을 주셨다.

왼쪽 사진은 대회가 끝나고 순위를 정하고 계신 교수님들. 교수님들께서 suture된 것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 수술실에서는 얼마나 실수 없이 꼼꼼하게 수술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3. 복강경대회 & 시상

suture 대회가 끝나고 번외로 복강경대회가 열렸다.

복강경 시뮬레이터는 복강경 모형 안을 비추는 모니터를 보면서 집계를 이용해서 바늘을 검은 막대 위 구멍에 통과시키는 모형이다. 복강경 시뮬레이터를 직접 해보시는 박진영 교수님. 모니터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날카롭다.



시간이 없어서 복강경대회는 번외경기로 선배님들 중 몇 분만 참가하셨는데, 참여하지 못하신 선배님들 모두 신기해하시면서 구경하였다. 번외경기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웠다. 내년에는 정식으로 대회가 열렸으면 좋겠다.

수상은 Tie, suture 각각 1,2등이 있었고 종합1등. 이렇게 총 5분이 상을 받았다.

대망의 종합1등에는 변은애 학우가 되었다. 수상소감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더 잘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서 좌중을 모두 웃게 해주었다.



각 부문 상품은 1등은 디지털 카메라였고 2등은 외장하드. 종합 1등은 갤럭시 노트 10.1.

내년에는 어떤 상품이 나올지 기대가 된다.

Tie 대회는 의전원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의전원 재학 중에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대회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거기다가 손재주가 있다면 상품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굳이 상품이 아니어도 재학 중 단 한 번의 좋은 경험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 Siriraj hospital in Bangkok

글/4학년 임춘근

현재 우리학교에는 3학년 겨울방학 동안 학교를 통해 해외실습 갈 수 있는 곳이 2군데가 있다. 일본 하마마츠 대학이 예전부터 교류를 하고 있었고 올해는 태국 Mahidol 대학이 새롭게 우리학교와 교류 체결을 맺었다. 원래 선발인원은 4명이었지만 5명 (여자 4명, 남자 1명)이 해외실습원으로 뽑혔다. 그 학교에 대해 간단히 조사해본 바로는 태국에서 세 손가락에 꼽히는 큰 의학대학이라는 점 외에는 자세히 알 수 없었다.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필요한 서류를 급히 준비했다.

흉부외과 1명, 소아과 2명, 신경외과 2명, 올해 Siriraj hospital (Mahidol university의 hospital)에서 실습을 도는 학생들이 선택한 3군데이다. 실제로 2주씩 두 개의 과를 도는 줄 알았는데 4주간 한 과에서만 실습을 도는 일정이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학교에서 MOU 체결을 맺은 상태나 보니 CV(curriculum vitae) 이외에는 몇 가지 주는 서류만 작성하면 준비서류는 끝이 난다. 태국은 비자 없이 3개월 동안이나 머물 수 있어 따로 비자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겨울 방학 한 지 1주일이나 되어가는 주말, 각자 한 달간 태국에서 지낼 준비물들을 들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저녁비행기를 타다 보니 태국에 도착하니 일요일 새벽 3시다. 그 쪽에서 예약해준 리무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한다. 한국을 떠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새벽 거리가 낯설었고, 폐가 시린 한국공기는 어느새 잊혀지고 축축하고 후덥지근한 습기에 내 몸이 녹아들고 있었다. 택시기사님과 힘든 의사소통을 통해 가까스로 기숙사에 도착했다. 누나들 3명은 여자 기숙사로 향하고 나 혼자 천천히 남자기숙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디기만 하다. 미리 뽑아온 지도는 큰 도움이 되었다. 로비에 도착하자 자고 있던 경비아저씨가 반갑게 반겨준다. 코리아 라는 한 마디에 장부를 확인하더니 싸인과 함께 열쇠를 들고 방으로 안내해준다. 제일 위 층, 제일 끝 방이다. 굉장히 좋은 학교고, 유명한 병원이라기에 기대를 했지만 첫 기숙사의 느낌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엘리베이터에는 나무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으며 기숙사 방 내부에는 나무로 된 침대 하나와 굉장히 낡은 책상과 옷장이 있다. 보통 3-4명이 한 방을 쓰는 것 같은데 나는 외국에서 온 남학생이 혼자나 보니 나 혼자 방을 쓴다. 도착과 함께 짐을 풀고 샤워를 마치니 시간은 새벽 4시가 훌쩍 지났다. 내일 아침 7시 30분까지 일어날 생각을 하니 쉽게 잠이 오지 않는다.

## \* 스케줄

4주 간의 스케줄은 과 별로 따로 정해져 있었다. 첫 날 각과의 사무실로 찾아가 스케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병원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과 영어로 의사소통 하기에 충분했다. 거의 대부분 스케줄은 오전 8시부터 9시정도까지 오전 회진을 하고 이 후 수술참관 혹은 외래참관을 하는 형식이었다. 오전 회진은 요일별로 회진 장소와 주제가 바뀌었다. 그리고 첫 날 사무담당자를 따라가서 이 곳에 지내는 동안 쓸 명찰을 만들었다.



앞으로 지내는 동안 항상 가운데 끼고 다닐 명찰이다. 이름이 Lim으로 나오고 Chunggeun가운데Chun만 나오고 인쇄되었다. 이름을 적어줄 때 잘 적어주자!

회진은 우리와 같은 외국에서 온 clerkship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주로 영어를 쓴다. 우리 이외에도 많은 학교에서 clerkship을 오는데 주로 여름에 많이 온다고 한다. 이 당시에는 독일에서 온 Temmy라는 학생이 신경외과 clerkship을 들고 있어 한 달간 함께 했다.

내가 실습 했던 신경외과의 일정 자체는 굉장히 여유로웠다. 8시부터 약 1시간 정도 회진을 돌고 9시에는 수술참관 하는 일정이었으며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외래를 참관했다. 신경외과 수술방은 4개가 있었으며 거의 70-80%는 brain tumor에 관한 수술이었다.

## \* 기숙사

기숙사는 남녀 기숙사가 따로 있으며 현재 병원 안에 있는 학생용 기숙사는 굉장히 오래되었다. 기숙사 바로 옆에는 방콕의 젓줄이라 부르는 짜오프라야 강이 흐르고 있는데 밤에 기숙사에서 내려다보면 그 경치가 일품이다. 남자 기숙사는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로비에 그 층의 화장실이 있다. 이 곳 건물이 낡았



다는 것은 화장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화장실이 정말 오래되었다. 하지만 당시 이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가장 위 층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내가 쓰는 가장 윗 층 화장실만 깨끗하게 바뀌어져 있어서 굉장히 편했다. 로비에는 전자레인지와 냉장고가 있어서 음식을 넣어두고 전자레인지로 간단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도 있었다. 게다가 기숙사 내에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서 방에

서도 편하게 노트북을 쓸 수 있었다. 물론 설정을 몇 가지 바꿔야 하지만 1층 로비에 머무는 학생들에게 영어로 물어보면 친절히 배울 수 있었다.

기숙사 방 내부인데 보다시피 부족한 것도 많지만 에어컨도 시원하게 켤 수 있고 밤에 테라스에서 보이는 야경이 정말 예쁘다. 맞은편에 위치한 유명한 왕궁과 사원 '왓프라깨우' 또한 불빛과 어울려 장관을 자아낸다.

기숙사 앞에는 위와 같은 멋진 수영장도 있다. 수영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사이에는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다. 단 수영복과 수영모는 본인이 준비해서 가야한다. 그리고 입장료는 50바트로 매우 저렴하다. 2시에서 5시에는 수영 수업이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 붐비는데 그 외의 시간에는 한 두 사람이 전부다.



내가 머물렀던 숙소 테라스에서 보이는 조경이다. 야경 또한 굉장히 멋지다. 아침이면 분주하게 배들이 강을 가로지른다. 이 곳에서는 배가 대중교통의 일환으로 매우 발달해있었다. 수성못의 오리배만 보다가 도심속에서 이런 큰 배를 보니 신기하다.



### \* 교통

태국은 택시비가 저렴하여 많이 먼 거리가 아니면 택시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으며 낮에는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수상교통을 많이 이용한다. 우리가 머무는 Siriraj hospital은 바로 옆에 '짜오프라야' 강이 있으며 'WangLang Pier'라는 선착장이 존재한다. 이 곳에서 가고 싶은 방향에 따라 표를 끊어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오는 배를 타고 이동하면 된다. 단순히 강을 건너는 배는 약 3바트 (한화 120 원) 가량으로 매우 저렴하고 강을 따라 아래로 혹은 위로 이동하는 배는 20-40바트 거리에 따라, 서



는 선착장 수에 따라 다양하다. 오전 중에 일찍 실습을 마치는 날에는 가고 싶은 관광지를 가보기도 좋다. 하지만 밤에 이동 시 택시를 탈 때는 적어도 한 명의 남자와 함께 타기를 현지에서 있는 태국인들도 추천했다.

### \* 부가일정

우리과에서 정해진 스케줄은 보통 오후 1시부터 2시가 되면 끝이 났었다.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주변 시장을 구경하기도 하고 다른 관광명소를 돌아다니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실습을 하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면 더 많은 것을 설명해준다. 과에 따라 다르지만 스크립트를 읽고 함께 스크립트를 설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 우리학교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의 여러 학교에서 clerkship을 오기 때문인지 일정이러든가 우리를 대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익숙해 보였다.



Suture와 Tie lecture 실습 사진이다. 4주 중에 하루를 잡아서 까맣게 태운 굴 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기는 실습을 한다. 과즙에 나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하면 된다고 했다. 우리 학교 실습 중에는 본 적이 없

던 것이라 새로우면서도 재미있었다. 두 사람 모두 굉장히 잘 했다고 칭찬을 받았다.

Sinraj international relations의 dean과 함께 저녁을 먹은 날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맛있는 태국 음식도 먹으며 실습은 어떤지, 한국 의대는 어떤지 등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디저트로 처음 먹어본 두리안은 먹기 힘들었다. 열대과일의 왕이라는 별명에 기대를 했는데 처음 먹는 사람에게는 익숙해지기 어려운 냄새라 느끼고 아이스크림으로 바꾸었던 기억이 난다.

한 참 실습을 하던 중에 소아과 실습을 선택한 두 사람이 목요일 하루는 Mahidol university에 가서 수업을 참관한 나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병원 실습도 좋지만 태국의 대학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신경외과 실습을 책임지고



있는 분에게 목요일에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는 실습을 하고 싶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니 흔쾌히 허락하셨다. 목요일 아침 일찍 셔틀을 타고 간 Mahidol university는 굉장히 컸다. 대학 내에서 돌아 다니려면 사진에서 보이는 저 차를 타고 돌아 다닌다. 저 차도 3종류의 노선이 있었다. 우리가 수업을 들었던 곳은 국제학부로 전 세계의 학생들이 있었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 국적이 매우 다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명의 한국학생들도 만났다. 수업이 끝나고 학교 주변을 구경하고 다니다가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난 적도 있었다.



나는 목요일 대학 수업을 통해 알게 된 교수님이요 소아과 실습을 도는 누나들을 많이 챙겨 주던 교수님이시다. 수업이 끝난 후, 우리에게 어제 저녁에 organophosphate에 중독된 환자가 있었다며 추가로 설명을 해주셨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집으로 초대를 하셨다. 교수님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즐겁게 보냈던 시간은 태국에서 지낸 한 달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다.

한 달간의 실습은 이와 같은 일정으로 지내다 보면 금새 지나간다. 실제로 태국에 있을 당시 마지막 주에는 지겨워서 빨리 한국에 오고 싶었지만 지금은 또 태국의 뜨겁고 후덥지근한 공기가 그립다. 두 달여에 가까운 긴 3학년 겨울방학을 그냥 집에서만 보내지 말고 나들 한 번쯤 좀 더 넓은 세상으로 한 발만 뻗어보자. 학교에서 제공하는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내가 태국병원에 실습을 할 수 있을까?

## 2013년 1월 일본 히미미쯔 의대 실습을 다녀와서.

글/ 4학년 이주갑, 강새롬, 하영우

### ☒ 히미미쯔 및 학교, 병원 소개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깝고 요즘은 여행자 수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잘 알려진 일본이지만 히미미쯔란 지명(地名)은 입학하고 나서 처음 들어봤을 정도로 생소했고 아마 많은 이들에게도 낯선 곳일 것이다. 히미미쯔는 일본 시즈오카현 중부지방에 위치한 도시로 태평양에 접해있다.

도쿄-나고야-오사카를 잇는 신칸센이 지나는 도시로 일찍부터 산업이 활발했으며 특히 카와이와 야마하 악기의 대표 생산지이자 야마하, 혼다, 스즈키 등의 일본 4대 모터사이클 업체 소재지다. 음식으로는 장어(일본명, '우나기')와 녹차가 유명하여 일본 전역으로 수출하는 것은 물론 장어구이, 우나기파이(장어과자)는 히미미쯔의 필수 관광코스이기도 하다.

이 도시에 위치한 히미미쯔 의과대학은 1974년에 설립되었고 이어 1977년에 부속병원이 들어섰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히미미쯔 의대의 장점은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과 사립대에 비해 훨씬 저렴한 등록금, 그리고 도쿄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대학병원은 대략 600병상이 조금 넘는 규모로 크다는 느낌은 없었으나 병원 안팎에서 일본특유(?)의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경북대 의전원과 히미미쯔 의과대학의 교류는 정확히는 몰라도 10년 이상 전에 시작되었고 학생들 뿐 아니라 교수님들 차원의 학술교류도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과대학, 간호대학 그리고 대학병원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도심에서는 제법 떨어져있어 시내 중심가 히미미쯔 역에서 버스를 타면 병원이 그 버스의 종착역이었다. 주변이 몹시 조용한 주거지역이었고 대형마트, 식당 또는 술집 등을 찾아 어디론가 이동하려면 차가 반드시 필요해서 우리가 만난 의과대학 학생 대부분이 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곳 학생들이 종종 차로 우리의 발이 되어줄 때도 있었지만 우리끼리 다닐 때는 발품을 팔거나 그나마 가까운 편의점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 \* 디월동기

내가 입학할 당시에는 미국의 Wake Forest 대학과 히미미쯔 의과대학 두 곳의 해외실습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현재는 Wake Forest 대학과의 교류는 없어지고 태국 방콕의 마히돌 의과대학과 새로 교류

를 맺은 상태이다. 나는 1학년 때부터 하마마쯔를 마음속으로 지망했는데 '하마마쯔 의대와 다른 의대를 놓고 비교한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아닌 '일본에 꼭 가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막상 3학년이 되어 지원을 코앞에 두고는 일본의 '방사능 문제'가 마음에 걸리는 동시에 방콕(마히돌 의대)의 뜨거운 태양이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끝내 하마마쯔를 택했다. 어렸을 때부터 만화, 소설, 영화, 역사 등을 통해 내게 영향을 끼친 수많은 일본의 모습들, 그 오리지날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 \* 출발에서 도착

실습 첫 날은 월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그곳 교직원들이 쉬기 때문에 전 주 금요일에 도착해야 기숙사 및 다른 입학절차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하마마쯔로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먼저 다녀오셨던 선배님들의 추천대로 나고야(名古屋)시에 있는 츄부국제공항(中部國際空港)을 통해 입국하고 거기서 바로 공항버스를 타고 하마마쯔로 이동했다. 사전에 입국시간을 Rika Komatsu씨(하마마쯔 의대 행정실 담당자)에게 메일로 알려주면 공항버스 시간표와 내리는 곳을 알려주고 우리 도착시간에 맞춰 차로 마중 나오신다. 이후 기숙사, 임시학생증 그리고 기타 모든 절차를 Rika씨가 안내 해주신다. 영어에 능숙하시며 친절하셔서 떠날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다.

## \* 기후와 그 주변

하마마쯔의 위도가 부산보다도 밑이고 큰 바다에 접해있기 때문인지 1월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춥지 않다. 낮에는 우리나라 늦가을 내지는 초겨울의 기온 정도인데 단 바람이 많이 분다. 일본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발이 푹푹 빠지도록 눈 덮인 일본의 겨울은, 눈 구경조차 어려운 이곳에선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도 늦은 밤에는 쌀쌀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타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옷을 반드시 준비해야한다.

국제교류회관이라는 외국학생 전용 숙소에 묵었는데 각 세대마다 크기가 달라 같이 간 여자 동기는 워룸정도 크기의 방을 혼자 쓰고 남자동기와 나는 거실하나와 방 두 개 딸린 방을 썼다. TV, 냉장고, 가스렌지, 세탁기, 전열기, 히터, 밥솥, 냄비 등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 대부분 구비되어있었지만 우리에게 먹고 지는 것만큼 중요한 인터넷을 쓸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 당연히 LAN선 꽂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 동기가 야심차게 들고 온 무선공유기는 빛도 보지 못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학교 건물에 가야했다. 노트북의 부재를 산책이나 명상, 독서로 채웠다면 혼곤했을 텐데 우리는 노트북 속 철지난 예능이나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고, 게임 속 가상세계의 천하봉일에 열정을 쏟으며 그러저럭 적응해 나갔다.

차가 없었기에 멀리 장보러 다니기가 불편해서 한번 나갈 때 장을 많이 봐놓고 평일 아침, 저녁은 주로 방에서 직접 해먹었고, 평일 점심은 병원이나 학교의 구내식당에서 500엔 정도하는 식사로 해결했다. 주말에는 계속 하마마쯔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나뉘었으므로 그곳의 여러 가지 음식을 사 먹곤 했다.

## \* 실습 전반

실습은 우리 3학년 PK실습과 거의 같은 시스템이라 스케줄 표만 받아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각자가 지워한 과를 같은 시기에 그 과를 도는 하마마쯔 의대생 PK조에 배정되어 함께 실습을 돈다. 한 조가 세 명인 우리와 달리 한 조에 7~8명으로 이뤄져있으나 실제로는 그 안에서 다시 세부 조로 나뉘이기 때문에 다 같이 움직일 때도 있고 따로 다닐 때도 있다.

하얀거탑의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던 탓에 일본 대학병원의 무거운 분위기를 상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셔츠에 넥타이를 하고 구두까지 신고 다니는 내가 튀어 보일 정도로, 학생들은 면바지에 티셔츠, 그 위에 가운을 입고 운동화를 신는 경우가 많았다. 교수님들이나 레지던트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관계도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들의 친절함이 혹시 외국학생인 우리를 의식한 건지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극소수인 몇 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대해 주신다고 했다. 외래나 시술 참관 시에도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함께 간 동기 셋 중에 유일하게 일본어를 못하는데 실습을 무사히 돌 수 있을까하는 걱정을 했었다. 그러나 매년 세 명이 하마마쯔 의대에 가지만 그 중에는 늘 일본어를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었다. 나처럼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도 실습을 돌 수 있는 것은 그곳의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외국인인 우리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모국어로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만큼은 안 된다하더라도 시술이나 분위기 등 비언어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과별로 스태프 선생님들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다행인 것은 한자를 웬만큼 읽을 수 있었는데 일본어의 어휘 대부분이 한자어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글자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는 있었다. 혹시 이미 하마마쯔에 실습가고 싶은 마음을 먹고 있는 후배라면, 미리 일본어를 공부하기를 추천한다.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더 하는 만큼 더 얻어 갈 수 있다.

## \* 정신과

이곳 정신과에서의 실습은 매일 아침 보고와 회진, 초진 환자 예진, 오후 강의가 주를 이뤘다. 매일 8시 반에 아침보고를 한 뒤, 한 시간 반가량 회진을 돌며 교수님 혹은 레지던트 쌤이 입원환자 한명 한명

과 모두 대화를 나눈다. 이 시간에는 오직 일본어 대화만이 오가는데 누가 동시통역을 해주는 것도 아니기에 한 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몹시 답답한 시간이었다. 그만큼 환자의 눈빛과 행동에서 무언가를 읽어보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 초진 환자예진은 일본 PK학생이 한명씩 돌아가면서 대기하다가 초진환자가 오면 들어가서 예진하는 거라 가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오후 강의 시간에는 같이 앉은 일본 학생들이 중간 중간 영어로 설명해 주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강의 자료로 받은 한자를 읽으며 대략의 뜻을 짐작했는데, 슬프게도 강의자료 절반 이상이 영어인 우리와 달리 일본은 철저하게 일본어였다. (심지어 EMR도 오직 일본어!!) 이렇게 많은 일본어를 듣다보면 혹시 갑자기 귀가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기초도 없는 내가 일본 의학용어를 들으면서 귀가 트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열심히 들었다. 정신과 2주 실습을 먼저 돌았기에 남은 내과 실습 때도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어떡할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내과 실습 때는 교수님들이 계속 영어를 사용해 주었다. 돌아보면 그곳 정신과 선생님들이 영어를 사용하시는데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 \* 신장내과, 소화기 내과

내과가 전부 세부 분과로 나뉘진 우리와는 달리 하마마쯔 대학병원은 제1내과(신경, 소화기, 신장), 제2내과(내분비, 호흡기, 간), 제3내과(순환기, 혈액, 류마티스)로 나뉘져 있다(드라마 '하얀거탑'의 장준혁 과장도 제1과였다). 나는 그 중 제1내과를 선택했고 각 분과별로 1주씩 실습이기에 다시 신장내과와 소화기 내과를 선택했다. 이때는 정신과를 같이 돌았던 PK실습 조와는 이별하고 제1내과를 도는 새로운 PK조에 속하게 되었다. 신장내과는 회진, 외래, 신생검, 병리조직검사, 컨퍼런스, 강의 등의 일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신장내과 스태프 선생님들이 가장 의사소통에 적극적이셔서 강의를 영어와 일본어 2개의 언어로 진행해주시고 컨퍼런스시간에는 한 선생님이 아예 개인과외처럼 붙어서 설명해주셨다. 그의 감동적인 친절 덕분에 앞선 실습에서 다소 위축되었던 내가 자연스럽게 질문도 하고 적극적으로 실습에 참여할 수 있었다.

소화기내과 역시 회진과 외래, 강의 등의 일정은 비슷했으나 상/하부 위장관 내시경 참관에 많은 시간이 배정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복부초음파와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직접 해본 것이다. 레지던트 선생님께 복부초음파 강의를 듣고 나서 조원들끼리 돌아가며 서로의 배를 내어주고 직접 초음파 프로브로 주요 복부장기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 상부위장관 내시경 강의를 들은 뒤에

는 실제 내시경장비를 이용해 옆으로 누워있는 내시경용 인형을 대상으로 직접 내시경을 시연해보고 클립, 동전을 인형의 위(胃)에서 꺼내는 고난이도(?)의 기술도 해볼 수 있었다.

## \*Radiology

국립하마마츠의대병원의 Radiology는 크게 3가지 과가 합쳐져 있다. 흔히 한국에서 말하는 영상의학과(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이 3개의 과가 합쳐져 있다. 따라서 우리가 Radiology실습을 신청하게 되면 위의 3개의 과를 모두 돌게 된다. 또한 neurosurgery실습도 하마마츠 의대학생들은 radiology실습과 함께 세트로 돌기 때문에 이 또한 자동적으로 같이 신청된다. 따라서 1주=radiology, 1주=neurosurgery를 돌게 된다. (Radiology의 교수님께서 이 부분은 양해해달라고 미리 말씀하셨다. 개인적으로 이 덕분에 일본의 neurosurgery도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먼저 Radiology에서 실습이 이루어지는 주요 방식은 참관과 lecture이다. 참관은 말 그대로 어떠한 기술(double balloon enteroscopy, barium enema,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을 참관하는 것이고 참관할 때 좋은 점은 옆에 교수님께서 바로 설명해주셔서 기술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어로 설명해주는 교수님이 많다. 레지던트 선생님께 다른 일본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들었다. 핵의학, 방사선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대부분 강의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진단방사선에서는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lecture를 진행하는데 어떤 병에 대한 사진을 주고 학생들에게 2시간 정도 시간을 주며 abnormal finding을 찾고 기술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 교수님이나 레지던트 선생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이 찾아놓은 finding을 보시고 옳고 그른 것을 확인해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찾지 못한 finding을 이야기해주시며 이 환자의 진단명에 대해 이야기해주신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답을 모른 채로 책을 찾아보며 공부를 할 수 있었기에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두 번째 주에 진행된 neurosurgery실습은 radiology보다는 조금 더 빠듯한 일정이다. 일본학생들의 경우 한사람 당 3~4명 정도의 환자를 담당하게 되고 아침마다 담당 환자들의 vital sign 및 neurological exam을 확인하고 이를 환자보고시간에 학생들이 교수님들께 직접 보고한다. 따라서 아침 보고가 시작되기 전 아침 7시정도에 병원에 나와 담당환자를 체크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학생들과 달리 1명의 환자만 담당하게 되고 이 환자에 대해서 1주일동안 책임지고 vital sign, neurological exam, 기타 rapport형성 등을 담당하고 아침마다 교수님께 환자보고를 해야 한다. 물론 환자보고는 일본어로 진행된다. 영어로 해도 무방하다고 했지만 일본어로 진행했다. 그 외에는 conference가 있으면 이에 참석하고 수술방은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참관하고 자신의 담당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수술에도 함께 참여한다. 저 같은 경우 담당환자가 좀 특별한 case로 dopamine



responsive dystonia를 진단받았고 deep brain stimulation의 수술을 진행하였다. 이 환자의 case는 차후 논문으로 report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함께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부터 환자와 함께 있고 환자와 함께 수술방에 들어간다. 그 후에는 수술 assist로 들어갔으며 하마마즈의대 선생님들께서 tie 및 suture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한명의 환자를 담당하여 환자를 직접 대하

고, 이 질병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 \* 소아과

소아과는 lecture와 병동환자를 배정 받아 자신들의 환자들을 주 한차례 보고하고 질문에 답하는 것, 케이스 발표 등으로 이루어진다. 처음에 소아과로 들어가면 2주간 분과를 정해서 병동환자를 실습한다. 나는 내분비로 정했는데, 소아내분비에 매우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성조숙증, 성장저하 등등에 대해 대가이신 듯하다.



대부분의 lecture는 일본어로 진행되고, 소아기도삼관, 응급처치, 소아신경, 소아알레르기, 소아내분비 등의 분과에서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 영어로 진행할까 물어보시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대부분 일본어로 하신다. 일본어 의학용어는 한자를 알면 이해는 대충 가기는 한다.

케이스는 우리학교에서 발표하시는 식으로 만들면 무방하고, 영어로 발표해도 된다. 일본어로 된 present illness를 읽어야 하나, 같은 조에 속한 학생들이 잘 도와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소아과는 배우는 것도 많고 교수님께서 많이 가르쳐주려고 노력하셔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다. 내가 소아과에 있을 무렵 보지 못했던 환자군도 많이 볼 수 있었고, 소아 채혈도 직접 돕고, 소아기도삼관 실기, 아기들의 spinal tapping이나 아기 안는 법(?) 등도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환자군이 신생아와 소아이다 보니 분위기가 화기에애하고 병동도 아기자기하다. 매년 하마마즈 병원을 선택해서 가는 학생 중 꼭 한명 정도는 소아과를 선택할 만큼 배우는 것이 많은 전공이니 선택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 그곳의 학생들

우리와 직접 인연을 맺은 학생들은 각 과에서 함께 실습을 돌았던 학생들과 하마마즈 의대 내 국제 학생교류 동아리의 학생들이다. 함께 실습을 둔 학생들은 주로 평일 실습동안에 우리와 함께 있고 저



녁에 따로 만나 운동을 하거나 근처의 맛있는 음식점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기도 했다. 한번은 10명이 넘는 일본인 실습 조 학생들이 우리 기숙사에 놀러와 늦은 시간까지 술잔을 기울인 적도 있었다. 일본어를 하면 더욱 편하겠지만 영어로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같은 실습조라는 동료애도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이 드는 친구들이었다.

국제학생교류 동아리는 설립목적 자체가 외국인 학생들과 여러 가지 행사로 그들의 적응을 돕고 일본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다. 하마마쓰 의대는 우리학교 외에도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폴란드, 중국 등의 의대와 교류를 맺고 있어서 우리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종종 외국학생들이 오는 듯 했다. 우리는 매년 세 명씩 하마마쓰에 가는데 어쨌서 그곳에서는 우리 학교로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곳 학생들이 해외실습을 주로 유럽으로 간다니 이해가 됐다. 이 동아리 학생들은 우리를 위해 환영 파티와 환송 파티를 준비해주었고 직접 차를 몰고 우리와 하마마쓰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다.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우리 셋은 일본에 가기 전에 미리 한국의 기념품 선물을 준비해 갔는데 라면, 김, 소주 등이었다. 떠나오기 전에 일본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더니 무척 좋아했고, 나중에 라면이 너무 매웠다는 후기를 전해오기도 했다.

학생들 전부 다 우리에게 적극적으로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내는 내내 먼저 다가오고 상황에 따라 배려하려고 애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일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인간적이었고 오히려 더 순수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다. 짧은 언어로도 생각이나 감정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점이 많아서 친구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 \*여행



우리에게 주어진 매 주말(총 네 번의 주말)마다 부지런히 여행을 다녔다. 교토, 오사카, 도쿄, 후지산, 시즈오카 등을 때로는 버스로, 기차로, 심야버스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갔고,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려고 애썼다. 한 달간의 해외실습에서 병원에서 배우는 것만큼 어쨌면 그 이상으로 여행을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 마무리

우리학교의 해외임상실습은 일본 하마마쓰 의대와 태국 마히돌 의대 두 곳뿐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다고는 할 수 없다. 한 달이라는 긴 기간은 소중한 3학년 겨울방학의 두 달 중 절반이나 된다. 거기에 더해, 언어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해외임상실습을 쉽게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달 간 하마마쓰 의대에서 정신과, 신장내과, 소화기내과를 실습하고 돌아온 나에게 그 동안 학문적으로 배운 것을 써서 제출하라고 한다면 사실 별로 쓸게 없다. 그곳의 의료와 우리의 의료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혹시 있다하더라도 내가 다 알지도 못한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바로 '경험'이다. 그 경험의 양은 여기 다 옮겨 쓰지도 못했고, 경험의 깊이는 어쩌면 나도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경험 자체가 갖는 가치는 분명히 알 것 같다.

단기간 관광만을 목적으로 다녀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그 곳에 거주하며 맛따뜨리는 수많은 소소한 경험들부터 비영어권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평생 해 나갈 의사로서의 직무를 다른 나라 병원에서 실습해보았던 경험처럼 다소 어려운 경험까지.

내년, 내후년 후배님들이 나보다 더 즐겁고 소중한 경험을 하기를 바라고 또 그러리라 믿는다.

# 비교체험 Before & After !

## 새 옷 입은 인성관 실습 후기

글/ 1학년 박명현

"시간 다 됐습니다. 펜 주머니에 넣고 답안지 제출해 주세요."

2차 태강이 끝나고 해부실습실을 나서는데 정우희 테니스장이 어찌면 그렇게 예뻐 보일까. 이제서야 등이라도 한번 펴 본다는 듯 우어어어 끼오오오 온갖 소리들을 내며 기지개를 키고, 혹시 잡힐세라 급히 교실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냇모습. 조교님들에게 열심히 손을 흔들어주고는 나도 바쁘게 발걸음을 옮긴다. 내년에는 절대 안 돌아와!!!!

해부실습실이 리모델링 되었다. 우리 학교를 졸업하신 아버지께서 "나 때도 리모델링 한다 한다면 안 하더라." 고 하셨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우리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해부학 실습실'이 드디어 새 옷을 입었다. 해부 실습 아무나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리모델링 하기 전과 후를 동시에 체험하는 것도 어찌 생각하면 귀한 경험이니, 내가 느끼는 새로워진 해부 실습실을 소개해 볼까 한다.

올해부터 우리는 '해부 실습실'이 아니라 '인성관(仁成館)'으로 간다.

이제는 실습실을 들어서면 해부실습실의 이름인 '인성관'이라는 세 글자가 적힌 현판이 붙어있다. '사람의 몸을 공부하는 자는 모름지기 높고 귀한 뜻을 가슴에 새겨 스스로 인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는 뜻의 멋진 이름, 인성관. 이제껏 이름이 없던 해부실습실에,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백두현 교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다. 이번에 실습한 1학년들에게도 아직 낯설고, 해부실습실이란 단어가 입에 더 붙기 하지만, 낯빛도 어둡고 표정도 어두운 흰 가운 입은 애들이 우르르르 몰려갈 때 "어디가니?" 하면 해부실습실이요(으허영 암울) 보다는 인성관이요!(뭐지 어디지) 라고 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시작할 때 즈음엔 춥고 끝날 즈음엔 더운 실습실. 안녕!

작년엔 해부를 시작하던 3월 초에는 추워서 핫팩을 주머니에 넣어 가고, 해부가 끝나갈 4월 말 즈음엔 더워서 두 팔 다 걷고도 창문에 매달려 축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새로 바뀐 인성관에는 히터도 에어컨도 완비! 추위와 더위로 더 힘들었던 작년 실습과는 달리, 올해는 강의실보다도 더 아늑한 환경이 실습의 고충을 덜어주었다. 카테바 상태 유지를 위해 온도를 학생들에 맞춰 계속 바꿀 수는 없지만, 쉬는 시간에도 추워서 수술복도 벗을 수 없었던 작년의 서러움을 생각하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실습했다.

새로운 실습실, 새로운 도구들!

바뀐 실습 시간표 덕분일지도 모르지만, 일주일에 4일씩 진행한 해부는 작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내년에도 해부실습은 일주일에 4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꼭 이요) 작년에 써보지 못한 도구들을 이번에 처음 사용해 볼 수 있었는데, 나는 bone rongeur를 많이 사용했다. 내 파트는 head and neck 이었는데, 이 도구를 사용해 작년에는 볼 수 없었던 intraorbit, nasal cavity, tympanic cavity를 확인 할 수 있어 좋았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이 남아 망치로 망치를 치는 듯한 효과를 내던 정 대신 새 정을 사용해 더 세밀한 해부가 가능했다. 또한 도구는 아니지만 각 테이블마다 새로 설치된 무영 등은 근육의 결을 확인하는데도, 잘 보이지 않는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웠던 부분도 있다. 물론 올해가 첫 해라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이고 새로 도입된 시스템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기대와는 좀 달랐던 부분들도 적어본다.

1학년의 영역표시, 여전히 포르말린 냄새.

사실 작년에 해부학 교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들었을 때 가장 기대했던 건 해부가 끝나도 사물함에 있던 모든 물건에서 사라지지 않는 포르말린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될 거라는 거였다. 작년 Abdomen에서 복막을 열던 순간부터 축축히 젖은 눈망울로 실습을 진행했던 걸 생각하면 새로운 환기 시스템의 효과를 느낄 수 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극적인 변화는 아니어서 아쉬운 부분에 넣었다. 작년의 방부제 대신에 사용된 피톤치드가 방향제 역할도 해 주어(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되어 방향제로 더 많이 쓴 것 같지만) 실습실 내에서의 냄새는 덜했지만 여전히 실습 쉬는 시간에 만나면 2학년들이 냄새나!! 라며 나를 피하는걸 보면 역시 포르말린 냄새는 1학년의 랜드마크 같은 건가 보다. 너네는 작년에 더 냄새 났다고!

스크린은 있는데 왜 쳐보지를 못하니..

각 조마다 있는 스크린은 실습실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최첨단(!) 변화였고, 이를 통해 교수님의 시연 등을 볼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던 만큼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 실습시간을 통틀어 이 스크린은 손에 꼽을 정도로 켜졌다. 특히 시연실에 들어가면 가득한 카메라와 음향 장비들은 시연을 하시는 교수님의 열정과 호흡마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설레었지만, 이번엔 한번도 시연실이 이용되지 않았다. 생각했던 것보다 사용 빈도가 적고 그 효과가 낮아 아쉬웠지만, 까다로운 끝판 해부 때 봤던 실습 가이드 비디오는 확실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실습 과정 중에 내 몸이 더 편해졌다, 덜 편해졌다 를 이야기 하는 글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이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이런 것도 보충 되면 실습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글을 쓰고 싶었는데, 능력이 부족하여 그런 마음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작년 해부 소기, 죄송해서 카데바에 메스를 댈 수가 없다, 는 내 말에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걸 보고 배우는 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이라 해주신 어느 선배 말처럼 올해는 더 나은 실습 환경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가는 듯해 죄송함보다 감사함이 더 큰 것 같아 기쁘다.

앞으로도 생화학, 생리학, 병리학, 미생물학 등 실습이 있는 수업은 많을 테지만, 해부학만큼 기억에 남는 실습은 없는 것 같다. 의대에 들어와서 처음 겪는 실습이기도 하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될 거란 걸 알려주는 실습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의사라는 직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인 만큼, 이 실습에서는 배워가야 하는 것은 해부학적 지식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시면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신 분들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우고 키워 나뉘야 할-- 희생과 사랑이 아닐까.

우리에게 좋은 실습 환경을 제공해주시려 노력해주시고 다양한 커리큘럼과 실습방법으로 최대한 많은 걸 보여주려 노력해주신 박매자 교수님과 이경민 교수님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도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송고한 기증을 선택해 주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 슈바이처를 꿈꾸었던 순간

## 의전봉사활동 이야기

글/ 2학년 박지연

처음 의전원을 선택하던 순간, 우리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 학문적 성취, 사회적 지위, 그리고 또 하나 봉사하는 삶. 자기 소개서에 한줄 정도는 '난을 돕고 싶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적어 두지 않았을까? 그 땀 정말 그랬다. 어떤 시절 슈바이처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을 때, 아프리카에 가 있는 꿈을 꾸 본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미트시험을 3주 남겨 두고 소록도에 봉사활동을 갔었다. 나의 길이라면 시험을 망칠 것 같진 않았고, 그 곳에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님의 인연으로 겨우 3박4일이었지만 내 이름을 외워주시고 매일 기도해주시겠다고던 그 분들 덕에 나는 지금 이곳에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의전원에 입학하고 나서는 그런 마음들이 어디로 가버린 건지 작은 여유가 생기지 않고, 나는 마치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어서 대단한 봉사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시험에만 급급해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었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서 주변을 둘러 볼 여유가 생겼을 때 많은 동기들, 선배들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지난 시간 하루하루 급급하기만 했던 시간이 아쉽기만 했고, 이제야 봉사에 참여해 보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가는 봉사활동도 많았지만 우리학교에 5개의 봉사 동아리가 있고, 꾸준히 오랜 기간 봉사를 해오고 있다. 봉사동아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 한빛

재학생 17명으로 매번 6-7명 정도의 재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 한다.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 12시~2시, 카톨릭 회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한다.



### Q. 왜 이 동아리를 선택했나요?

A. 우선 사람들이 참 좋아 보여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소개를 위해 선배님들이 들어

오셨는데, 분위기도 좋아 보이고 진정성이 느껴져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A. 학업에 치이는 의전생활에 한번씩 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의 진료활동을 보면서 느끼는 점도 많고, 외국인들을 상대하면서 언어의 장벽에 부딪힐 때 마다 언어도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Q. 의전생활과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힘든 것은 없나요?**

A. 힘든 점은 따로 없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하고 모든 동아리원들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여유가 되는 사람들만 참석하는 것이라 유동적인 일정 조절이 가능했고,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 봉사동아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지만 배울수록 더 많은 것을 도울 수 있겠구나, 의학이라는 과목이 정말로 유용하고 필요한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의 어느 편에는 기초적인 의로서비스도 이용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넓구나, 혹은 나중에 능력이 되었을 때는 학생 때 하지 못하던 진료활동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열정이 생겼습니다.

**\* 여명**

경북 의전원, 간호대학생으로 재학생 54명이며 평균5~6명의 학생정도 씩 봉사활동을 돌아가며 하고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남흥 교회에서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혈압, 혈당, 맥박 검사와 진료 후 약을 처방해 준다.



**Q. 왜 이 봉사동아리를 선택했나요?**

A.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아는 선배가 있어서 이 동아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Q.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A. 바쁜 학업 중에서도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Q. 의년생활과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힘든 것은 없나요?**

A. 시험기간이 겹치는 주말에는 힘이 들기도 하지만, 간호대와 연합으로 하기에 서로의 스케줄을 보완해주어서 봉사를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봉사동아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교실에서 수동적으로 강의만 듣다가 실제 환자분들과 만나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학업에도 더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늘 하게 되었습니다.

**\* 명승**

2학년 12명, 3학년 6명, 4학년 4명, 총 22명으로 2주일에 한번 씩 대구의료원으로 봉사활동을 가고 외국인 노동자 진료에 도움을 줍니다. 환자를 분류하고 ECG, 혈당 측정 등의 간단한 검사와 함께 레지던트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 환자에게 약을 주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통역을 겸하여 환자와 의사선생님에게 도움을 줍니다.



**Q. 왜 이 동아리를 선택했나요?**

A. 예전부터 여러 봉사활동을 해왔었는데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에도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의학도로서 할 수 있는 특권인 의료 봉사 활동을 해보고 싶었고 그 때 눈에 들어온 동아리가 '장승'이었습니다. 병원 시설을 빌려 외국인 환자 진료를 보조하고 그 때 필요한 간단한 혈당 측정, ECG검사 등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레지던트 선생님들의 진료를 볼 수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을 돕는다는 점도 뜻 깊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A.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보람도 있었고, 영남대 의대, 경북대 중어중문학과, 영남대 간호학과 학생과 함께 어울려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난다는 점, 봉사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진료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의년생활과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힘든 것은 없나요?**

A. 영남대와 연합이라 서로의 시험일정을 조정해서 시간이 가능한 쪽에서 봉사에 참여해서 시험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부담 없었습니다.

**Q. 봉사동아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외국인 노동자 진료 봉사를 하다보면 처음 맞닥뜨리는 것이 언어적 장벽이었습니다. 언어적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환자분이 진료를 받으며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는 것 까지 말로서 전달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저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분,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 있어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2주일 동안 의학 메뉴얼과 책만 보며 학교 생활 안에 갇혀 있는 내 자신을 봉사활동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주고, 의지를 회복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 천광**

재학생 9명으로 봉사활동 때는 6명 정도가 참여 한다. 한 달에 한번 토요일 2~3시간 정도 산격동에 있는 천광보육원으로 가서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한다. 함께 케이크나, 빙수를 만들기도 하고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도 간다.



**Q. 왜 이 동아리를 선택했나요?**

A. 입학하면서 봉사동아리 하나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 했어요.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봉사가 무엇 일 까 고민을 했는데 현재는 나는 '아이들과 놀기'를 가장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천광 소개 영상 속의 해맑은 아이들을 보고 천광인이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 Q.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A. 평소 공부와 시험의 반복인 사막한 생활로 인해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번 씩 때 묻지 않은 아이들을 만나고 나면 그동안 방전 되었던 몸이 재충전됨과 동시에 다시 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Q. 의전생활과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힘든 것은 없나요?

A. 충분히 할 만 합니다. 주말 오후 잠시 한 달에 한번 2~3시간이므로 크게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충전의 시간으로 얻어오는 것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 Q. 봉사동아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1년 전, 처음으로 천광 보육원에 봉사를 하러 갔던 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방문을 들어섰지만 아이들이 낮을 가리느라 곁에 오지 않아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두세 달 뒤, 급방 정을 붙이고 어느새 자기들끼리 만든 별명으로 저를 부르며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친해졌다고 하더라도 보육원 봉사가 마냥 쉽지는 않았습니다. 찾아갈 때마다 매번 새로운 놀이거리를 준비해 가지만 어린 아이들이라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웠습니다. 한 아이, 한 아이에게 소홀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어린 꼬마들을 따라 뛰어 다니기에 급방 녹초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전부 상쇄시켜주는 기쁨을 주는 것도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새삼 깨닫게 해주거든요. 매달 놀랄 정도로 부쩍 자라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봄날 싹싹 자라는 새싹이 생각납니다. 혹시 행한 가지에서 움트는 새싹을 보지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보신 적 있나요? 매번 갈 때 마다 환한 미소로 반겨주는 우리 아이들, 이게 제가 천광보육원으로 봉사를 하면서 느낀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 \* PMA



재학생 경북대 21명, 대구 카톨릭대 12명, 영남대 12명이고 2012년 38명이 봉사활동을 참여했다.

여름 방학 중 2박3일, 해마다 봉사활동장소는 바뀌고, 초기 PMA는 무의촌봉사활동이 기준이었지만, 최근에는 무의촌은 없어 큰 병원진료를 받기에 멀리 있는 시골로 봉사활동을 간다. 의료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간단한 진료 및 치료, 처방전 발행 및 의약품 지급을 한다. 함께 참여해주시는 선배님들에 따라 Ultrasonography 등도 진료 항목에 포함되기도 한다.

### Q. 왜 이 동아리를 선택했나요?

A. 방학에 봉사활동을 한다는 점, 약대와 연합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시외로 활동을 가는 것이 여행을 가는 듯 한 기분을 들게 해서 좋았습니다.

### Q.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A. 청진기 사용법이나 혈당, 혈압 체크 등을 직접 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청진기는 수업시간에 실습하는 것보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직접 해보며 배우는 점이 많았습니다.

### Q. 의전생활과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힘든 것은 없나요?

A. 활동이 대부분 여름방학에 집중되어 있어 학교일정에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짧은 여름방학이 아쉽긴 했지만 봉사활동의 보람이 있었습니다.

### Q. 봉사동아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보건소가 확대되고 국가 의료 시설이 발전, 보급되면서 무의촌은 더 이상 없습니다. 동아리 수준에서는 보건소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대와 의 교류를 하고 있어서 좀 더 폭넓은 사회관계를 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보조적인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PMA의 중요한 목표 두 가지는 친목도모와 봉사활동인데, 앞으로도 동아리활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면 두 마리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어떤 방식이 의료봉사 활동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늘 고민입니다.

'울지마 톨즈' 이태석 신부님이 진료를 하는 장면이다. 그는 왜 아프리카로, 그리고 왜 의사이자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내 삶에 영향을 준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 그 중에 슈바이처가 있었고 그의 삶은 정말로 그를 많이 닮아 있었다. 누구나 슈바이처가 될 순 없다. 하지만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주변에 작은 관심을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적어도 의학을 공부하고자 한 우리들이라면 말이다.



※ 도움을 준 친구들: 이재혁, 노정주, 김태경, 김주현, 홍혁기

# 2013년 골학 - 그 매시운 현장 속으로

글/2학년 이승제

웃기를 여리게 만드는 추운 겨울 어느날.  
 올해도 어김없이 의학전문대학원 4층 임상수기실은 북적였습니다.  
 바로 이맘때쯤 찾아오는 신입생 대상 골학 오리엔테이션 때문이었는데요.  
 매년 하는 행사지만 유난히 힘들었다는 2013년 골학.  
 그 짧고도 길었던 3박4일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봅니다.

입학 전 시행되는 골학 강의는 2학년들의 튜터링을 바탕으로 하고  
 이제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잠깐이지만 의대생활을 맛보고 각종 시험을 보면서 입학 후 적응 및 시행착오 기간을  
 최소화시켜주는 고마운(?) 시간이기도 한데요...

Part1. 과연 이번 골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튜터 대기실의 모습!  
 이렇게 칠판에 한가득 주의사항과  
 일정 계획 등이 짜여져 있었죠.  
 튜터 분들은 이곳에서 대기하고 휴식하고  
 쪽지시험의 채점 등을 했습니다. -0-;;



듣기 싫은 시작 차임벨과  
 방송을 하는 상황실의 모습이에요.  
 해부학 고실 원과 대표들은  
 이곳에서 총 진행을 맡고 감독 한답니다.  
 자리를 비울 수 없기에  
 허기진 배를 간식으로 달래기도...ㅠ



본격적인 튜터링과 수업 중간 oral test,  
다들 도움 많이 되셨나요 ^^?



중간중간 쪽지시험을 보았지요,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한 가운데 진지하고 임하고 있는 이번 신입생분들,  
복도에서는 해부학교실원들이 저렇게 감독을 했습니다.

Part2. 자율학습 시간의 여러 모습들



백박한 스케줄에 금방 적응하여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열공중이신 1학년 후배님들!  
초반에 서막서막하던 어색함은 사라지고 금새 동기들과 서로 물어보고  
알려주면서 낯선 용어들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있네요.

### Part3. 두근 두근 긴장되는 시험시간

곧학 기간에는 입학 후 치르게 되는 모든 시험을 맛볼 수 있죠.

CBT, PBT, 쪽지시험, tagging test, oral test 등...

그중 tagging test(일명 팽시)와 oral test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시험이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시험입니다. 잔실수도 많고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대해야하기 때문에 더더욱 연습이 필요하겠죠...ㅠ

입학 후 처음 배우는 해부학 뿐 만 아니라 조직학, 병리학, 신경과학과 같은  
수업에서도 tagging test는 존재하며 순발력과 정확한 답변을 요구 받게 됩니다 :)



힘들고 긴장되는 시험의 연속이었지만 필자를 비롯한 여러 선배님들은  
곧학 기간의 눈물 나게 짜릿한 경험을 아직도 쉽게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본인에게 큰 재산이 되고 경험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

### Part 4. 곧학이 끝난 후 클럽을 통해서 이번 곧학이 어땠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Q1 Q1-1) 이번 곧학 어떠셨나요?

- 자신있는 일기, 일기했다.	2명 (2.04%)
- 이 프로그램 정말 재미있는 체험이었다.	36명 (35.71%)
- 그냥 보통이었다.	6명 (5.9%)
- 힘들었다.ㅠㅠ	46명 (45.02%)
- 너무 힘들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11명 (10.72%)

Q2 Q2-1) 이번대교 해산 문구에 곧학기간 중 문장을 힘들게 맞춘 문구

- 재학 부록...ㅠ	30명 (29.41%)
- 최종도 최후도 안되까지는 저를 잊지말	34명 (33.43%)
- 비공인도 주위 친구들... 나만 보고 다정하는 못겨울	9명 (8.82%)
- 내가 어질렀었나... 무내전 내 자존심	17명 (16.57%)
- 시험보고 뽀러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함	3명 (2.94%)
- 어정도는 가본, 힘든 점 없었다.	6명 (5.9%)

《2022-3》 공학계간 중 재량 시험 문항태고 해결하는 것만?	《2022-1》 공학계간 중 재량 시험 중 가장 활용했던 것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래도 나름에 준비 하였다. 함께 고생한 동기들 42票(53.27%)</li> <li>·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 애쓰고 깨닫려고 노력한 선배들의 후려침 45票(56.75%)</li> <li>· 재밌잖아 생겨주는 선배님들의 간식과 유머 5票(6.25%)</li> <li>· 정말 이게 시작이구나.....의학도의 첫번째 불려를 떠나는 부모님 12票(15.2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다보니 준비 못한 의학물이 입문시험(OBT) 4票(4.44%)</li> <li>· 그게 알려주고 물어보나... 후려침 중 oral test 40票(44.44%)</li> <li>· 실제로 문헌검색에 익숙했 하나라나 확인하는 객제시험 3票(3.33%)</li> <li>· 재가용지 장난감은 tagging test 28票(31.11%)</li> <li>· 그래도 이런 '오다 PBT' 8票(8.89%)</li> <li>· 면접을 보는 거분...종합 oral test 9票(10%)</li> <li>· 이런 책 내 적당할 입문시험 하나도 없는데 4票(4.44%)</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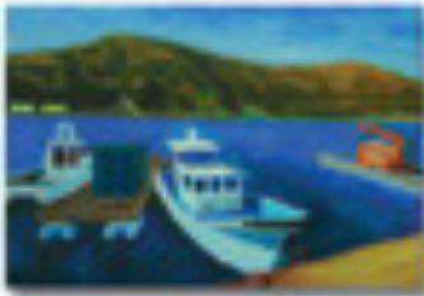
epilogue. 3박4일간의 고투를 마친 소감 한마디!!!

수면부족이 많이 힘들었네요 ㅠ.ㅠ  
 오히려 대표단, 해부학교실 선배님들이 너무 고생하시는거 같아서 사실 감동받았습니다.  
 선배님들 동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옆에서 같이 고생하는 동기분, 밤 늦은시간까지 함께 버텨가며 기도해주시는  
 선배님들 때문에 버텼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되는지 알 것 같아요.  
 선배님들께서 저희와 함께 고생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며 많이 감사했습니다.  
 진짜 의전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이라 뜻깊었어요 ㅠ.ㅠ  
 성적 상관없이나 혼자라면 절대 불가능 할 것이라 생각했던 방대한 분량과  
 공부가 끌어주고 밀어주는 선배님과 동기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골학...살아있네~살아있어~  
 잠 좀 재워주세요 ㅏㅏ;;;짐싸서 가고 싶었어요  
 좋은 조원들 만나서 재미있었습니다.

떨자 역시 작년에 직접 골학과정을 겪었는데 올해는 튜터링 및 감독하는  
 입장에서 다시 골학을 맞이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낯선 환경과 동기들, 줄음등과의 싸움...많이 힘들었을텐데  
 모두들 좋은 성적으로 골학을 마치신거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해부학 및 실습이 시작되었을텐데 이때 느낀 소중한 경험들과  
 인내심, 힘이 되는 동기들을 생각하며 멋진 의대생활의 첫걸음을 내딛어보시길 바랍니다.

# 아름, 그들이 그리는 세상

2015년 제 51회 미술대전과 특별전의 상



**비사 바다**  
(16대 김성규)  
달수달  
이제 또 보러 올 친구



**그리움도 안아일네오**  
(16대 김호진)  
이제 날이 수줍은 건데,  
천구름과 주시려  
그리움이 천년의 파초



**노란 나무**  
(16대 김서연)  
아름이  
손에 나무



**999**  
(16대 김서연)  
정확한  
이름 없는  
사랑의 표현

**제주 바다** (16대 노지연)



**꽃과 거품**  
(16대 노지연)

**Shangri-La**  
(16대 이지연)

내루 샹그리라  
이제 보러  
수줍은 건데



**고양이**  
(16대 이지연)  
낙서한 수줍은 건데  
수줍은 건데  
애교 투투인  
일고수이네 이네





광의 굴목길에서  
[36대 서화교]  
구루인지반주경



수목원의 하루

[36대 서화교]



대구 수목원프로  
조서지 지평중  
구루인지반주경

가달동하  
[36대 신승재]  
세네이 지루이인  
지평



새  
[36대 신승재]  
홍과 지루이인  
이리 지평



내 사랑

[36대 이이진]

네의 모방 [36대 이이진]



상사대음

[36대 이이진]



수정 지평서  
구루인지반주경

철학자의 길

[36대 이이진]



2012년 7월 주신 루이앙레프르르  
철학자의 길에서 지루이인





황혼  
김인진  
[37대 교민전]



이요  
[37대 교민전]  
이요는 추위를  
당기고, 무서운  
그리움을 쫓는다.



레식·델  
[37대 교민전]

분리를 겪은 모리사와와  
함양에서 찍은 사진이  
안들어진 것.



산악의 산  
[37대 교민전]



1  
[37대 김우진]  
흰구름과 푸른  
하늘, 맑은  
수목과 푸른  
바다를  
부드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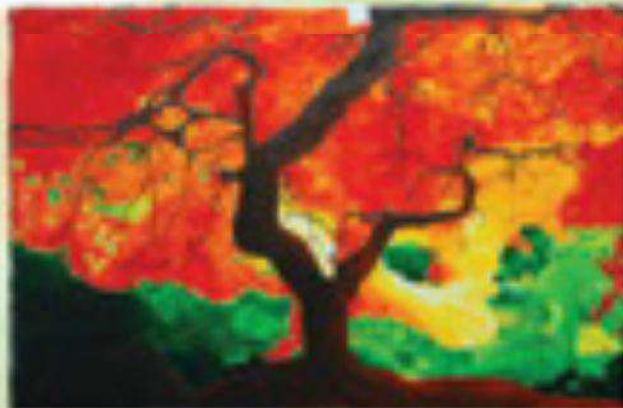


겨울 풍경  
[37대 김우진]  
순물만 지게 국내  
순겨인 것 때문,  
그리고 이젠



떨리는 나무  
(부제: 열매)  
[37대 박승진]

단풍나무와  
파르르하는  
모서리 그림



바달가시아쥘(37대 정거장)



27

(37대 정거장)

2013년 제 37세를 맞이하여,  
1967 일러스트 17세에



가을풍경  
(37대 정거장)  
푸른 하늘과  
적갈색 들판



해바라기

(37대 정거장)

해바라기를 담은  
느낌으로 표현



길(37대 정거장)

눈사람을 담은



(37대 정거장)



문유로시지엔  
- Hana Kaku

문유로시지엔  
- Virginia Smith



유필(37대 정거장)

사랑하는 나라 고구

모희, 선희, 은영,  
은희, 순이

(37대 정거장)  
사랑하는 나라 친구들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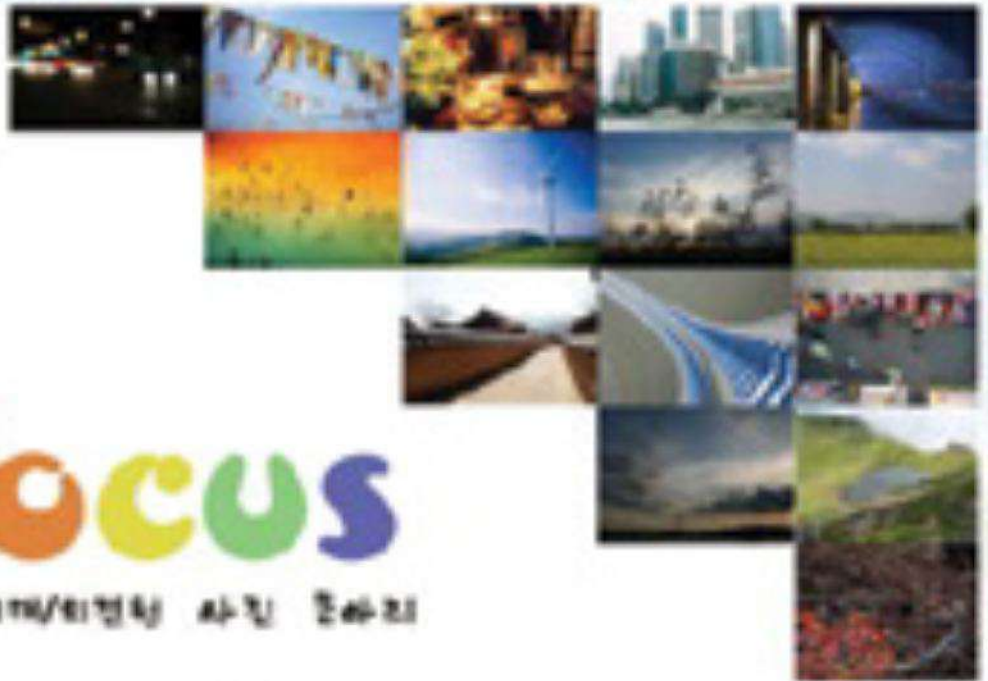
(37대 정거장)  
그저 어둠이 내리고  
별이 나타나서  
조조제조가 아닌  
라라라 제조제조  
별이 우리



희

(37대 정거장)

사랑하는 사람



# FOCUS

경북대 대학/대학원 사진 전시회

2013 41<sup>st</sup> Winter  
경기 사진 전시회

내일상상

일시 2013.2.4 (월) - 2.6 (수)  
AM 10 - PM 05

장소 대구광역시립 중영도서관 1층 가온 갤러리





**44번째 책인걸 <책방>**

프랑스어로 주제를 선택해 화제를 일으켜  
사는 열세살들의 지식을 표현하고자 함



**44번째 책인걸 <연필>**

연필이 있는 것은 물론 연필이, 연필무엇을  
주어지는, 살아 지음을 표현하고자 함.



**44번째 책인걸 <기억>**

작은 심수의 심지적인 슬프고 아름답게 표현.



**44번째 책인걸 <Voyage>**

바른 길잡이에서 벗어난 풍경을 나타내었다.



**45번째 책인걸 <기억>**



**45번째 책인걸 <기억>**

수많은 작은 단어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단어를 지어가는 것이 아닐까,  
주목하여 주어져서는 아랑곳 무언가를  
주어고 이루어 놓는다는 사실 아닐까.

연필 주어진게, 주는, 사르만 그 모든 것이 연필을  
이름을 표현하고 그 언어하는 마음이라는 글자를 가진  
연필을 들이켜서 지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프랑스어로 지어지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내수 언어하는 모든 것을, 연필 만들어지는 일상을 지어  
누군가에게는 지어지고, 연필이 지어지는 일상을 보여 주었다.





45대 이천주 <일몰하는 도시>

아름답게 들어간 도시의 일몰로  
세계의 아름다움의 끝까지 아름답다.



45대 정미수 <아침 안의 아침>

아침을 늘 부르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침을  
인사하고 아침이 그 부름을  
듣기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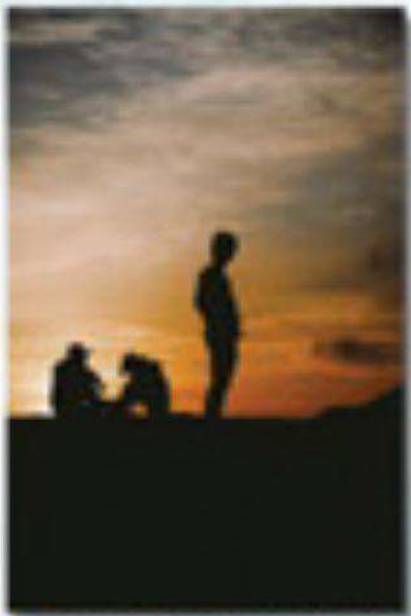
45대 화은구 <하루의 끝>

꽃은 어둠이 지어가고, 반쯤 끝나고  
가다의 길로 돌아오는 눈 반짝이는 모습.  
피는 열매의 노루의 끝까지 주는 하루의 끝  
아름답게 자신의 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주는  
심리인물 한계나 이치고 심입입니다.



45대 화은구 <아침함>

아침을 늘 부르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침을  
인사하고 아침이 그 부름을  
듣기라고 싶다.



**45개 책길 <가갸>**

저녁 그림자처럼 흐느끼는 밤은  
 슬픔을 안고서 잠들었다.  
 흥분과 두려움으로 지친을 쫓아오는  
 손가락은 슬픔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깨어난 심장은 두근두근 뛰는 듯  
 슬피우는 눈물 속으로



**45개 책길 <길>**

슬픔과 애절한 사랑의 숨겨진 이야기,  
 이젠 구석구석 특별한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입니다.



**46개 길목 <1000책길>**

책이든 무엇이든 읽을수록  
 지식이란 무한대로  
 마음속으로 가는 길에 그 길은  
 지남의 길이지만, 수많은 책들이  
 내게서 내게로 전해주는  
 마음속으로 가는 길입니다.



**45개 책길 <일기>**

한순간도 쉬지 않고  
 흐르는 물결처럼  
 슬픔과 기쁨이  
 마음속으로  
 전해주는  
 마음속으로



**45개 길목 <이것>**

주어진 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남이 주지 않은 것이 있다면  
 행복과 기쁨이 함께  
 마음속으로  
 전해주는  
 마음속으로





**46기 정기회 <Toment>**

인사, 피라후 상인들로부터, 피라니들로부터  
 같이 이루어진 공실은, 일어난다 그  
 동서이편의 산 옥에서부터 일어나고, 문안,  
 moment를 맞이하고서 하였습니다.



**46기 정기회 <Kolling>**

안락되는 일이 속에서부터 시작될 것  
 보편의 원인이 아닐까요, 성수되고서 수업을 바라보며  
 나만의 정서와 마음을 가지게 해서 작품을 찍어왔습니다.

**<한조작품>**



**46기 정기회 <기억의 길>**

우리는 하루 단 하루만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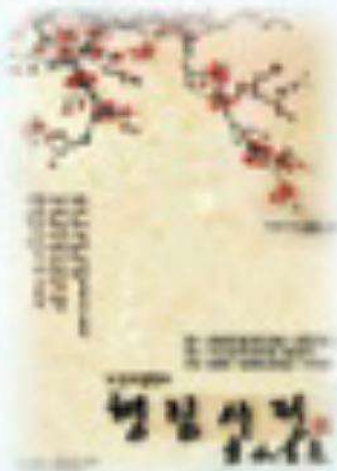


**5대 짝실수 계도교수님 <은천>**



**24대 짝실수 산배님 <겨울 추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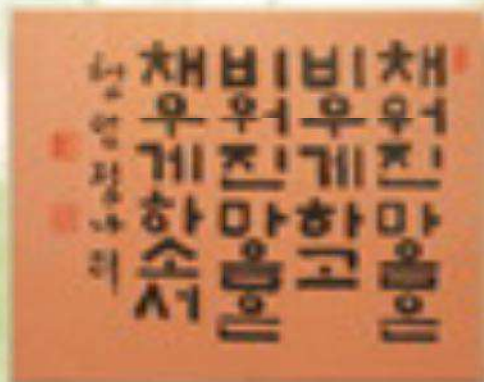
# 스승이던던이 행림서전 杏林書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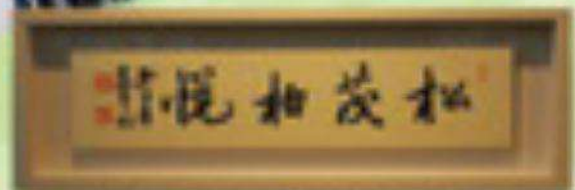
27代 손영주 박애(박애)



27代 추은주



27代 정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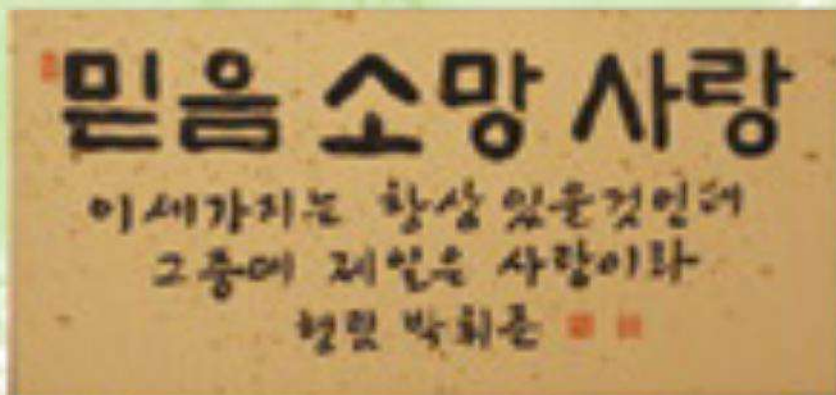
27代 박재우  
송무백길(송무백길)



27代 박영률  
바위, 유치환님의시



28代 우승협  
(表在正我)  
의는 스스로를 바르게  
하는데 있다.



28代 박회준  
그린드전서,  
성경

進德工夫在日新

進德工夫在日新

28代 김일진 

博進德工夫在日新愛  
(진덕공부재일신)

덕을 쌓는  
요즘엔 방법은  
매일 새로워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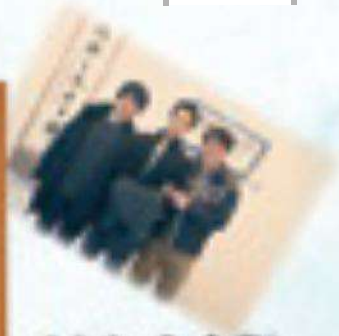
壽與山齊福隨春到

壽與山齊福隨春到

28代 우승협 

壽與山齊福隨春到  
(수이산제복수춘지)

수명은  
산과같이  
길고  
복은  
봄을  
따라이른다.



머리에는 지혜가  
가슴에는 사랑이  
얼굴에는 미소가  
손에는 항상일이  
있으리라  
그날의

28代 김중미



행운이치니마니  
어플속힘치니마  
가신정신정물정  
의의신정정신정  
다시우뚝서본다  
이온상님의시

28代 오정석  
다시우뚝서본다.  
이온상님의시

水魚之交  
28代 정소현



28代 정소현  
水魚之交(수어지교)  
물과물고기의사귀



28代 권순오  
水和神嘗春清節為秋  
(화신당춘청절위추)  
온화한 마음은  
봄과 같고  
맑은 절기는  
가을과 같다.

和神嘗春清節為秋  
28代 권순오

위대함의 높음은  
하늘과 같고  
넓은 마음은  
바다와 같다  
28代 박희준



28代 박희준  
인생찬가  
공평로우님의시



# 식지않는 열정! 2달간의 방학일정

대구 12학년 의대생  
이정민, 이은, 오지은, 정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1	2	3	4	5
6	7	8	9, 10 공휴일		11, 12, 13 여왕	
	14	15	16	17	18	19
20	21	22 졸업식	23	24	25 공휴일	26 MCO
27	28	29	30	31	2/1 행사	2/2 공휴일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18 12월 15일 OT, 졸업	19	20	21 공휴일	22
23	24	25	26	27	28 졸업식	29

2012년 12월 22일, 역사시험을 끝으로 본격적인 본과1학년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뒤 날이 가연 갈수록 차오르는 설들을 보며 언제 거미형 몸이 될지 모른다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 날 밤 열람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치열하게 보내고, 열두시 학교 밖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한숨만 쉬는 그런 모습은 외부인이 보기엔 참 안쓰러워 보였을 지도 모릅니

다. 하지만 그 모습을 다 던져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삶을 찾아 가는 경북 의전인들을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 방학때의 일정은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번 기사에선 전시회와 더불어 방학때 있었던 학교 일정에 대해 다루도록 하고, 정기공연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전시, 공연 동아리의 첫 시작을 유화 동아리 <아름>에서 하였습니다.

대구 중앙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된 <아름> 미술전시회에는 지도교수님이신 조동택 교수님과 더불어 여러 OB선생님, 재학생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여러 분들이 전시회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붓터치를 여러 번하여 웅장진 모습도 보이고 덧칠한 것도 보이는 듯한 푹푹함과 동시에 전문화가 못지않은 감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에는 다양한 그림이 전시되었는데 유명 인물화, 풍경화, 추상화 뿐 만 아니라 누드화(?)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에는 다양한 그림이 전시되었는데 유명 인물화, 풍경화, 추상화 뿐 만 아니라 누드화(?)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니큐어를 이용해 유화가 나타내지 못하는 강렬함까지 보여 주는 작품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바라기와 드넓은 들뜰에 홀로 서있는 허수야비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1월 22일, 제87회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식이었습니다. 벌써 졸업생이 87회나 된다니 우리학교의 역사와 전통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13년도 국가고시에서 전원합격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졸업 축하드립니다.



다음 전시는 서예 동아리 <행림>의 제28회 정기 전시회입니다.

지칫 잘못생각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붓글씨. 하지만 <행림>에서는 문온한 묵향으로 의전원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 슬픔, 힘듦, 사랑을 자신만의 색채로 승화시켜 표현하였습니다. 여러 글귀 중 고지가 바로 저긴데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명아가 되는 길을 천천히 걸어가며 고지를 바라보는 글



귀는 지금 의전생활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표현하는 것 같아 정서적인 친밀감이 들었습니다. 이 글귀 외에도 의전생활을 하면서 필운한 마음가짐, 나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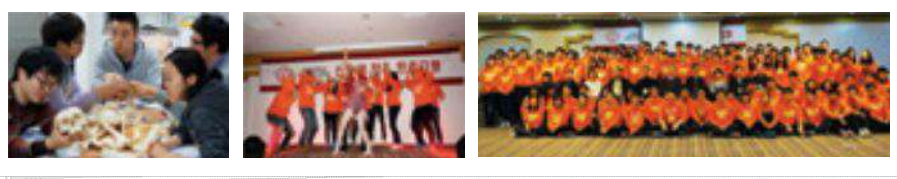
의사로서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서 자기성찰을 할 수 있게해주는 많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글귀 하나하나에 자신의 생각, 사고, 반성, 성찰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고 돌아켜 볼 수 있는 경험은 의전생활을 하면서 흔치 않은 경험인 것 같아 <행림> 동아리원이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전시회인 <FOCUS> 제41회 정기 사진 전시회입니다. 이번 전시회의 테마는 일상으로 매일 반복되어 쉽게 지나치게 된 것들에 대한 재조명과 지루한 일상 속에서의 일탈을 각자마다의 독특한 시선과 기법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는 45대 노희운(의학과 3학년)학우의 말처럼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사진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FOCUS 재학생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FOCUS 전시회에 오셔서 사진에 대해 같이 토론해

보기도 하며, 이번 사진전 중 베스트를 뽑는 투표를 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드디어 신입생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신입생에게 오는 것은 골학 캠프와 신입생 새내기 배움터 장기자랑이 남아 있는 것을 신입생분들은 아무도 몰랐겠지요?

2월21일 PolyClinic(PK) 진임식 이었습니다. PK란 병원에서 여러 과를 돌며 의료술기를 실습하는 실습 학생 의사라고 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왼쪽 가슴에 명찰을 단 3학년 선배들의 모습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PK진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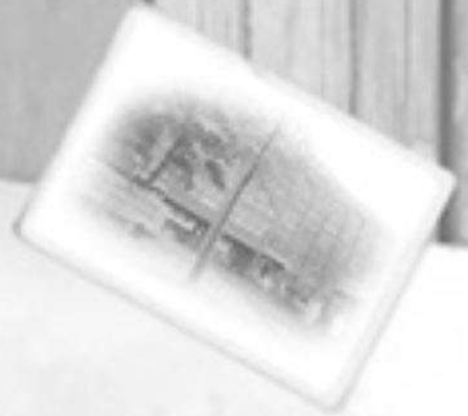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2월 28일, 이젠 편한 날은 마지막 인 양 2월의 마지막 날에 제85회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식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많은 재학생들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선후배간의 따뜻한 정으로 병학기간의 여러 행사를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병학기간에도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무엇이든지 해내는 당신, 바로 경대 의전인입니다.

# Section III

## 문예 / 창작

- 수필의 본질 - 김재식
- 특권과 책임감 - 김예은
- 그네 - 윤영상
- 연애에 관하여 - J
- 그대 외로운가 - 오정석
- 42.195km - 오정석
- 시근있게 행동하세요 - 안상준
- 희노애락을 관조하다 - 이승제







## 수필(隨筆)의 본질



글 / 경북대학교 의전원  
명예교수 김재식

수필을 쓰지도 꽤나 세월이 많이 흘렀다. 수필의 정의도 잘 모르면서도 글을 하나 써 달라는 주문을 받아 시작한 것이 거의 49년 전이다. 국립경북대학교신문에 실렸던 것으로 제목은 '대학유정'이다. 군의관으로 제대한 직후 바로 무규조교로 발령되었던 것이 인연이 된 것이다.

대학유정은 모교의 의예과시절이 영향을 준 내용으로

대학에는 '낭만과 사랑과 자유가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진리 궁지 봉사가 국립경북대학교의 교시이다. 비가 오면 발이 푹 푹 빠졌던 흙부성이의 교정에서도 진리를 추구하며 확보했던 대학본부의 캠퍼스가 지금도 생생하다. 예과생활은 주로 교양과목이어서 정말 교양과목은 흥미진진했다. 입학위주공부의 중고등학교 교육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 특별히 감명이 깊었던 과목이 사회학과 독일어 이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과목과 그 교수의 구수한 강의가 떠 오른다. 인간의 본연의 자세와 진정한 사랑 그리고 낭만을 일깨워 준 일대 변화이었다. 아름다운 남녀 사랑의 주인공 '라인할또와 엘리자베또'가 등장하는 독일어 단편소설 '임맨재 (immense)는 한 편의 아름다운 드라마영화처럼 결코 잊어지지 않는다. 이 감명과 감동은 정말 평생을 가는가 싶다.

국어대사전을 보면 수필은 '형식에 묶이지 않고 듣고 본 것, 체험한 것, 느낀 것 등을 생각나는 대로 쓰는 산문(散文) 형식의 짙막한 글'이라고 하며 수필로 일가(一家)를 이룬 사람을 수필가(essayist)로 정의하고 있다. 수필은 무형식의 문학으로 정말로 자유(自由)롭다. 바로 수필의 본질(本質)이다. 정말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아무렇게 쓰면 된다는 말이 아니다. 수필의 특성으로서 몇 가지를 보면 첫째가 전술한대로 무형식이라는 것이고 그 밖에 생활에서의 경험,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 그리고 인간성이나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견 등에 대한 다양성의 제재(題材) 즉 주제(主題)가 되는 재료를 들 수 있다. 또 수필은 개성의 문학적이고 소재나 주제중심으로 글이 전개되는 것이다. 거기에다 유우머, 위트 및 비평정신이 필요한 문학적이며 비전문적인 일상 의 산문형식의 성격을 띄는 것이다. 정말 수필은 다양하다.

수필의 본질을 더 깊이 알고 좋은 그리고 건강한 수필을 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수필을 많이 읽고 많이 쓰는 습관이 중요하다. 어떤 저명한 수필가는 글을 써 놓고 읽고 또 읽고 고치고 또 고쳐 많이 다듬어서 수필작품을 완성하는 것을 보았다. 심지어 고쳐 보면 끝이 없다는 사람도 있다.

수필은 필자의 중심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주제는 신념이나 사상 그리고 주제를 잘 나타내는 청춘에 찬 등과 같은 제목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자연의 신비나 남과 여의 조화 등 얼마든지 영감 또는 위고 정탁 등에 의하여 수필을 쓰게 되면 주제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제재(題材)는 주제의 자료로

서 소재9(素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체험(예: 깨어진 그릇, 잃어버린 쟁 같은 거), 관찰(기후의 변화, 진화, 낙동강의 어제와 오늘, ), 독서(독서의 방법, 얻은 교훈, ) 및 사고(思考-문제해결)를 들 수 있다. 나는 사회적으로 모교 경북의대 강단에서 강의와 병원생활에서 건강과 사회생활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 수필의 장르안에서도 국민계몽을 위한 계몽수필을 많이 쓰게 되었다. 건강과 공중도덕을 예를 들면 보행시 우측통행이 모든 공중도덕의 기본으로 주창한다. 우측통행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공중도덕을 지킬 수 있겠는가하고 깨닫는 바가 컸다. 건강에 대한 계몽도 실로 중요하다. 건강장수에대한 계몽은 나의 전공분야라 핵심을 찌를 수 있다. 수칙이 국민계몽에 큰 도움을 준다. 오늘 날 건강에 대한 광고가 신문이나 TV 매체를 통하여 부지기수로 소개가 된다. 그 가운데 대부분이 과대광고임을 수필에서 지적을 해 준다. WHO의 건강의 정의같은 것도 국민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실, 의견, 느낌, 가정, 연상 등의 구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정과 공상(가능성 및 불가능 여부), 연상에 있어 회상이나 상상을 들 수 있고 사실에 대한 글은 실재를 의미하며 의견에 있어서는 해석 또는 제안과 같은 것이다. 느낌이 좋고 나쁘고 싫거나 또는 두려움이나 기쁨 같은 심리적인 상태를 들 수 있다. 한 치 앞을 못 내다 보는 우리 인간에 대한 표현은 좋은 인생론이 된다.

수필의 표현방법에도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구별이 필요하며 설명, 논증과 설득으로 잘 알리고 받아드리도록 한다. 형태르 가진 것의 모양, 소리, 냄새, 간촉이나 또는 맛 등을 그대로 잘 전하고 서술에 있어서 어떤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의 연속을 잘 나타나게 한다.

표현에는 자신을 기준으로 하는 주관적 그리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표현하는 객관적 표현이 있다.

수필의 종류에는 형식상 지적, 사회적 및 객관적으로 비평적인 중수필(重隨筆)과 정적(情的), 개인적 및 주관적으로 감상적인 경수필(輕隨筆)이 있고 그리고 내용상의 수필에는 사색적, 비평적, 묘사적, 담화적, 개인적 및 연단적(演壇的) 수필로 분류할 수 있다. 나는 여기에 건강과 같은 계몽수필을 추가한다. 과도 분과나 세분과로 세부적으로 가지를 낼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직업적으로 건강관계의 계몽수필을 세부장르로 감동을 주는 그런 수필을 쓰기도 바쁘다.

어떤 수필대가는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쓰는 자유로운 글이라고 쉽게도 갈파를 한다. 또 어떤 이는 여운을 남기는 강력한 감동을 주는 수필을 주문한다. 다른 이의 수필작품을 읽으면서 끝에 감동을 느낄 때 옛날 명작의 영화 한편을 보았는 것 같은 작품도 있다. 내가 잊지 못하는 옛날 영화 가운데 황태자의 첫사랑 그리고 슈벨트의 미완성교향곡 그리고 서부활극인 자이언트 등이 생각난다.

짧은 수필 한편에서 이런 감동을 받는다면 명 수필(名隨筆)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명화 슈벨트의 '미완성교향곡'에서 아직도 슈벨트와 백작의 딸과의 휘영청 밝은 보름 달밤 보리밭에서의 마지막사랑을 떠올려 본다.

( 2013. 5. 2 )

## 특권과 책임감

글 / 3학년 김 예 은

"선생님, 웰빙센터는 어디로 가야해요?"

"선생님, 이거 수액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봐 주세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있는데...."

아직 겨우 두 달 정도 되었을 뿐인데 병원을 돌아다니다보면 여러 환자분들로부터 각종 요청이 들어온다. 흰 가운을 입고 주머니에 넣은 청진기, 가슴팍 주머니엔 펜 라이트, 볼펜들과 명찰. 수술실 안에서는 "PK썸!"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병원 안을 돌아다니다보면 많은 환자분들의 눈에 내가 의사 선생님에 속한다는 걸 체감하게 된다.

학생의사.

아직 의사자격증도 없고 국가고시조차 치지 않은 채 2년간 의학교육을 하고 병원 각 과를 도는 실습생인데도 불구하고 의사처럼 환자분들을 만나보고 병력청취를 할 수 있고, 수술실에서 수술 참관뿐만 아니라 스크립을 서며 수술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1학년 때 해부학실습을 했던 것 다음으로 '의대생'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3학년이 되기 전엔 흰 가운에 청진기를 가지고 병원을 다니는 선배님들을 보며 마냥 멋있고 부럽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설 때마다 느끼는 흰 가운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다. 특권, 말 그대로 '특별한 권리'로부터 느껴야 할 것에는 특별한 경험과 기회에 대한 소중함뿐만이 아니라 책임감 또한 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러했던 몇 가지 경험들을 이야기해보고 싶다.

실습 시작된 지 초반, 내가 보고를 해야 할 환자분에 대해 과거력부터 의료기록에 쓰여 있지 않은 자세한 증상이나 구체적인 약복용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아야 했다. 그런데 안 그래도 긴장해서 어떻게 다가 가야 할지 조심스러웠던 차에 연세 많으신 환자분과의 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OOO 교수님 환자분이시죠? 아까 교수님과 함께 회진 들었는데요. 환자분 치료에 도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더 여쭙 볼 정보들이 있어서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다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일단 학생의사라고 말씀드리면 '학생'이라는 점에서 믿음을 못 드릴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 그렇지만 환자분은 그 당시 내시경을 받고 올라오신 후 심기가 불편하신 상태였고, 나를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돌리며 손을 내저으셨다.

"아, 지금 말씀하시기 힘드세요? 나중에 다시 올까요?"

하지만 환자분은 못들은 척하셨고 옆에 계시던 보호자분께서 대신 이야기해주겠다고 워래 조금 까칠하시니 너무 상처받지 말라며 내게 다가오셨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보호자분과 대화하는데 갑자기 환자분께서 버럭 신경질적으로 소리 지르시는 게 아닌가.

"저거 딱 봐도 학생인데 말해서 뭐해! 거 의사선생님 아니고 그냥 실습생이야. 가라 그래~ 야, 말하지 마!"

간호하시는 분께서도 슬쩍 내게 친절한 환자분은 아니라고 조심스레 이야기해 주셨었고 내가 딱 봐도 어린 나이로 바로 학생인 걸 눈치채셨나 생각하면서도, 웬지 섭섭하고 서운했다. 알고 보니 환자분은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셔서 대중 의대가 어떤 시스템인지 아셨던 것 같다. 보호자분께서는 밖으로 날 데리고 나오셔서 너무 상심하지 말라며 위로하셨지만, 보호자분께서도 어렸을 때 환자분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낼 수 없었다.

그 환자분은 의무기록 상에 '이유모를 빈혈' 이라고 쓰여있었는데 난 내 담당환자에 대해 보고할 때 차트에 써 있는대로 '빈혈이 있으신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았다. 때문에 그 빈혈의 원인을 알아내고자 과거력에서 많은 정보가 필요했는데 결국 그에 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결국 나는 환자분께서 받았던 과거 수술에 대해서 논문이나 여러 정보를 찾으며 그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만한 것들을 추측하며 혼자 나름 논리를 맞추어가며 시나리오를 짰다. 그리고 교수님 앞에서 발표할 때, 실제 기록상에는 이유를 모른다고 되어있어서 개인적으로 검색해보며 추측되는 원인을 몇 가지 생각해보았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도 나는 이게 맞는지 논리성이 얼마나 높은지 가늠할 수 없었다.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교수님께서 세세하게 던지시는 질문에 또박투박하게 답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발표가 다 끝난 후 생각지도 못한 칭찬이 교수님으로부터 돌아왔다. 일주일동안 얼마나 환자에 대해 잘 알려고 노력했고 성실하게 했는지가 보인다며 앞으로도 그렇게만 하면 정말 좋겠다고 내 노력을 크게 인정해주신 것이다. 실제로 난 매일 틈이 날 때 환자분 주위를 어슬렁거린 덕분에, 간호사분들이 환자분과 이야기 할 때 덩달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도 있었고 방에 돌아와서도 매일 그 환자분에 대해 알아내고자 시간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내 발표가 정답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도 교수님의 칭찬에는 당당하고 뿌듯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더 크게 느낀 것은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가였다. 이렇게 한 환자분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일주일동안 내게 맡겨진 환자분이 한 분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약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되어 매일 수많은 환자분들을 체크해야 한다면 이렇게 한 환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PK라는 특권을 누리는 동안, PK이기에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며 많은 것들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이후로 맡았던 환자분은 쓸개절제술을 한 분이었는데 내가 스크립을 서며 교수님과 수술을 함께 했기 때문에 '환자분 수술에 함께 했었다며 수술 후 불편하신 데 없는지 여쭙보러 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렸고, 환자분께서도 굉장히 우호적이셨다. 내게 수술에 대해 궁금한 것들도 다 물어보셨는데 다행히 그것에 대비해 공부해왔기 때문에 친절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환자분과 보호자분께서 수술 후 컨디션이 좋으셔서 계속 감사인사를 하시길래, 교수님께서 수술을 잘 하신 거라고 걱정하시지 말고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다. 난 수술에서 쓸개를 고정해서 잡고 있는 등 보조적인 일만 했을뿐인데 대신 이렇게 감사인사를 듣고 있자니 쑥스러웠다. 하지만 환자분 앞에서 나는 나이나 학생신분 이런 사실들과 관계없이 함께 수술에 협조했으며 수술 후까지 당신을 신경써주는 선생님일 뿐이라는 것을 느끼며 또 한번 책임감을 느꼈다. 만약 그 상황에서 내가 수

술에 참여했으면서도 궁금해 하시는 것에 제대로 답변을 못해드렸다면 그 잠깐사이에도 불신이 쌓였을 것이다.

1, 2학년 때처럼 강의실에서 수업만 듣던 것과 달리 PK로써 병원 안에서 직접 체험하며 가장 크게 배우는 것 중 하나는 의사-환자 관계, 실제적인 병원 생활에 대한 것이다. 강의실에서 아무리 수업을 들어도 경험 전엔 마음으로 깨닫고 느낄 수 없는 것들. 환자분들 앞에서는 흰 가운을 입고 병원에서 내가 하는 행동 또한 우리 병원의 이미지에 들어가리라는 생각 또한 책임감을 더하게 한다. 시험만 치면 되는 1, 2학년 때보다 더 힘든 때도 많지만 다이나믹하고 실제적인 경험이 쌓여가는 PK생활이 훨씬 더 흥미롭고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하루하루가 내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하며 그만큼 그에 대해 떳떳할 수 있는 책임감으로 임해야겠다.

## 희. 노. 애. 락. 을 관 조 하 다

글 / 2학년 이승제

아이가 웃고 있다.  
해맑은 어린 아이는 꿈틀거리는 나를 보고도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듯이  
그냥 웃고 있다.

장년이 화가나 있다.  
시뻘건 얼굴에 힘이 들어간  
주먹으로 벽을 치면  
자고 있던 나는 무방비로 똑. 떨어진다.

어른이 울고 있다.  
"이 별레만도 못한 인생"  
흐느끼는 어른에게도  
나처럼 변태기 같은 곳이 필요한가 보다.

어르신이 즐거워하고 있다.  
마치 긴 비행을 끝내고  
활주로에 안착한 비행기처럼  
편안하고 고요하다.

웃고 성내고.  
울고 즐기는 삶.  
사람이 별레처럼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처럼 산 것이다.

## 그대 외로운가?

글 / 2학년 오정석



❖ 외로움의 사전적 정의  
외로움 [발음 : 외로움/워로움]  
명사: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  
영어로 loneliness, lonesomeness

❖ 고독의 사전적 정의  
고독 孤獨  
명사: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  
영어로 loneliness, solitude

입학하기 전에 종종 서점에 갔었는데, 그 때 인상 깊었던 책 제목 중 하나가 '지금 외롭다면 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다. 그 때가 겨울이었고 옆은 허전했고..... 그래서 인지 무심코 책을 집어서 책 내용을 조금 읽어 보았다. 일반적인 자기계발서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후에 외로움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온 것 같다. 내가 외로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종류의 책들이 많이 눈에 들어왔다. 시간이 지나서 입학할 하고 학교를 다니다 보니 너무 바빠서, 솔직히 유급을 신경 쓰느라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잠깐 여유가 생기면 혼자 타지에 있다는 게 외롭기는 했다. 정말 빠르게 1학기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6월 19일 날 부검하는 것을 참관했다. 내 기억에는 해부실 구조 변경 공사 전 마지막 부검이었던 것 같다. 처음 부검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더 참관해야지 했는데, 그 뒤로 해부실공사가 시작되어 부검참관을 못해 많이 아쉬웠다.



부검에 참여하는 선배님께 허락을 받고 부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동기 2명과 선배님들 그리고 몇 분의 경찰관들이 참관했다. 부검실에서 부검하는 채종민 교수님의 포스(느낌?)도 장난이 아니었다. 법의학과목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으로 그 날 처음 뵈었는데 그 느낌은 정말 잊을 수가 없다. 몸에서 나오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졌다. 사체가 베드에 올라가 있고, 교수님께서 부검실로 들어오자 부검이 시작됐다. 교수님께서 사체부위를 일일이 다 체크하시면서 사진을 찍어 증거자료



를 남기셨다. 사진을 모두 찍은 후에는 소견서에 무엇인가를 적으시고 나서 바로 부검에 들어갔다. 사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인데 사망원인이 불분명해서 부검을 의뢰한 것 같다.

부검이 어느 정도 끝나자 참관하던 선배님들이 교수님 근처로 갔다. 그래서 나도 무작정 따라 갔다. 교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4학년 선배들에게 "왜 살아?" 이렇게 물어보셨다. 대답이 쉽지 않은 질문이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이분이 알코올 중독인데 술이 없었으면 안 죽었을까? 아니야 아마도 다른 거에 중독되었을 거야 예를 들면 마약이나 게임중독 이런 거. 사람은 외로운 거야, 고독한 거라고. 너희들이 지금 공부하느라 바쁘고 병원실습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외로운 것을 못 느끼는 거야. 사람은 항상 외롭고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인가 하려는 거야 중독에 왜 걸리겠어? 시간이 남으니깐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중독이 있는 거야. 게임중독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야. 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자살한 사람이 많은지 알아? 사람은 항상 외롭고 고독해. 근데 그게 태양과 별과 같은 거야. 태양이 떠 있을 때 사람은 별의 존재를 인식을 못해. 하지만 태양이 지고나면 별이 보이는 거야.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건데. 태양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느끼지. 근데 그게 아니야. 외로움과 고독은 항상 있는 거야. 너희가 지금 바빠서 그런 걸 느끼기 힘들지 하지만 언젠가 느낄 거야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 사람이 성공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지 그 때 허무감과 외로움 고독감이 몰려 올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때 당황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성숙해야 돼. 성숙한 인간이 되어야 해.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 낼 수 있을 정도로."  
그날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 받았다.

부검참관 이후로 외로움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러다 얼마 전 '내 아내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영화는 7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간에 겪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영화 속에서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생긴다. 부부간의 진실한 대화의 부재로 인해 아내(임수정)가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움 해소를 남편(이선균)에게 잔소리와 투정을 부린다. 남편은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하는 가정생활이 힘들다고 느끼고 헤어짐을 결정한다. 하지만, 헤어짐을 결정한 후 남편은 부부사이의 진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남편의 사과로 부부는 화해를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영화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너무 그림더러. 니 독설이, 니 목소리가, 옛날에 네가 투덜대는 거 정말 창피했는데, 근데 그거. 네가 외로워서 그런 걸 몰랐던 거야 근데 내

가 외로워 보니까 알겠더라고'

많은 여성분들이 영화에서 느끼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서로의 대화는 단절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부뿐만 아니라 연인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간이 가능했던 것 같다.

외로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외롭다고 하고 외로움이라는 것이 사회현상처럼 번지고 그와 관련된 된 서적, 영화가 나오고 있지만 외로움이라는 것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항상 있었던 문제이다. 전염병처럼 너도 나도 외롭다고 이야기하면 자기도 외로운 것처럼 느끼게 되고 그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은 괜한 걱정일 뿐이다. 걱정한다고 외로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어느 것도 사람의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외로움이라는 문제의 해결은 나도 모른다.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성숙해야 한다고 하는데, 성숙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 외로움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은 성숙해도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외로운 존재니까…….

<13학년 후배들에게> 부검 참관은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만의 특권이다. 한 번도 참관해보지 않았다면 참관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의학으로 유명한 만큼 정말 많은 사례를 접할 수 있다. 얼마 전 개구리 소년들 사체 부검도 우리학교에서 한 것을 보면 정말 다른 학교 학생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특권이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 42.195km.....

글/ 2학년 오정석

내가 처음 댄 마라톤 배번 51900.

마라톤을 뛰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군대에서 처음이었다. 전역을 한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난 마라톤을 뛰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다. 그래도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쉽지가 않다. 나도 하고 싶은 것들, 나중에 해보겠다고 생각해 두었던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시간이 되면 다음에 해야지 하고 미루게 되는 게 태반이었다. 의전원을 준비하는 동안 내 스스로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뭐가 도전적인 것을 해보고 싶었다. 그 때 생각난 게 마라톤이었다. 고민 끝에 마라톤을 뛰기로 결정을 하고 매일 하루에 10km씩 뛰었다. 한 달에 댄 거리는 약 250km, 준비했던 기간은 5개월 정도, 마라톤을 뛰기 위해 댄 총 거리는 1000km가 넘을 것이다. 42.195km를 뛰기 위해 나는 마라톤에 20배가 넘는 거리를 댄 것이고 100시간 이상의 시간을 단 한 번의 마라톤을 위해 투자했다. 혼자 달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과연 내가 마라톤을 완주하고 나왔을 때 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왜 이것을 하겠다고 결심한 거지? 등등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정말 솔직히 한 번 뛰어보고 싶었다.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 '은전한닢'의 주인공처럼 나도 그냥 한 번 뛰어보고 싶었다.

마라톤 준비를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아마추어 마라토너가 마라톤을 처음 댄 사람에게 전하는 글을 보았는데, 무척 인상 깊었다.

" 뛰기 전의 나와 뛰고 난 후의 나는 다른 사람이다. "

이 문구를 보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변할 수 있다고 나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이 문구를 계속 떠올리며 마라톤을 댄다.

대회 당일 나는 시계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페이스메이커를 보면서 댄다. 최종 통과 기록은 4시간 13분 11초 처음으로 댄 마라톤이었는데 결과는 좋았다. 마라톤대회 제한시간이 5시간이라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도 걱정도 많이 했지만 다치지 않고 좋은 기록으로 완주할 수 있었다. 기록을 보면 30km까지는 한시간당 10km의 페이스로 꾸준히 뛰었다. 그러나 30km이후부터는 페이스가 많이 늦어졌다. 3시간 이상을 쉬지도 않고 뛰다보니 다리도 아프고 체력도 많이 부족했다. 정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뛰고 싶었다. 쉬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달콤한 유혹 같았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쉬면 다시 뛰겠다고 마음먹기가 계속 뛰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천천히라도 계속 뛰었다. 비록 걷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떨어지던정. 35km이후에는 얼마 남았다는 거리환만 보면서 뛰었다. 정말 그 때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마라톤 경험이 몇 번 있었다면 모르지만 처음 뛰는 사람한테는 35km이상의 구간은 오직 완주만을 생각하게 된다. 여기까지 와서 포기 할 수 없다고 최종 도착지인 잠실올림픽 경기장을 보는 순간은 정말 없던 힘이 났다. 나 왔구나! 내가 뛰었구나! 이런 생각에 다리도 아프지 않았다. 마라톤을 뛰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그 때 잠깐이라도 유혹에 흔들려서 쉬었더라면 완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60137. 이 배번은 2013년 동아마라톤 배번이다.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것 같아서 내 스스로에게 조금의 별과 다이어트라는 당근을 주려고 신청을 했다. 달리기 연습을 할 때에 살이 너무 많이 쪼서 힘들었다. 이번 마라톤은 처음 마라톤을 뛰었을 때만큼 준비하지 못했다. 여유도 없었고 몸 컨디션도 많이 안 좋았다. 마라톤 신청은 평균적으로 대회 4개월 전에 신청을 받는다. 내가 신청한 때는 2012년 11월말이고 배번과 유니폼은 대회 한 달 전에 택배로 온다. 그런데 마라톤 참가를 하지 못했다.



이유는 내 몸이 아팠던 게 대회불참의 가장 큰 이유다. 허리디스크 초기 증상으로 인해 준비도 못했고 많이 걸으면 아파서 연습도 못했다. 이번에 아팠던 것을 계기로 정말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아프다는 거 그거 정말 힘든 거다. 정말 힘든 거더라.

이번에는 마라톤을 하지 못했지만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마라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누군가 나에게 마라톤을 하려고 하는데 왜참나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한 번은 뛰어볼 만 하다고 말할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마라톤을 한 번이라도 완주했다면 그 사람의 마라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람들은 마라톤을 그냥 단순하게 달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뭐가 표현하기 어려운, 말로 하기 어려운 뭐가가 있다.

마지막으로 마라톤을 완주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생각했던 말로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에도 정말 힘든 날과 유혹이 많겠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목표를 향해 뛰어갈 거라고……!'

## 연애에 관하여

글/ J

어떤 이는 말한다. 연애는 좋은 것이라고. 연애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불같은 연애가 아닌 안정적인 가정을 원하는 때가 되었을 때 나의 아름다웠던 젊은 시절을 기억해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내가 만났던 그들은 그 때의 나를 또렷하게 기억해줄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나고.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고 불같이 해야 할 것이 연애라고.



봄이 되면서 길에는 꽃이 만연하다. 커플들도 쌍쌍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고 아이의 손을 잡고 꽃놀이를 나온 행복한 부부도 보인다. 꽃도, 연인들도 하나같이 예쁘다. 국채보상공원에 핀 꽃들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봄이 여러분에게도 왔는가? 그런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입학한지 꽤 됐다. 하지만 여전히 없는 사람은 없고 있는 사람은 있는 양극화 현상이 만연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양극화가 아니라 그 누구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지금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 한순간 날이 되고, 인연이 아닐 것 같았던 누군가가 내 짝이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를 일이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자. 물론, 그 최선을 이라는 것이 내 입장에서만 최선을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든 최선을어야 한다. 미저리 짓은 금물이다. 꽃은 언젠가 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곧 다시 피는 것 또한 꽃이 아닌가.

우리는 사랑노래를 듣고 사랑영화를 보며, 연애로 가득한 드라마를 본다. 대한민국 드라마에는 연애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듯, 특히 우리나라는 사랑과 연애에 관심이 많은 듯하다. 사랑에 관련된 노래를 듣고, 드라마를 보며 우리는 이것이 마치 내 이야기인양 공감하고, 가슴 아파하고 설레기까지 한다.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노래와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우리의 사랑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대로, 노래에서 들려주는 대로 사랑하고 연애하고, 이별하는 건 아닐까. 우리는 사랑과 이별의 방법을 교육 받은 것일 지도 모른다. 언제 손을 잡고 언제 키스를 해야 한다, 고백은 어떻게 해야 하고 이별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공식에 따라 이론에 충실한 연애를 한다. 현재의 우리는 머리로 사랑을 하고 배운 대로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최근 한 티브이 프로그램에서 모 여자연예인이 문자 답장에도 정해진 간격이 있다고 말하며 밀고 당기기의 법칙 따위를 말한 적이 있었다. 미친 것 같다. 연애와 사랑에는 규칙도 이론도 없다. 여자가 먼

저 고백하면 쉬워 보인다? 자존심 상한다? 아니다. 남자들은 적극적인 여자를 좋아한다.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 당당하고 멋진 것이다.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한다.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다. 밀당(밀고 당기기의 줄임말)을 만들어낸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사랑은 배려고 헌신이다. 배려하고 또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지금 당신이 당신의 연인에게 받고 있는 사랑이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있을 땐 모른다. 없어져 봐야 알지. 잘하자.

[나의 이야기] 글을 쓰고 있는 나 또한 당신과 마찬가지로 사랑과 연애에 있어 경험이 많지 않다. 사실 나도 사랑을 잘 모르겠다.(이게 결론인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이별을 했다. 지금은 힘들다면 힘든 것 같고, 괜찮다면 괜찮은 것도 같은, 약간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즐거운 적도 행복한 적도 해보지만 기분이 항상 좋지는 않은 게 사실이다. 없어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이별은 그런 건가 보다. 그동안 나에게는 이상적인 연애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었는데, 이 신념이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이 흔들렸다. 지금은 재정립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렇지만 길고 긴 생각의 흐름 속에... 신기하게도 좋았던 기억들만 남아있다. 행복했다

## 그네

글 / 1학년 윤영상

해부학 기말고사공부로 지친 늦은 어느 밤, 학교 독서실을 나와 거리로 나섰다. 시험공부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지만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을 시작했다. 매일같이 이어지던 해부학 실습이 몇 번 남지 않은, 어느새 4월이 저물어갈 무렵의 밤이었다.

나는 대구에 오기 전부터 혼자 산책하는 것을 즐겼다.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내일이 시험이어도 산책이 하고 싶어지면 편하게 집을 나선다. 나무가 많은 넓은 아파트단지로부터 산책을 하다보면 늦은 밤거리엔 귀뚜라미나 매미소리, 길가의 주황빛 가로등 불빛만이 나를 반겼다. 놀이터가 정말 많아서 목적지 없이 걷다보면 놀이터가 자주 나타난다. 산책하는 시간이 늦은 밤이어서인지 놀이터엔 늘 사람이 없다. 정말 드물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놀이터 벤치에 앉아있던 커플에 놀라곤 했을 뿐이다. 걷다 쉬고 싶으면 사람이 없는 놀이터에 들어가 그네에 앉는다.

동성로의 시끌벅적한 거리를 지나 조금은 사람이 적은 거리를, 가쁜 산책을 하며 익숙해진 거리를 걸으며 이런 저런 생각을 했다. 골학 오티때 밤을 새워 장기자랑 연습을 하고 돌아온 새벽, 다른 조보다 일찍 연습을 마친 덕에 오늘은 일찍 잘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기숙사 키를 잃어버려서 방에 못 들어가고 한참을 헤매다 지갑 구석에 들어있던 기숙사 키를 발견하고 허탈한 웃음 짓던 일, 지금은 친해진 동기들과 고개 숙여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며 지나치던 일들을 지나 서울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로 생각이 도날할 때 씬,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한번 안하면서 산책이나 하고 있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해부학 중간고사를 마친 주말에 서울에 가서 했던 산책이 기억났다. '어, 여기엔 그네가 없었구나.'

'대구엔 벚꽃이 다 졌는데 여긴 이제 만발 하는구나' 오랜만에 달이 아닌 힘껏 빛나는 해와 함께 하는 산책이었다. 익숙한 동네를 한참 걷다 나타난 놀이터로 들어가 그네에 올랐다. 주말이라 그네 옆 공터에는 꼬맹이와 아빠가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대구에서의 내 삶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내가 피로에 목어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구나.' 뻑뻑한 수업, 실습일정과 쏟아지는 과제들, 넘쳐나는 공부량에 내가 내가 아닌 의전원 학생이 되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아무리 개성이 존중되지 않는 공간이라지만 나를 잃지는 말아야겠다.' 더 높이, 힘차게 발을 굴렀다. 그네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쐬며 멀리 볼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지루해 보이는 단순한 반복을 거쳐야 한다. 반복이 지겨워 변화라도 주려하면 그네는 급방 좌우로 요동치며 불안함을 안겨준다. 지금 나는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매일이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씩 높아지며 언젠가는 시원하게 먼 곳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 "시근 있게 행동하세요"

글/ 1학년 안상준

눈이 쌓여 추워서 떨리고, 긴장되어서 마음도 떨리던 골학 캠프 첫날. 강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던 이경민 교수님의 말씀이었다. 경상도 사투리의 경제성에 대해 감탄할 수 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복잡하고 추상적이어서 길어질 수 있는 내용을 단 한 단어로 썬버릴 수 있는 경상도 사투리의 힘. (나는 fetus 시절부터 19살 까지 부산에서 살았다.) 그렇게 간결하게 설명하시는 교수님을 조용히 존경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은 끝났고, 정신없이 골학과 새터가 스쳐지나가고, 곧 개강을 맞이했다.

개강 후에도 학교에서 '시근'이라는 단어를 드물지 않게 들었다. 그런데 반복해서 들을수록 뭔가 이상했다. 사람들이 쓰는 '시근'의 뜻과 내 머릿속에 추상화되어 있는 그것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 이상했다. 그런데 또 정말 자주 들린다. MEET 준비시절 다니던 독서실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 '질문을 하면 5분간 바보가 되지만 질문하지 않으면 평생 바보가 된다'. 내가 무식하다는걸 깨닫는 것은 나에게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일이기 바로 옆 동기들에게 물어보기를 실행했고, 경남과 부산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나의 어머니, 나의 영위한 친구이자 스승인 NAVER 와 Google 에게 물어보았다.

직접 물어본 동기 10명중 7명은 "윗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그 중 한명은 "강제된 예의"라고 말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기타 답변으로 "상황에 맞는 행동과 말", "철", "싸가지" 등이 있었다. 나이나 출신/성장지에 따른 공통된 경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언어의 자의성(恣意性)을 인정했을 때 적어도 우리 강의실 내에서는 "시근"은 "예의"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어머니. 어머니에게 묻자마자 쓸데 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하신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시근"은 공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위한 나의 친구이자 스승인 NAVER와 Google. 먼저 지식in 오픈국어사전 설명부터 살펴보자. (오픈국어사전은 사투리도 있으니 새로운 언어 배우시는 비(非)경상도 출신 동기님들 참고하시길.)

### \*시근\*

철의 사투리. 보통 '시근 없다'라는 어구로 함께 사용한다. 은이 어른들이 철없이 행동하는 아이들을 나무랄 때 사용하는 말이다. (시건, 세건, 등으로도 발음된다.)

이번엔 철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Fe 처럼 단단하게 살라는 뜻은 아닐테고, 암튼 그래서 또 영위한 친구이자 스승을 만났다.



## 중요

[명사]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

철이라는 말은 순 한국말로 겨울철, 봄철 처럼 계절의 변화를 표현하는 말이다. 주역(周易 : 오경(五經)의 하나로 중국(中國) 주(周)나라 때의 철학서)의 영향을 받은 한국 문화에서는 이 철이라는 말을 사람의 변화에 대응하여 성숙해지고, 의젓해지고, 지혜로워진다는 의미로 사용하였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라는 의미로 확장된 것이다. 그러니까 철 들지 못한 사람은 겨울의 도다리처럼, 여름의 전어처럼 아직 제철을 맞이하지 못해서 완전히 영글지 못한 사람이 되겠다.

또, 시근이라는 말 자체는 한자어 식견(識見)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식견은 말 그대로 학식과 견문이며, '사리를 분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비록 그 유래는 다르지만 '철'과 의미가 정확히 통한다. 따라서 발음의 편의상 식견 -> 시견 -> 시근 -> 시근으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수님께서 우리 1학년들과의 첫 만남에서 "사리를 분별하는 힘"을 요구하셨다. "윗사람에 대한 예의"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유유히 흐른다.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고, "강제된 예의"는 더더욱 아니다. 예의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완성시켜 나가야 하지만 사리를 분별하는 힘은 자신을 바라봐야만 완성되는 것이다.

## 아직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 대구 지하철참사 10주년.

글 / 1학년 박명현

"혹시 A가 연락 왔었니?"

2003년 2월 18일 아침. 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배치고사를 친 후 정말 아무 할 일 없이 집에서 놀던 '백수'였다. 그 때는 서로서로를 그렇게 불렀다. 아직 학생 아니라고. 중학교는 졸업했고 고등학교는 아직 입학하지 않았으니까. 아침에 느지막히 일어나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것도 몰랐다. 그때는. 중학교 3학년 때의 담임선생님이 전화오시기 전까지는.

".....A가 탄 지하철에 사고가 난 거 같더라. 그래서 그런데 애들한테 연락 좀 해서 혹시 연락 왔는지..."

TV를 틀었다. 온통 그 소식이었다. 여전히 연기가 나는 지하철 중앙로 역. 아수라장이 된 입구. 끊임 없이 올라오는 실종자 명단. 졸업앨범 냇장을 펼쳐 같은 반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 여보세요, 난데, 혹시 A 연락 없었어?
-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 아니, 아냐. 나중에 전화할게.
- 여보세요, 난데 혹시 A가...

몇몇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아이들. 우리 반 서른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거의 한 명 한 명 다 전화를 했다. 알아낸 건, 그날 아침 같은 반 애들 2명과 함께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었다는 것. 그리고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것. 시간상으로 따져볼 때, 그 지하철 안에 타고 있었던 거 같다는 것.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니라고 믿었다. 똑똑한 녀석이었으니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녀석이었으니까 아마 빠져 나와서 어디 있는데,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하는 거라고.

아수라장 같던 사고현장이 정리가 된 후,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 몇과 함께 중앙로 역을 찾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울고, 국화꽃을 바치고, 자신의 지인들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붙여놓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찾는다는 글과 사진 사이에 A의 얼굴도 있었다. A의 이름, 얼굴. 나와 같은 중학교 졸업, 나와 같은 고등학교 입학 예정.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질 때쯤, 하지만 누구도 그걸 입 밖으로는 낼 수 없던 때 경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하얀색 국화 사이에 A의 사진이 있었다. 그때 그 얼굴이 어땠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쳐다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 때 당시 우리 집 건너편, 있는지도 몰랐었던 화장터에서 A는 화장되었다. 우리가 올려둔 국화꽃

몇 송이와 함께. 그렇게 뜨거웠었을 아이를 다시 또 불에 태워야 하나니, 하는 생각에 왓지 의아하고, 많이 가슴이 아팠던 것 같다.

2013년 2월 18일, 새터 이튿날. 준비했던 공연을 마치고 쏟아지는 잠을 참아내며 집으로 가는 길, 중앙로 역이라는 교통 안내판이 보니 그제서야 생각이 났다. 아 맞아. 오늘이었지. 그 때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지.

여전히 그 일이 생각이 나면, 오래 전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갔던, 까맣게 타버린 지하철역 안에서 열기에 녹아내려, 마치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처럼 추욱 늘어져 있던 공중전화기가 떠오른다. 전화기 재질은,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copolymer, ABS 수지라는데, 내열성이 좋아서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녹는 점이 무려 섭씨 103-128도라고. 물은 100도에서 끓고, 그 물에 데이면 아프고, 진짜 아프고, 눈물도 핑 돌고, 상처도 남는데.

그 후로 누구와도 A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물론, 그 누구도 말을 꺼내려고 하지 않았고 가깝 아무것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대구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 극도로 싫어하고 화를 냈다. 이야기도 꺼내지 말라고. 내 앞에서는.

벌써 10년이 지나 나는 27살이다. 이제는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꺼내도 화를 내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그때의 A는 고작 17살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17살이다. 나는 A가 꼭 같 거라고 했던, 그리고 똑 똑했던 A를 보고 누구도 같 것을 의심치 않았던 의대를,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기억의 색이 바래면 추억이 된다던가. 하지만 이게 화려한 컬러 사진이 바래져 갈색 빛 도는 세피아 사진이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추억은 확실히 아닌 것 같다. A의 이름을 들으면 A와 함께 했던 기억보다, 트라우마처럼 그 새카맣던 벽이, 그 위의 어울리지도 않게 하얗던 국화꽃이 먼저 생각나 숨을 한번 크게 쉬어야 하는 걸 보니 나는 아직 그 기억이 두렵다. 단지 그 기억이 희미해 저가고 있고, 그 두려움에 무덤덤해져 가고 있을 뿐.

한참이 지난 후에야 겨우 가 볼 수 있었던 지금의 중앙로 역은 깨끗하다.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 바빠 걸어가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웃으며 수다를 떠는 학생들, 내 얼굴도 비치 보이는 바다. 거기 비친 내 얼굴은 무슨 표정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내 얼굴을 보나 보면 소설처럼 영화처럼 A의 얼굴이 떠오르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다. 나는 까맣고, A는 하얀 예쁜 얼굴이었으니까. 그냥 나는 거기서 서성이며 무슨 표정일지 모를 나를 보고 있다.

우리들이 빨리 잊어줘야, 빨리 보내줘야 좋은 곳에 간다고, 미련 없이 슬픔 없이 좋은 세상에 간다고 그때 어른들이 몇 명이 그랬던 것 같다. 우리를 달래기 위해서였는지 정말 그렇게 믿으셨던 건지는 모르지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너무 어렸던 A를 보내는 게 서글프다. 미련도 슬픔도 없이 떠나야 했었다는 것이 슬프다. 그래서 매년 하루,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씩 추억해본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도 이 날은 날씨가 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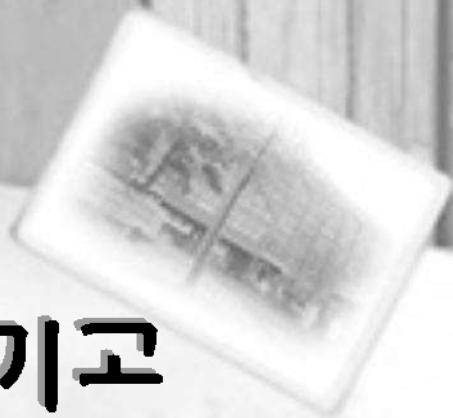
어떤 유명 연예인 생일도 오늘이더라. 사람들이 그런 걸로 오늘을 더 많이 기억할까?

아닐 거라고 믿는다.

# Section IV

## 인행수필 특별기고

- 백자산의 봄
- 짐에 대하여
- 번데기 앞 주름





## 백자산(栢子山)의 봄

글/ 안행수필 김병준선배님

3월, 봄이다. 이 곳 백자산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온다. 여기는 재활요양병원이다. 거동이 불편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사십대부터 구십대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과 치매에 걸린 노인들,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지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코와 목에 삼관을 한 분들도 많다. 의사소통도 힘들고 기억조차 없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병실의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고 조용하다. 그런 이곳, 백자산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다. 아니 봄이 찾아와서 더욱 서러운 곳이 이곳이다.

어제 내린 비로 병원 주변 정원에 심은 매화나무에는 매화송이가 작은 꽃망울들을 터뜨린다. 꿈지락거리며 터져 나오는 꽃망울들이 병실에 넋 놓고 누워 있는 환자들의 얼굴 위에 겹쳐진다. 그 많은 세월들을 살아내고 힘없이 누워 남은 삶을 부여잡고 있는 그 분들의 가슴속에는 어떤 발설하지 못한 말들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밖은 새들이 재재거리고 꽃들이 피어나는데 사시사철 병실 침대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못하는 그분들의 기억 속에는 어떤 아름다운 봄날의 기억들이 남아서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것일까?

치매기가 있는 한 할아버지는 내내 복숭아 밭 이야기를 하신다. 어서 일어나 복숭아 농사를 지으러 가야 한다고, 거름도 주고 가지도 쳐야 한다고, 복숭아가 그렇게 탐스럽게 열리는걸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할아버지의 무표정한 눈가에는 이미 물기가 자작하니 고인다. 내 가슴 속에도 그렇게 물기가 고인다. "밥 많이 잡수시고 어서 일어나 복숭아 농사 지으셔야지요, 식사 많이 하세요." 속마음을 숨기려는 내 목소리는 너무 날떠버린다. 할아버지 손을 잡아 토닥거리려 본다. 창밖의 햇살은 너무도 따뜻하고 밝아서 차라리 밋다.

이 분들을 위해 내가 여기서 무얼 해야 할지 무얼 해드릴 수 있을지 아직은 막막할 뿐이다. 내 아버지도 이런 요양병원에서 일 년 반을 계셨다. 집을 떠나서, 아들 며느리와 손자들의 품을 떠나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훗적삼 같은 환자복 한 벌 입으시고 혼자 적적하니 누워 계셨을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무슨 생각들이 오고 갔을까? 어쩌나 날씨가 좋을라치면 휠체어에 아버지를 태우고 병원 밖으로 나가 병원 주변을 한 바퀴 돌기도 했다. 그럴 때 아버지의 얼굴은 환하게 피어난다. "해 좋다, 해 참 좋다." 그 좋은 햇살아래 꿈지락거리며 자식들과 고조낭초 같은 세월을 넘어 지나온 술한 기억의 편린들이 그 참 좋다는 말씀 속에 녹아서 강물에 반사되는 햇살처럼 반짝거리는 듯하다. 요즘도 어쩌나 노래방 갈 일이 있으면 나는 한 번씩 아버지의 살아생전 18번 황성옛터를 부르곤 한다. 그 구성진 노래가사는 아버지가 넘어오신 모진 세월에 대한 한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노래를 부르고 나면 나는 마치 두런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듯하다. "아들아 나는 그 힘겨운 세월들을 어찌어찌 넘어 왔다면 너희들

은 그런 고생하지 말고 살아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하다. 그럴 때면 나는 늘 말없으신 아버지의 그 다정하고 그윽한 눈빛을 가슴에 느낀다.

그런 아버지를 요양병원, 그 간옥소에 떠넘기듯 방치했던 내 불효를 생각하면 나는 누구에게서 랄 것도 없이 마음의 고개를 돌리고 싶어진다. 거기서 아버지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생각은 내 가슴을 누누이 찌른다.

여기에도 애살 많고 다정한 가족들을 둔 환자분들도 많다. 교대로 순번을 짜서 문병 오는 자녀들을 가진 분도 있고, 지극정성으로 할머니 수발을 하시는 팔순의 할아버지도 계시다. 어떤 자식들은 침상 곁에 아예 당번일지를 만들어 두고 거기다 자기가 다녀간 날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들을 소상하게 적어 가족들이 어머니의 상황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자식들도 있다. 그 지극한 효성이 눈물겹도록 아름답다. 그런 가족들을 가진 분들은 참으로 복되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다. 세상 복 중의 가장 큰 복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가족들과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이다. 그 이상의 복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돈이니 명예니 권력이니 그런 것들의 부질없음을 다시 말해 무엇 하겠는가? 봄의 매화가 아무리 요염하고 아름다운들 그런 사랑만큼 아름답겠는가? 새들의 재재거림이 아무리 고운들 그런 사랑만큼 하늘을 울리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다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백자산의 봄도 그런 효성들과 지극 정성들이 불러 모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지 말란 법도 없을 것이다.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을 불러 모으지 흥흥함이 아름다움을 불러 모으겠는가? 따사로움이 따사로움을 불러 모으지 차가움이 따스함을 불러 모으겠는가?

지난주에는 응급상황으로 인근 급성기 병원으로 전원을 가셨던 환자분이 치료 후에 다시 돌아오셨다. 아침에 병실 회진 중에 전화가 한통 왔다. 그분의 둘째 아들 전화다. 어머니가 다시 그 병원으로 돌아 오셨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하다고, 그러나 치료를 잘 못해 질책을 받았으면 받았지만 내가 감사받을 일은 아닌데도 그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아들이 둘인데 두 아들 모두가 선하고 효자다. 한 아들은 부산에 한 아들은 울산에 살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는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 그 아들들의 얼굴에서 나는 그 아주머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읽을 수 있었다. 비록 봄은 여러 번의 수술과 후유증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사랑스런 가족들이 있어서 너무도 행복한 분이라는 것을. 나는 그 둘째 아들에게 말했다. 수고는 아드님들이 하셨으니 내가 감사할 일이라고. 언제 병원 오시면 내 진료실에 꼭 한번 들려주시라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 온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눈부시다. 백자산의 봄은 그렇게 선한 가족들의 아름다운 정성과 사랑을 타고 이렇게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다.

## 짐에 대하여

글/ 안행수필 송광익선배님

'인살라'는 알라가 뜻하는 대로, 라는 무슬림의 말이다. 얼핏 나약한 의타심에서 비롯된 애걸복걸이 나 무책임한 자기 합리화쯤으로 여기곤 했었다. 이제야 짐작해 본다. 열 번 찍어서 넘어갈 나무인지, 애당초 오르지 못할 나무인지 이리 재거나 저리 따지지도 않겠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 그냥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만, 잔걱정 잔머리 걷어치우고 온힘을 다해 보겠노라고. 이윽고 조용히 하늘의 뜻을 기다리겠다는, 매서운 다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인간사 새옹지마(塞翁之馬), 잘 가노라 마구 내달지 말고, 못 가노라 지레 주저앉지도 말자. 한순간의 기쁨과 슬픔마다 깃들어 있는 하늘의 뜻을 믿고서, 욕심 비우고 머리 숙여서 모든 일에 마냥 감사드릴 뿐.

'오래된 인력거'(My Barefoot Friend, 2011)는 인도 거리를 누비는 인력거꾼, '내 맨발의 친구' 살림에 대한 다큐멘터리다. 400만 명을 넘는 극빈자들이 저마나의 아픔과 슬픔을 부둥켜안고서 살아가는 '기쁨의 도시' 캘커타. 호구를 이어가기 위하여 일찌감치 고향을 등진 그는 삼륜차를 사서, 가족들과 살아갈 자그마한 집 한 칸 마련하겠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15년을 앞만 보고서 내달려온 살림은 이제 5년만 더 모으면, 오매불망 그리던 꿈을 이룰 수 있다.

"가끔은 행복하고 가끔은 슬픈 것, 그게 바로 인생이잖아요." 삶을 이어주는 주문인 양 너그러워 살아온 나날들. "인살라!" 매번 신이 베풀어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문득 문득 찾아오는 아픔에 숨겨 놓으신 뜻을 헤아리며 달려온, 땀과 눈물범벅의 행복한 인력거꾼의 길. 학업마저 접고서 공장 허드렛일을 시작한 아들이 덜컥 신종플루에 걸려 쓰러졌단다. 그 와중에 고향에 남겨진 아내마저 지병이 도져 화구를 나둔다는 전갈이 날아든다. 조금씩 금이 가던 꿈이 기어코, 송두리채 무너지려나보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서야/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걸 알았네./ 강물에 떠밀리지 않고 건너 목적지에/ 예정대로 닿을 수 있다는 걸 알았네. (중략) 이제 나는/ 등에 큰 짐을 지고서/ 남을 사랑한다네./ 그 무거움으로 남을 용서한다네.' (김영남의「짐에 대하여」)

감독은 말한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듯, 제각기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캘커타에서 만난 맨발의 인력거꾼 살림. 인력거꾼은 누군가를 신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 살림에게 누군가는 바로 가족이었다. 그것은 고통이겠지만, 끝까지 가족을 지켜야 하는 그 무거움은 오히려 행복인지도 모른다. 아버지로서의 행복이란 걸 가르쳐 준 이는 바로 살림이다." 그래서 굳게 믿는다. 가족 때문에 힘겨워 하던 그가, 가족이 있기에 힘을 얻고 일어나 다시 힘차게, 끝까지 달려갈 것이라고.



## 번데기 앞 주름

글/ 안행수필 정명희선배님

유채꽃이 만발한 제주는 아름다웠다. 들뜬 마음으로 공항 앞에 줄지어 서 있는 벤에 올랐다. 세미나장으로 빨리 가 달려며 자리를 잡는데 어디선가 중국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저곳 살펴보니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었다. 부쩍 왕래가 잦은 중국 손님 안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어학공부를 시작했다는 운전기사. 이 년 남짓 지나니 운전의 고단함을 잊을 정도로 재미가 붙어 즐겁다는 그의 얼굴에서 뿌듯한 자부심을 읽는다. 배움은 진정 한계를 짓지 않아도 좋을 즐거움의 원천이 아닐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무척 늘었다고 한다. 140만 명을 넘어섰다니 어지간한 광역시 인구를 웃도는 숫자다. 아이들 수도 17만 명이나 되다 보니 병원에서도 종종 그들을 만난다. 중국인이 절반을 넘어섰고 다음으로 베트남, 필리핀,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네팔,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분포라고 한다.

나라마다 그들의 고유한 언어를 쓰는 탓으로 환자 진료 시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곧 숨넘어갈 것처럼 아파서 뉘굴지만, 자세한 병력을 알지 못하니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되어 불안하기 짝이 없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표정으로 짐작하고 서툰 몸짓으로 설명을 대신하니 내가 마치 수의사가 되어 말 못하는 동물 앞에서 있는 듯 답답하고 힘들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심리적 신뢰인 라뽀만쿰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서로가 마음으로 깊이 공감할 수 있다면 더 좋으리라.

어느 날 문득, 이들의 말을 알아듣기만 해도 우선 급한 일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언어를 공부하면 그들의 문화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였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 30분, 방문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서 될 수 있는 한 쉬지 않고 꾸준히 연습했다. 삼 년이 지나자 그들의 말이 조금씩 들리고 간단한 의학용어 설명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눈만 멀뚱거리며 쳐다보던 사이에서 정이 담긴 말이 오가게 될 정도였다.

중국인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설 때 내가 먼저 중국어로 인사를 하면 그들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다가와 내 손을 잡고 흔든다. 어떤 이는 내 어깨를 간싸 안으며 마치 옛 고향 사람이라도 만난 듯 반긴다. 그런 그네들을 대하면 신이 났다. 가능하면 회진할 때엔 중국 어머니들에게 그들 모국어로 대화하려 노력한다. "기침이 많이 나왔지요? 열도 내렸네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퇴원하고 삼 일 후에 외래에서 진찰해도 됩니다." 불안한 표정이던 그들의 얼굴이 활짝 펴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치 눈앞에 멍그

는 꽃송이를 감상하는 듯 신선했다.

언젠가 중국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였을 때 옆자리의 중국 의사와도 몇 마디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어깨가 잔뜩 으쓱해졌다. 내 말이 드디어 중국 땅에서도 통하는구나. 마음은 풍선처럼 부풀었다.

얼마 전, 100일이 채 안 된 중국인 간호 씨의 아기가 폐렴으로 입원했다. 아이부모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왕견'이라 불린다. 한국말은 알아듣는 것이 거의 없고 직원들의 손짓 발짓 언어에도 무감각이라 여러 번 이야기해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 힘들다는 의미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기를 안고 겁먹은 눈으로 의료진의 입만 뚫어지게 바라보지만, 우리말이 그들에게 달나라 이야기처럼 이해가 안 되니 약도 챙겨 먹이지 못했다. 병이 낫기는커녕 약화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불안하다는 것이 간호사들의 하소연이었다. 그때마다 내가 다시 중국어로 보충하며 설명하고 또 확인하고 질문을 여러 번 받고 나서야 소통이 되었다.

내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된 어느 날이었다.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어찌 설명할까 걱정만 하고 있는데 평소 말없이 회진을 따라 돌곤 하던 전공의 선생이 찾아왔다. 조심스레 "제가 한번 말해 볼까요?" 하며 나서더니 환자 앞에다가 다소곳이 서더니 갑자기 살라살라 청산유수로 말하더라는 것이었다.

언제였던가? 내가 환자에게 설명할 때 옆에서 "중국어 잘하시네요?"라며 신기한 표정 짓던 그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때 나는 사뭇 목에 힘을 주었던 것 같다. 조그만 일이라도 시간을 부차하여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인턴, 레지던트 시절 바쁘더라도 자기 계발에 소홀히 하지 마라. 중국어도 조금씩만 신경 쓰면 언젠가는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그 언어, 도전 한번 해보지그래? 중국어 참 유용하게 쓰일 날이 있을 것이야."라며 설교를 한 것이다. 그때 그가 말없이 씩 웃던 것이 생각난다.

회진하러 갈 때마다 병동에는 온통 그 전공의가 중국어를 잘한다는 이야기 전하기에 바빴다. 그 어려운 말을 어찌 그리 잘하느냐고 물으니 그가 대답한다. 할아버지가 화교라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모태 언어가 중국어인 그에게 당신도 조금 배워두면 좋으리란 설익은 충고까지 했으니 말이다. 내 앞에 있는 이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일지 모를 일이다. 언제 어디서든 설블러 나의 일천한 지식을 자랑하지 않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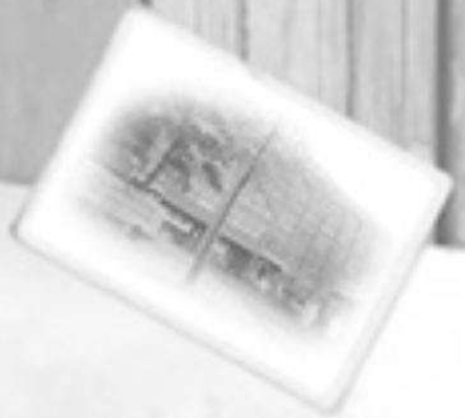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인연 중에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삶의 깊은 연륜이 느껴지는 이들이 많다. 그 깊이를 열린 알아차리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는 않기를 소망한다.



# Section V

## 문학 / 시선

- 여왕의 귀환 김연아
- 클로이에서 본 욕망이라는 키워드
- 24개의 인격을 가진 사나이:빌리밀리건 서평
- 야덕&영화
- 라쇼몽
- 타란티노이야기





## 여왕의 귀환 김연아

글 / 2학년 이승제

### - 피겨! 알고 보면 더 재밌다

'07 월드 쇼트에서 세계 신기록 - 첫 시니어 무대'

'이선수를 기억해두라 피겨의 기준을 정할 선수 - ESPN'

'김연아의 발에는 영혼이 깃들었다 독일 해설자'

'이제 연아를 아무도 이길 수 없어, 어찌지? 소치(올림픽)는 연아로 결정된거 아닌가'

- 일본 아사히신문 여자 피겨 전문 기자 아오야마 히로노'

그녀를 지칭하는 수식어는 셀 수없이 많다.

2년간의 공백이 무색하게 개인 통산 2번째 고득점을 달성하며 밴쿠버 동계 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세계선수권을 차지한 김연아 선수.

그녀의 화려한 귀환을 보고 큰 감동과 기쁨, 환희를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은 낯설고 넘어지지만 않으면 다 잘한 것 같아 보이는 진입장벽 높은 스포츠인 피겨스케이팅. 동계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여자 피겨 싱글.

피겨 불모지에서 세계 정상이 된 김연아 선수와 알고 보면 더욱 재미있는 피겨에 대해서 김연아 선수의 프로그램 구성 접프를 바탕으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자.



세계 선수권 프로그램 종료 후 기립박수를 받고 있는 김연아 선수

PACIFIC COLISEUM PACIFIC COLISEUM		FIGURE SKATING PATINAGE ARTISTIQUE											
VANCOUVER 2010		LADIES DAMES											
Olympic Rings		FREE SKATING PROGRAMME LIBRE											
<b>JUDGES DETAILS PER SKATER / NOTATION DÉTAILLÉE DES JUGES</b>													
THU 25 FEB 2010 / JEU 25 FEV 2010													
Rank	Name	NOC Code	Starting Number	Total Segment Score	Total Element Score	Program Component Score (Factored)	Total Deductions						
1	KIM YU-NO	KOR	21	150.00	75.30	71.70	0.00						
#	Executed Elements	Base Value	GOE	The Judges Panel (in random order)				Scores of Panel					
1	3Lz+3T	10.00	2.00	2	2	2	3	2	2	0	2	2	12.00
2	3S	5.50	1.00	2	2	2	2	2	1	1	2	7.50	
3	3A+T+2Lo	6.50	1.00	1	1	1	2	1	2	2	2	7.50	
4	FCSp4	3.00	0.00	1	1	1	2	1	1	2	2	3.00	
5	SpSp4	3.40	2.00	2	2	2	2	2	3	2	2	5.40	
6	3A+T	7.50	2.00	2	2	2	3	2	2	2	2	9.50	
7	3S	4.50	1.00	1	0	1	2	1	1	1	2	6.50	
8	3Lz	4.00	2.00	2	3	2	3	2	2	2	1	8.00	
9	SpSp3	2.50	1.00	2	2	2	2	2	3	2	2	4.50	
10	3S	3.00	1.40	1	1	1	2	1	2	1	1	5.20	
11	FCSp4	3.00	0.00	1	1	1	1	1	1	2	2	3.00	
12	CCSp4	3.00	1.00	1	2	2	2	2	2	3	2	4.00	
		<b>62.90</b>										<b>78.80</b>	
Program Components		Factor											
Skating Skills		1.00	8.75	9.00	9.00	9.50	8.75	9.00	9.25	9.25	9.00	9.00	
Transitions / Linking Footwork		1.00	8.25	8.00	8.0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Performance / Execution		1.00	8.75	9.00	9.25	9.25	9.25	9.25	9.25	9.25	9.00	9.25	
Choreography / Composition		1.00	8.25	9.00	9.00	9.50	8.75	8.75	9.25	9.00	8.75	8.50	
Interpretation		1.00	8.75	9.25	9.25	9.25	8.75	8.75	9.50	9.25	9.00	9.10	
Judges Total Program Component Score (Factored)												71.70	
Deductions:												0.00	

ISU World Figure Skating Championships 2013		LADIES FREE SKATING		JUDGES DETAILS PER SKATER								
Rank	Name	Nation	Starting Number	Total Segment Score	Total Element Score	Program Component Score (Factored)	Total Deductions					
1	Yuna KIM	KOR	24	148.34	74.73	73.61	0.00					
#	Executed Elements	Base Value	GOE	The Judges Panel (in random order)				Scores of Panel				
1	3Lz+3T	10.10	1.00	2	3	3	2	3	3	3	2	12.00
2	3S	4.50	1.00	1	1	1	3	3	3	3	3	7.50
3	FCSp4	3.00	0.00	2	3	2	2	2	2	2	2	4.00
4	3S	4.25	1.00	1	1	1	2	2	2	2	2	5.25
5	SpSp4	3.90	1.40	2	3	2	2	2	2	2	2	5.30
6	3Lz	4.00	1.00	1	3	3	2	3	2	3	3	8.00
7	3A+T+2Lo	7.00	0.70	1	3	2	1	2	1	2	1	7.80
8	3A+T	6.00	1.00	2	2	2	1	2	1	2	2	7.80
9	3Lz	2.40	1.07	2	2	3	2	2	3	2	2	3.47
10	OnSp1	1.00	1.00	2	3	3	2	2	3	2	2	3.00
11	3S	2.60	0.10	2	3	3	2	2	2	2	2	4.00
12	CCSp4	3.00	1.20	3	3	3	2	2	3	2	2	4.70
		<b>58.60</b>										<b>74.73</b>
Program Components		Factor										
Skating Skills		1.00	8.00	8.25	8.25	9.00	8.75	8.50	8.25	9.25	8.00	8.21
Transitions / Linking Footwork		1.00	8.00	8.25	8.75	8.75	8.50	8.25	8.00	8.75	8.75	8.80
Performance / Execution		1.00	10.00	10.00	9.00	9.25	8.50	8.50	8.75	9.00	9.00	9.28
Choreography / Composition		1.00	9.00	8.75	9.00	9.25	8.50	8.50	10.00	8.75	8.00	9.28
Interpretation		1.00	10.00	10.00	9.25	9.00	8.50	8.25	10.00	9.00	8.00	9.38
Judges Total Program Component Score (Factored)												73.61
Deductions:												0.00

위의 표는 '프로토콜'이라 불리는 프로그램 구성요소이다. (2010올림픽, 2013세계선수권 프리스케이팅 프로토콜)

피겨는 쇼트+프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각 프로그램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구성요소가 있다. 쉽게 생각하면 프리는 쇼트의 2배 정도 되는 시간에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점프와 스텝, 스핀위주로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조합이전 점프 3개, 프리점프 포함 7개, 스텝, 스핀등) 쇼트의 경우 규정기술(트리플 점프, 트리플 콤비네이션 점프, 스텝, 스핀)을 필수로 이행해야하는 것이다. -이번 쇼트 프로그램은 '뱀파이어의 키스', 프리 프로그램은 '레미제라블'이다.

Part1 About Figure skating

피겨에는 토름, 플립, 러츠의 토(toe)계열 점프와 악셀, 살코, 루프의 엣지계열 점프가 있다.

보통 오른손잡이 선수의 경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착지는 무조건 오른발로 하게 된다. 이점은 6종류의 모든 점프가 모두 동일하다.

악셀을 제외한 5종류의 점프는 후진한 상태에서 뛰게 되고 유일하게 악셀만 앞을 보고 뛰기 때문에 가장 쉽게 구분이 간다.



김연아 선수의 경우 더블 악셀을 뛰는데 앞을 보고 뛰기 때문에 경기 중에 가장 구분하기 쉽다. 이제부터 나오는 점프는 모두 뒤를 보고 뛰기 때문이다.

6종류의 점프 중에 토프, 플립, 러츠는 토(Toe) 계열 점프라고 한다. Toe 즉 발가락인데 점프 직전에 축이 되는 발이 아닌 나머지 발로 빙판을 찍으면서 도약하기 때문에 이름이 Toe계열이라고 붙여졌다.

우선 가장 난이도가 쉬운 점프인 토프 점프이다.

후진 상태에서 오른발을 축으로 두고 왼발로 토를 찍으면서 도약하는 점프이다. 보통 점프 후 착지 자세가 토프 점프의 도약자세와 일치하기 때문에 연결 점프로 많이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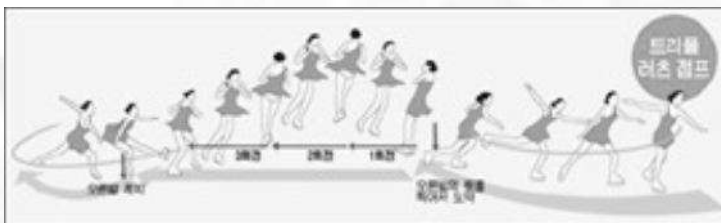
물론 러츠나 플립이 안 되는 경우 3-3(연속 트리플 점프)을 하기 위해 3T-3T(연속 토프점프)를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세계선수권에 나올 수준에서 단독점프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장 쉬운 점프인 만

큼 배점도 가장 낮다.

다음은 플립점프

플립과 러츠는 둘 다 왼발이 축이 되어 도약하게 되기 때문에 토프 보다는 약간 어렵다. 그래서 높은 배점의 점프이고 그만큼 실수도 많은 점프이다.

물론 둘다 토계열 점프이기 때문에 점프직전에 오른발로 토를 찍어주게 된다.



러츠 점프는 활주한 상태에서 턴 없이 도약하는 특징이 있다. 플립과 러츠의 차이는 에지가 근본적으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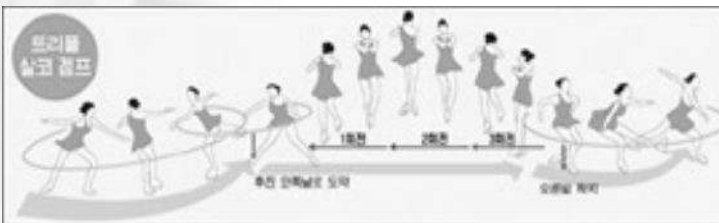
르지만 그냥 눈으로 구분하기에는 도약직전에 턴을 하면 플립. 하지 않고 활주자세에서 도약하면 러츠로 구분하면 된다.

나역시 아직 초보라 두 점프는 도약 직전에 턴이 있나 없나를 보고 구분하지만 많은 선수들이 두 점프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플러츠(?)라는 정체불명의 점프를 뛰다고 하고 실제로 해설들도 헷갈린다고 한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한 프로그램에서 같은 점프를 2번 밖에 못 뛰기 때문이다.

다음은 토계열이 아닌 옛지 계열로 토를 안찍는 악셀과 살코 루프가 있다.

살코의 경우 다리가 팔(八)자로 벌어지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간다.



살코가 팔(八)자라면 묶은 엑스(X)자 형태로 다리를 모으고 도약 하게 된다.

프리에서는 7개의 점프를 해야 하고 연결 점프를 세 번 해야 한다.

- 참고로 이번 세계선수권 프리에서 김연아 선수가 뛰 7가지 점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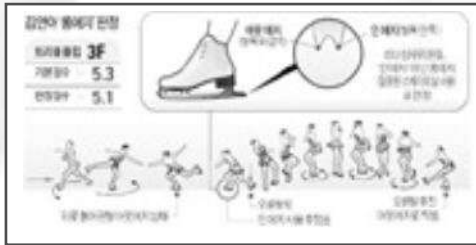
1. 3Lz+3T-트리플 콤비네이션-러츠+토름 (10.1)
2. 3F-플립 (5.3)
3. 3S-살코 (4.2)
4. 3Lz-러츠 (6.0)\*1.1
5. 2A+2T+2Lo-더블악셀+토름+묶 (6.4)\*1.1
6. 3S+2T-살코+토름 (5.5)\*1.1
7. 2A-더블악셀 (3.3)\*1.1

이런 구성이었는데 점프마다 기본 배점이 있고 2분 후에 뛰는 점수는 10% 가산점이 있게 된다. 이 점수가 기본이 되며 수행수준에 따라 가산점 또는 감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회마다 약간의 변경이 있지만 현재 점프의 기본 배점은

3A(8.5) 3Lz(6.0) 3F(5.3) 3Lo(5.1) 3S(4.2) 3T(4.1) 2A(3.3)

악셀(A)의 경우 사실상 반바퀴를 더 돌아야 하기 때문에 배점이 가장 높고 토름(T)의 경우는 반바퀴를 돌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배점이 가장 낮다고 보면 된다. 추가로 가끔씩 갑점의 요인이라고 자주 기사에 뜨는 롱(wrong)엣지 환경.



일반적으로 플립 점프의 경우 왼발중립에서 약간 인엣지로 점프를 뛰어야하는데 만약 아웃엣지로 추진력을 얻어서 점프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롱엣지로 판단하여 갑점을 하게된다. 하지만 김연아 선수의 경우 점프의 교과서라 불리며 엣지 환경에서 가장 자유로운 선수인데 이번 세계선수권 쇼트에서도 롱엣지 환경을 받아서 논란의 여지가 남게 되었다.



-점프마다 도약과 착지시 사용해야하는 엣지가 다르다.



-스핀의 종류

## Part 2 새로운 도전



김연아 선수의 세계선수권 프리스케이팅이 끝난 후 각국 기자대기실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한숨 섞인 속삭임이 잔물결처럼 퍼지고 있었다.

'일본에서, 러시아에서 누가 나오든 간에 연아의 상대는 될 리가 없겠어...'

목표의식을 잃었던 밴쿠버 올림픽 직후의 세계 선수권을 제외하고 출전하는 대회마다 각종 기록과 완성도를 더해가고 있는 김연아 선수이다.

예년과는 다르게 이미 캐나다로 가서 안무가 데이비드 윌슨과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그녀의 다음 목표는 당연히 올림픽 2연패.

임팩트에 비해서 커리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질투어린 비난을 받는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한 방은 올림픽이다. 그렇기에 보통 시즌준비 시작보다 3개월 가량이나 일찍 출발해서 다음 시즌을 구상하러 떠났고 출국 전 인터뷰에서 "레미제라블(이번 프리 프로그램) 평이 너무 좋아서 그걸 잇게 할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피겨 여자 싱글 역사상 올림픽 2연패는 유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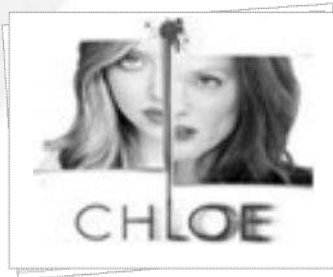
소냐 헤니(노르웨이)의 올림픽 3연패와 세계선수권 10연패와 현대 여성 피겨 역사중에서 원탑으로 인정받는 카타리나 비트(독일)의 올림픽 2연패와 세계선수권 4회 제패이다.

소냐 헤니는 아직 피겨가 제대로 적립되지 않았을 때의 기록이라 배제하면 김연아의 위치는 비트의 다음 정도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 이유는 미셸 콰, 이리나 슬로즈키야, 낸시 캐리건, 이토 미도리 등 불세출의 여성 스케이터들도 올림픽 금메달이 없을 정도로 올림픽 금메달의 가치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올림픽 시즌인데다가 본인의 커리어 마지막 시즌이라 여기며 2연패에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김연아 선수. 그녀의 마지막이자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도전을 조용히 응원하고 지켜보자.

# 클로이에서 본 욕망이라는 키워드 나는 너를 끊임없이 원한다.

글/2학년 이재혁



"영화 클로이에서 주인공 아만다 사이프리트(극중 배역 클로이)는 욕망의 화신으로 묘사된다. 윤리나 도덕적 잣대를 무시한 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려 전략을 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단란했던 캐서린과 데이빗의 가정에 불화의 감새를 눈치 챈 클로이는 자신이 원하는 캐서린을 얻기 위해 데이빗에게 접근하고 캐서린의 의심과 행동들을 역이용한다."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일정한 노력을 해서 성취하는 프레임

이 프레임을 시장의 원리에 적용시킨 것이 바로 "소비"라는 행위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시장이 정해준 가격을 지불하고 갖는다. 한곳의 군더더기도 없는 이 매끄러운 과정이 우리의 욕망을 일정부분 충족시켜준다. 사실 이 소비하는 행위 자체야말로 사회를 유지하게 하고 발전하게 된 원동력이자 사람들의 갈등을 풀어주는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소비의 주체들과 소비의 대상이 되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행위들이다. 이 매끄러운 프레임에 사람들의 욕망이 개입해서 "자신이 원하고,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줄 대상을 가격을 지불하고 갖는다."라는 프레임으로 변질하고 만다. 즉 욕망에 잠식당해서 대상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과도한 가격을 지불하고 갖는다. 그리고 한번 잠식당한 마음은 그 역치가 이미 낮아져있기 때문에 이미 가진 재화로는 성이 안차게 된다. 더 좋은 더 갖고 싶은 더 빛나는 대상들을 끌어모으게 된다.

사실 클로이를 그렇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단지 추측만 가능할 것이다. 사람들의 욕망에 대한 자기 나름의 방어기제로, 삶의 수단으로 그 욕망을 역이용한 것이라고.

클로이는 그 자체로 매우 아름다웠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잘 알고 있었다. 허나 그에게 부족한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혹은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욕망에 잠식당한 이 꼬마악동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애석한 일이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캐서린은 그녀를 구제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악화될때로 악화되어 있었고 그녀는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





이 프레임은 "욕망을 만들어줄 대상을 가격을 지불하고 남보다 먼저 갖는다." 라는 식으로 또 다시 한번 변하게 된다. 즉 자신이 왜 이걸 원하는지도 모른 채 본능적인 욕망에 이끌려, 혹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소비하는 것이다. 이쯤되면 순수한 "소비"로서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오히려 칼로이에서 보인 옳고 그름을 모른 채 그저 욕망을 위한 욕망으로 퇴행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과의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느끼는 희열인지 헷갈린 채 그저 생각의 속도보다 빠른 소비의 속도를 향유하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런 퇴행을 부채질했을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의 가치측정"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사이에 피어나는 신뢰, 믿음, 그리고 사랑, 또는 감정, 관계 등 당장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고 느낄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많다. 이것들이 수면위로 들어나기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고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시장에서는 이것들조차 가격을 매기고 사람들에게 판매하려 이미지를 주입한다. 욕망을 제어하고 다룰 수 있는 가치들을 또 다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판매한다.



"칼로이가 소중히 간직하던 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머리핀' 이였다. 곤란했던 일을 당했던 그녀를 도와준 캐서린과의 첫 만남에서 칼로이는 그 머리핀을 캐서린에게 주려 한다. 어찌면 칼로이는 캐서린과의 만남에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가치를 느꼈고 그 머리핀을 줌으로써 뭔가를 구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소비의 프레임은 욕망을 채우는 법에서 따와서 문명인의 삶에 맞게 각색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며 점차 진화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소비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잡아주고 더욱 더 의미있게 만드는 가치들은 욕망의 잔존물에 의해 점차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애석하다. 아직 우리에게 의식이 남아있다면, 칼로이의 내면에서 간절하게 바랬던 외침이나 캐서린이 칼로이에게 건네주었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건 어떨까?



# 빌리밀리건

## "24개의 인격을 가진 사나이 : 빌리밀리건"

글/2학년 주효림

빌리, 아서, 레이건, 앨런, 타미, 대니, 데이비드, 크리스틴, 크리스토퍼, 에이들라나, 필립, 케빈, 월터, 에이프릴, 새뮤얼, 마크, 스티브, 리, 제이슨, 바비, 숀, 마틴, 티모시, 선생

이 책은 최초로 법원에서 다중 인격 장애를 인정받은 빌리밀리건에 대한 팩션이다. 반디에서 친구를 기다리다 우연히 주황색 강렬한 표지에 끌려 보게 된 책은 자서전임에도 어떤 스틸러 못지않은 긴장감을 초반에 주고 있었다. 초반에는...하지만 뒤의 내용은 한 정신장애자의 일대기에 대해 따뜻한 시선 즉, 주인공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시선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책이었다. 하지만 책을 읽는 동안 너무 흥미로운 주제였든지라 나도 모르게 폭 빠져 버렸고 요즘 사회적으로 사이코 패스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동기들 특히, 정신과에 관심 있는 동기들에게 완전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솔직히 말해 24개의 인격이 분리되어 한 사람의 몸 안에 공존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이지만 사람을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요즘으로서는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쯤 나 같이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 ♣ 감상포인트. 피해자 피이다?!

물론 사건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 범죄자인지 이 모든 것이 그의 천재적인 연기였는지 알 길은 없으나 작가가 빌리라는 사람과의 오랜 만남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이라 그런지 굉장히 안쓰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즉, 주인공 빌리의 편에서 책을 집필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독자들도 다중인격자인 빌리와 빌리의 범죄 모두에 대해 관대해 지게 된다. 하지만 인격장애...다중인격장애...라는 일종의 정신병으로 그가 한 모든 행동들이 용서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아무도 아직까지 이 질병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데 어디까지 그의 행동을 이해해야 하는가?! 그가 모르는 그 안의 다른 누군가가 못된 의도가 아닌 자신을 지키는 수단의 일환(?)으로 강간과 절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그가 한 일인가... 그가 하지 않은 일인가?! 그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남들은 기억하고 있는 그의 비어있는 기억 속에서의 많은 일들을 그는 책임져야 하는가...책임질 필요가 없는가?! 모든 것의 발단은 그가 경험한 어린 시절의 학대 때문이고 이 모든 것은 그가 학대를 당해서 생긴 질병 때문이므로 그 또한 피해자이고 그걸로 그의 모든 죄는 면죄 받는 것이 마땅한가?! 와 같은 많은 의문 또한 함께 생기게 된다. 물론, 형벌의 판단은 다른 사람들의 몫이지만 그 판단을 기본이 되는 질병의 판단 유무를 앞으로 우리 동기 중 누군가는 하고 있을 일이기 때문에 한번쯤 나 같이 위의 의문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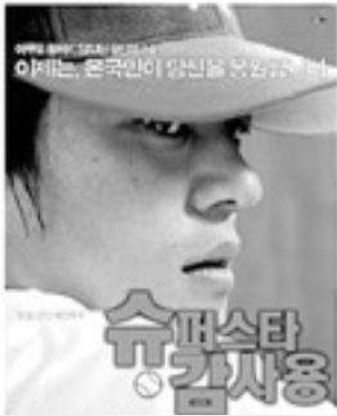
## 야덕 &amp; 영화

글/ 2학년 주효림

내 나이 꽃났던 고등학교 1학년, 학교를 과감히 뛰쳐나와 친구들과 향한 곳은 바로 잠실야구장이었다. 당시 야구가 지금처럼 인기 있던 스포츠가 아닌지라 5회만 지나도 외야는 공짜로 들여보내주곤 해서 아저는 야구장에서란 모토로 정말 열심히 야구를 보러 다녔더랬다. 나의 모태야구 인생은 삼성라이온즈지만 워지 모를 이상함에 끌려 인간 세상에 사는 꿈이라는 모토로 난 두산베어스의 팬이 되었다. 지금도 두산베어스의 팬이지만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팬심과 전혀 상관없는 야구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한다.

## 1. 프로 세계에서 영원한 아마군 단 [삼미 슈퍼스타즈] 그들의 이야기

## ☞ 슈퍼스타 감사용



이 영화를 우리나라 야구 영화 중 제일 먼저 꼽는 이유는 야구 외에도 인생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프로들만이 살아남는 세상에서 아마로써 누구보다 뜨겁게 살았던 그들의 이야기는 야구를 좋아하는 팬이라면 누구나 열광할 이야기이고 나 또한 영화에서부터 소설까지 모두 섭렵하였다. 물론 영화와 소설에서 늘 나오는 삼미팬들의 절대 악의 축이 그 당시 OB베어스이긴 하지만 상대가 삼미 슈퍼스타즈라면 잠시 베어스에 대한 팬심을 접고 응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영화는 삼미 철강실업 야구팀에서 투수로 활약하다 1982년 프로야구 원년에 팀에 왼손 투수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삼미 슈퍼스타즈의 투수가 된 감사용 선수의 이야기이다. 팀 이름과는 달리 스타 선수 한명 없는 삼미는 개막하자마자 꼴찌 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고 감사용 선수 역시 선발 등판 한번 하지 못하고 패전 처리 전문 투수로 낙인찍힌다. 팀에 패색이 짙어지면 시도 때도 없이 나가는 마무리 투수이고 상대팀 또한 감사용 선수 나오면 감사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맡은바 책임을 성실히 다하던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고 그 경기가 바로 그 당시 최고의 팀이던 OB베어스의 불사조 박철순 선수와의 선발대결이었다. 모두가 질 것을 예상하고 시작하는 경기에서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을 던지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경기 장면을 실제 경기를 중계하듯 진행하여 실제 야구장처럼 공이 포수의 글러브에 스트라이크로 휘날 때 마다 영화관에 있던 대부분의 관객이 함께 안도하고 숨을 쉴 만큼 박진감 있게 이야기를 진

행해 간다. 정말 야구팬이라면 강력추천해줄 영화이고 야구팬이 아니더라도 과정보다는 결과에 아마 보다는 프로에 목매고 사는 요즘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보면서 결과보다 뜨거운 과정을 프로보다 멋진 아마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 더아기 하나

소설 : [삼미 슈퍼스타즈 마지막 팬클럽] 영화보다 먼저 나온 삼미 슈퍼스타즈 관련 책이다. 영화가 야구에 초점을 맞췄다면 책은 야구팬에 초점을 맞추어 늘 끌려만 하는 팀을 응원해야 하는 어딘 꼬마 팬의 안타까운 사연이 재미있게 녹아있다. 그리고 그들이 커서 영원히 삼미 슈퍼스타즈의 팬임을 자처하며 사회인 야구 경기를 할 때 자기 쪽이 아닌 살짝 옆으로 가는 공에 대해서는 과감히 잡지 않는 삼미만의 정신을 보며 그래 즐거우면 되는 거지 뭐가 늘 잘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란 생각이 들었다. 잡을 수 있는 공만 잡고 칠 수 있는 공만 치며 즐겁게 살아가기, 아마임을 인정하고 그것에 행복하기, 쉽진 않겠지만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 또한 멋진 일인 것 같다. 그래서 뭐가를 꼭 해야만 한다고 기준 정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무엇인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이 책을 통해 말해주고 싶다.



### ++더아기 둘

- 박철순 선수(1956년생)  
프로통산 76승 53패 20세이브(방어율 2.95)  
프로야구 워년에 22연승이라는 한 시즌 최다 연승 세계 신기록 수립  
그 후 허리 디스크 등에 부상에 시달렸으나 다시 계속 재기하고 재기하신 [불사조]
- 감사용 선수(1957년생)  
프로통산 1승15패1세이브(방어율 6.08)  
패전 전문부수였지만 사상 첫 순수 아마추어 출신 프로 야구 선수

### +++더아기 셋

영화에서는 감사용 선수와 박철순 선수는 박철순 선수의 20연승 경기에서 맞붙었으나 실제로는 16연승 경기였으며 4-4 동점 상황에서 감사용 선수가 마무리 투수에게 공을 넘긴다. 그 후는 박철순 선수의 22연승 대기록이 말해 주듯 삼미 슈퍼스타즈가 패배하고 경기는 마무리된다. 하지만 그 이후 감사용 선수는 부산 구덕야구장에서 벌어진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그토록 워했던 첫 승을 거두고 이듬해인 1983년 삼미 슈퍼스타즈는 시즌 초반부터 파란을 일으키며 전기리그 2위라는 믿기지 않는 성적으로 돌풍의 주역이 된다.



## 2. 게임의 역사를 바꾼 감동의 리그

## ❖ 머니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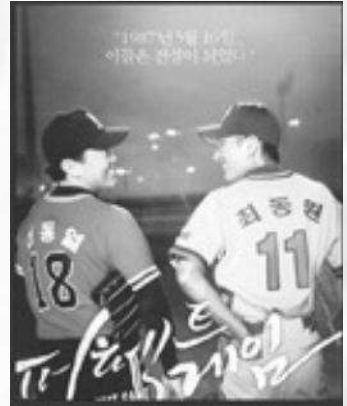


[The Show]라는 OST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영화이다. '중간에 그냥 멈춰 서버렸다. 인생은 미로 같고 사랑은 수수께끼 같아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르겠다. 떠나려 해봤지만 혼자서는 어렵고 답을 몰라 울적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그딴 걱정 내버려두고 난 그냥 나의 쇼를 즐길란다' 라는 가사는 우리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만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는 듯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를 보며 한 때 내가 통계학을 배우며 꿈꿨던 삶이 그대로 녹아 있어 나에게서는 무척 의미 있게 다가오는 영화이다. 물론 야구와 통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본다고 하더라도 인생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해 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영화 자체가 야구 경기나 통계 이야기 보다는 빌리 빈이라는 한 인간의 일대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누가 보아도 무방한 그런 영화이다. 영화의 제목이자 빌리 빈의 기본 가치관이 투영되어 있는 머니볼 이론을 조금 살펴보면 머니볼 이론이란 기존의 메이저 리그 구단의 선수 평가방법인 Five tool(빠른 발, 강한어깨, 넓은 수비 범위, 정확한 타격, 장타력)을 벗어나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가격대비 경기에 이기기에 적합한 최소 조건(출루율&장타율)을 대입시켜 그에 가장 부합하는 선수를 선발하는 시스템으로 재정이 취약한 영세 구단의 전략적 선택이자 1977년에 빌 제임스가 만든 이론적, 과학적 세이버메트릭스 야구 이론을 기초로 한 스카우트 전략이다. 이 전략이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기존의 메이저 리그의 평가 방법에 부합하는 선수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 자연적으로 부자인 구단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게임이 되어버린 야구를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이론으로 뒤집으려고 했다는 점이다. 웬지 강자에게 맞서는 약자의 야심찬 전략 같고 대기업에 맞서는 중소기업의 멋진 한방 같은 짜릿함이 있다. 이 이론을 토대로 2002년 오클랜드가 20연승을 거두었지만 그 이후에는 뚜렷한 성적이 없어 아직 이 이론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불합리를 이겨보려는 도전이었으니 이론적 내용의 타당성을 떠나 멋진 이론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누구든 삶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일을 간다던지 불합리함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데 용기가 없다면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두렵거나 할 때 이 영화를 꼭 한번 보기 바란다. 내가 가는 길이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 3. 라이벌, 인생의 동반자 그들이 있기에 삶은 좀 더 좋 것 좋 것 해진다.

#### ※ 퍼펙트 게임

이 영화는 야구를 모르는 일반인들도 알만한 두 선수 최동원 선수와 선동열 선수의 라이벌 대결에 대한 영화이다. 당대 최고의 투수와 떠오르는 신예 천재 투수 간의 대결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야구 도시들인 부산과 광주라는 역사의 사연이 있는 두 연고 도시간의 대결은 지금 생각해도 모든 빅매치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1987년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서 프로야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전 국민을 사로잡는 국민스포츠이자 일상의 한 부분이었을 때 노력과 끈기의 대명사이자 당대 최고의 투수인 롯데의 최동원 선수와 그의 뒤를 이어 떠오르는 해태의 천재 투수인 선동열 선수의 대결은 서로 붙으면 누가 이길까란 국민 모두의 궁금증을 대변하듯 사회적 이슈였으며 그 전까지 전적이 1승 1패인 상황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경기에 대한 기대는 지금의 야구 열기로도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경기의 중심에서 있는 두 선수의 상황은 누구나 한번은 겪어 보았을 따라잡힐 것 같은 초조함과 따라가고자 하는 안간힘이 뒤섞여 보는 이에게 두 선수 모두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켜 야구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을 한번쯤 경험해 보았다면 공감 할 만한 그런 영화이다. 그리고 이 영화 역시도 [슈퍼스타 감사용] 처럼 실제 경기장에 와 있는 듯 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박진감 넘치게 경기장면을 그려내고 있어 영화 관람비와 야구 관람비를 한꺼번에 내도 아깝지 않을 영화이며 무엇보다 나처럼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때 태어나지 못해 보지 못한 명경기를 영화로나마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그런 영화이다.



#### + 더아기 하나

1987년 5월16일 경기 [선발 최동원 vs 선동열]

이 영화에서 경기는 대부분의 야구팬이라면 기억할 빅매치이자 우리나라 야구 역사상 없는 4시간 54분 동안 진행된 경기 [15회]이며 투수의 최고 투구수(선동열 선수 232개, 최동원 선수 202개)를 기록하고도 승부를 내지 못한 유일한 경기

#### ++더아기 둘

故 최동원 선수(1958년생)

- 프로통산 103승 74패 (방어율 2.46)

- 불꽃처럼 살다 가셨다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한국 야구선수이다.
  - 1984년 정규 시즌에서 284이닝을 혼자 던지시고 한국 시리즈에서는 혼자 4승을 하여 롯데를 승리로 이끌
  - 최고의 투수였지만 그 만큼 최고였기에 많이 희생했고 많이 힘들었던 듯 선수협 문제로 롯데와 안 좋게 결별하셨지만 롯데 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선수.
  - 2011년 9월 14일 대장암으로 사망하심
- 선동렬 선수 (1963년생)
    - 프로통산 146승 40패 (방어율 1.20)
    - 누구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 투수이자 현 기아 타이거즈 감독,
    - 방어율 1위 8회, 다승왕 4회, 탈삼진 타이틀 5회, 그리고 세이브 1위를 2회 기록하였으며 4회('86,'89,'90,'91)의 트리플 크라운을 작성했고 리그 MVP를 3회('86,'89,'90) 수상
    - 현 기아타이거즈 감독  
(삼성 라이온즈 감독 시절까지 합하면 승률 5할4푼2리, 리그 2회 우승)

지금까지 언급한 3편의 영화 외에도 한국야구 영화로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스카우트], [클럽], [YMCA야구단], [외인구단], [투혼] 등이 있고 외국 영화로는 [더팬], [꿈의구장], [루키] 등 언급하지 못한 더 많은 영화들이 있다. 모두 좋은 영화들이니 시간이 나면 한번 찾아보면 좋을 듯하다. 그리고 야구 영화 외에도 스포츠 영화들이 특히 감동스런 실화들이 많고 뭐가 삶이 방향이 흔들릴 때나 자신이 길이 의심스럽고 삶이 고단할 때 보면 좋은 영화들이 많은 듯하니 이 글을 보는 그대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조용히 방에서 스포츠 영화 한편 보기를.....

# 덤불 속에서

## - 구로사와 아키라 1950作 '라쇼몽' -

글/2학년 정지윤

### #1 들어가며

일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羅生門, 1950作)은 일본의 천재작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단편소설 '덤불 속(1915作)'을 원작으로 한다. 흑백으로 제작된 범죄 미스터리 영화는 사무라이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작된다. 사건이 벌어진 배경은 녹음이 우거진 숲속. 사무라이 타케히로가 말을 타고 자신의 아내 마사고와 함께 오전의 숲속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늘 속에서 낮잠을 자던 산적 타조마루는 슬쩍 마사고의 예쁜 얼굴을 보고는 그녀를 차지할 속셈으로 그들 앞에 나타난다. 속임수를 써서 타케히로를 포박하고, 타조마루는 마사고를 겁탈한다. 오후에 그 숲속에 들어선 나뭇꾼은 사무라이 타케히로의 가슴에 칼이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청에 신고한다. 곧 타조마루는 체포되고, 행방이 묘연했던 마사고도 불러와 관청에서 심문이 벌어진다. 관청 관리는 이 일의 전모를 파헤치려 하지만 진실이 엇갈려 더욱 미궁에 빠져든다.

### #2 엇갈린 진실들

- 관청관리의 물음에 대한 나무꾼 이야기(최초 사체 발견자)  
 냇산 덩굴 속에서 단칼에 베인 시체를 발견한다. 시체 옆에는 밧줄 한 가닥과 빛이 떨어져 있다.

- 관청관리의 물음에 대한 나그네 스님의 이야기(사건이전 목격자)  
 시체는 낮에 본 일행이 맞다. 사내와 말탄 여자, 사내는 칼을 차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었다.

- 관청관리의 물음에 대한 나졸의 이야기(용의자 검거자)  
 그가 붙잡은 놈은 타조마루라는 꽤 이름이 알려진 도적이다. 타조마루는 남달리 계집을 밝힌다고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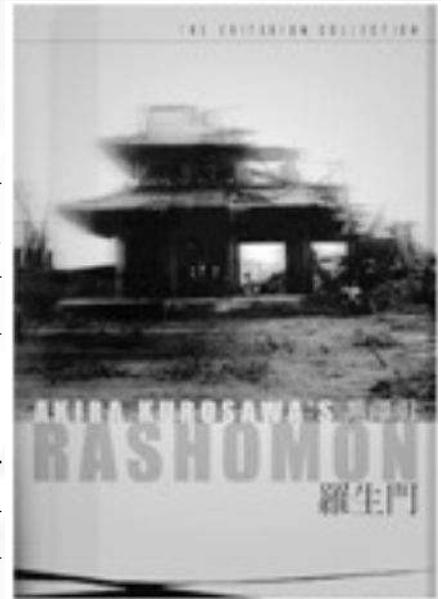


Figure 1. 1950년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 영화 포스터.

첫 장면은 전란이 난무하는 헤이안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역수같은 폭우가 쏟아지는 '라쇼몽'의 처마 밑에서 나뭇꾼과 스님이 '모르겠어. 아무래도 모르겠어'라며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있다. 잠시 비를 피하러 그곳에 들른 한 남자가 그 소리를 듣고 궁금해 한다. 이들은 이 남자를 상대로 최근에 그 마을에 있었던 기묘한 사건을 들려준다.

다. 잡았을 때, 칼과 활, 화살을 가지고 있었다.

#### - 타조마루의 자백

그들 일행을 덩불 속으로 유인해, 사내는 삼나무에 결박하고, 여자를 욕보이고 나니, 갑자기 여자를 아내로 들이고 싶어, 난자를 풀어주고 정식으로 싸운다. 23합만에 사내가 죽었지만, 여자는 달아나고 없었다.

#### - 사건 이후 절에 근신해 있다가 돌아온 마사고의 참회

욕을 당하고 나서 정신을 잃고 깨어보니 목여 있는 남편과 나뭇잎에 없었다. 남편은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노려봤다. 그래서 나는 같이 죽자며 남편을 먼저 단도로 찔렀지만,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했다.

#### - 무당의 입을 빌린 사령(타케히로) 이야기

욕을 당한 아내는 도적의 설득에 넘어가더니, 규기야 남편을 죽여달라고 애원한다. 그러자 도적도 더 이상 못 참고, 나에게 아내를 죽일지 살릴지 선택하라고 물었다. 그 와중에 아내는 달아났다. 도적은 물건을 챙기고 나서 나를 풀어줬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Figure 2. 1950년 당시 포스터. 도적 타조마루(왼쪽 위), 아내 마사고(오른쪽 위), 남편 타케히로(오른쪽 아래)의 모습이 담겨있다.

### #3. 그 날 덩불속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부부가 길을 지나던 중 강도가 나타나 여자를 범했고, 남자를 죽였다. 범인은 이미 잡혀 와 재판관 앞에서 자신이 범인임을 시인하고 있다. 살인사건 자체가 이러한 단순한 도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사건 주체들의 목소리는 독자로 하여금 복잡한 인지적 해석을 요한다. 왜일까?

그것은 그들이 사건에 대해 회고하는 동시에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건에 대하여 회고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기억의 수정을 낳기에 완벽할 수 없다. 여기에 '살인사건'이라는 강렬한 경험은 주체에게 자신을 그 사건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할 필요성을 부과하며 인지체계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덩불 속」의 주요 인물 3인(타케히로, 마사고, 타조마루)은 무의식적으로 사건 기억을 수정했다고 보기에는 오차범위가 지나치는 이야기들을 주장하고 있으며, 관여도가 너무 깊어 사건에서 유리될 가능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들은 고정되어있는 사건의 도식 - 강도가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범했고, 모두 함께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죽임을 당했다. 속에서 자신의 일을 고백하는 동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재구성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3인의 거짓된 진술은 다분히 의식적인 사건왜곡의 산물이다. 동시에 그들의 내부에는 의식화시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런 거짓 증언으로 이어지는 과정, 자동화 과정이 방어기제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3인의 이러한 고백적 진술은 거짓말이지만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일 뿐, 사건의 진상이 따로 밝혀졌기 때문은 아니다.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대비 개념인 거짓말을 규정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이러니해 보일는지도 모른다. 원작자 아쿠타카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작품에 그려내면서 '무엇이 진실인가'라는 주제 보다는 '왜 그들이 거짓을 말해야 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았을까.

#### #4. 사면받기

앞서 살펴본 세 명의 주요 인물들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사면을 바라고 있다. 그 도구로 그들이 차용한 것은 '죽음에 접근하는 것'이다. 주목해 볼 것은 이렇게 사면을 얻어내는 방법에서 역시 주요 인물들의 거짓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먼저 타조마루는 고백에서 처형을 면해달라는 말 대신 자신에게 죄가 있으니 죽여 달라고 한다.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만은 그에게 있어 '죄'는 사람을 죽인 것이라기보다는 '남자답지도, 도적답지도 못한 것이었고 그러한 죄를 사면받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가볍게 여기고 있는 살인죄를 핑계로 "남자답게 죽을 것"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그가 "23합만에" 타케히로를 무찔렀으며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언급하는 대목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진짜 치열한 싸움에서 몇 번이나 칼을 마주쳤는지를 셈할 수 있는 이는 없을 것이다. 타조마루가 사후의 재판장면에서 죽음에 가까워지려하고 있다면 마사고는 살인상황에서 자결을 시도한 것으로 사면 받고자 한다. 그녀에게 있어서의 죄는 이중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표면적 의미에서의 죄는 자신의 정절을 잃은 것이고, 내부적 의미에서의 죄는 정절을 잃은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였다. 하나가 진실이라면 다른 하나는 거짓인 이 두 죄목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결국 마사고는 자신의 정절을 잃은 것에 대하여 자신을 벌한다면 그 이면의 죄까지도 면하게 될 수 있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벌하려고 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악한에 의해 순결성을 잃은 피해자라는 자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죽은 타케히로는 그의 진술 속에서 완전한 피해자로서 놓여있지만 죽음만은 스스로 택한 존재로 남았다. 그에게 있어서의 면죄는 정숙한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타인에게 죽임당한 무능한 남자라는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아내에게 정숙하지 못한 배신자라는 혐의를 지우고 비탄에 빠져 자신의 힘으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사면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 #5. 덩불 밖, 2층 강의실에서.

문학은 그 자체로 허구이다. 허구적 현실에서 삶의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이 작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했을 때, 아쿠타카와 류노스케의 「덤불 속」은 '삶 속에서의 거짓말에 대한 허구적 소고'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새롭다. 사건의 진실은 결코 밝혀질 수 없는 것으로 남는다. 작중 인물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의 해석만을 말할 뿐 그와 상반되는 다른 이의 진술은 대면조차 하지 않는다. 부정, 혹은 침언 등의 개입은 일체 시도조차 하지 않고, 만일 작가가 의도한 것이 재판현장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작중 관청관리는 주요인물들을 서로 대면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진실보다는 거짓으로 채워졌으며 누구도 타인의 거짓을 들여다보지 않는 평행한 선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에 더 가까운 것이다. 작가는 진실을 밝히는 논리적 구조가 적합할 극적인 사건에 이런 평행선의 조합을 대입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낯설음을 유발한다. 결국 독자는 진실을 갈구함과 동시에 작중 인물들이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는 까닭에 대하여 고찰하게 되는 데에 이 작품의 묘미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덩불 밖의 나는 이제 2학년이 되었다. 반지하 1학년 옛 강의실에서 무려 한 층, 계단을 올라왔건만 여전히 아침엔 출고 점심에도 출고 할 일은 언제나 많다. 나는 이 영화, '라쇼몽'을 대학교 2학년 때 보고 지난 겨울 방학에 다시 한 번 보았다. 그 때의 나는 1학년 인문대학에서 막 2학년이 되어 심리학 전공을 승인받은 첫 학기를 맞이하고 있었고 인간 본연의 모호함과 개인 자아의 입체성에 대해 깊게 빠져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한다. 나는 과연, 그 어떤 거짓말쟁이가 될 필요도 없는,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간염내과 수업에서 김신우 교수님은 말씀하셨다. 내위한 환자가 왜 그러는지 '자기도 몰라서' 친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있다고, 또, 부작용을 미리 말하면 '설명', 부작용 증상이 나타난 후에 말하면 '변명'이 되는 거라고. 기분이 अच्छ했다. 더이상 평행한 선들로 이루어진 삶을 살면 안되는 거다. 질병이 발생하는 기전은 너무나 여러가지의 길이 있고, history taking 때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진다. 의사는 그 앞에서 가용할만한 정보를 취합하고, 가능한 이론에 대해 재단, 조심스런 추론을 도출해낸다. 그러는 동시에 지금 이 상황을 타계할 가장 적합한 방안에 대해 쓰여진 메뉴얼을 넘긴다. 물론 머릿속에서. 책장이 착착 넘어가고 카테고리가 만들어진다면 성공, 그렇지 못하면 변명만들기를 예비해 두어야 할테지.

진료실이라는 덩불 속, 환자 몸이라는 덩불 속에서 나는—그리고 환자는 대질심문을 기다리는 타조 마루이자 마사고, 타케히로가 되어보는 것이다. 매주 시험을 치를 때 처럼 가나다, 가나, 나라, 라, 가나다라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련만, 치료 현장을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주관식 답안을 써 내려가는 막막함으로) 어림פות이 짐작해 볼 따름이다.

# 타란티노 이야기

글/ 2학년 이 재 혁

폭력도 예술이라는 장르로 승화될 수 있을까?

맨 처음 타란티노의 영화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입니다.

데뷔작 저수지의 개들(Reservoir Dogs) 1992, 대표작 펄프픽션(Pulp Fiction) 1994, 그리고 킬빌(Kill Bill) Vol 1(2003) Vol 2(2004) 등을 통해 자신만의 색채를 확고히 유지한채 B급문화의 정서를 예술로 승화하고, 또한 그 자체로 90년대 영화 스타일을 창조한 살아있는 천재 감독으로 불리는 타란티노, 하지만 가끔은 그 예술성이라는 것이 작품을 해석하기 어렵게 합니다. 여기서는 타란티노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조심스레(?) 추측하고 때로는 난해한 그의 작품들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초기 작품들 위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 A. 오마주

오마주는 영화에서 존경의 표시로 다른 작품의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하는 것을 이르는 용어입니다. 타란티노의 작품들은 유별나게 오마주라는 기법이 많이 쓰입니다. 심지어 어떤 비평가는 Kill Bill은 오마주의 향연이라 했고 실제로 영화를 보다보면 어디선가 본듯했던 친숙한 상황이 많이 지나 갑니다.

펄프픽션에서의 존 트라볼트(극중역 빈센트 베가)와 우마서먼(극중역 미아)이 주말밤에 추는 트위스트는 영화사에 남을 대표적 장면으로서 존 트라볼타 주연의 토요일 밤의 열기(1977)를 차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영화 저수지의 개에서 나왔던 이 장면은 쿠엔틴이 존경한 오우삼감독의 첩혈쌍용중 한 장면은 차용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화 킬빌에서 주인공이 복수심을 느낄 때 흐르던 음악은 한국인 감독 정창화의 철인(죽음의 다섯 손가락)의 OST를 차용했습니다.(영화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혹시나 쿠엔틴의 영화를 볼때 찾아볼 것을 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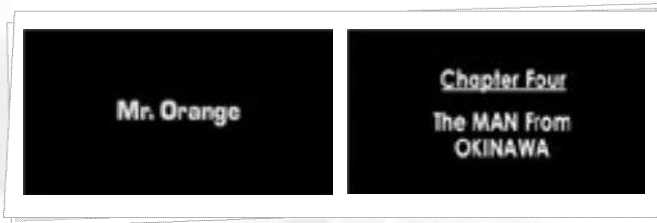
쿠엔틴의 오마주들은 타란티노다운 자신만의 색채를 완성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른 영화에서도 볼직한 장면들이 그의 영화에서 나와도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있는것은 쿠엔틴만의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게 하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영화광이었던 쿠엔틴에게 있어서는 오마주를 차용함으로써 자신이 존경한 영화감독들에게 존경을 표현함과 더불어서 장면을 새롭게 구성해 자신의 표현하고자 했던 바를 관중들에게 던지시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 B. 캐릭터 & 유니버스



쿠엔틴의 영화에서 또한 중요한 요소들로는 개성 강한 캐릭터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독특한 장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영화는 큰 줄거리로 이어가며 부분부분의 사건, 인물들이 유니버스식으로 끼여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사건의 전환을 알려주는 화면이 나오면 지금의 사건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로운 사건이 진행되는 식으로 말입니다. 혹자는 가장 잘 만들어진 영화는 관람자가 보고있는 순간 영화란걸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영화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쿠엔틴은 그 형식에서 일부로 벗어납니다. 그렇게 하여서 관람자들에게 환기를 가하고 캐릭터에게 더 힘을 실어줍니다.

타란티노의 영화에서 나왔던 캐릭터들은 한결같이 개성이 강하고 쉽사리 추측할 수 없습니다.

필프픽션에서 철새없이 떠돌고 살인시에 에스겔의 한구절을 읊던 사무엘 L. 잭슨 (극중역 줄스 윈필드)-좌, 과 카페에서 카페와 은행중 어디가 털기쉬운지 논쟁을 하다 그 카페를 털던 랜스 & 조디 커플), 저수지의 개들에서 미국문화인 팀 에대한 자신의 주관을 설화하고 역시나 철새없이 떠돌던 Steve

Buscemi(극중역 미스터 핑크) 그리고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피부성이기 된 채 연기하던 잠복경찰 Tim Roth(극중역 미스터 오렌지)과 그에게 유대감을 느껴서 팀 전체를 파멸로 이끌어가던 Harvey



Keitel(극중역 하비 케이틀), 이런 개성이 많은 캐릭터들을 배치하여 전혀 화합할것 같지 않던 줄거리를 줄거리답게 이끌어가는 것도 쿠엔틴의 재능입니다. 대치되는 상황으로 긴장감을 유발하고 가끔 그 장면이 과묵으로 잇닿게 하는것은 관객자에게 긴장의 끈을 잠시도 놓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쿠엔틴의 또 하나의 면을 엿볼 수 있는데, 바로 수용이라는 측면입니다. 쿠엔틴의 영화에서는 B급영화의 이곳저곳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을 수용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입니다.-이것은 오마주의 연장선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적들은 가끔 소품들로 보여지곤 합니다.

### C.기타 장치

데뷔작 펄프픽션에서 많이 드러난 햄버거가 그 흔적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쿠엔틴의 햄버거를 통해서 여러 문화와 취향들을 수용했다는 무언의 암시를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제목 펄프픽션 자체가 '잡동사니'를 뜻하는 말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타란티노는 영화 곳곳에 장치를 많이 설치해 두었습니다. 펄프픽션에서 부치가 곤란한 상황에서 탈출할 때 사용한 사무라이 검은 Kill Bill에서 우마서먼이 사용하는 무기로도 등장합니다. 또한 펄프픽션에서 부치가 구매했던 Red Apple라는 가상의 담배는 영화 킬빌에서 우마서먼이 귀국할 때 공항에 포스터로 붙어있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킬빌 Vol.1에서는 우마서먼의 극중명이 알려지지 않고(의도적으로 호명할 때 경고음을 넣어 못들리게 합니다) Vol.2에 가서야 밝혀진다는 점등은 관객에게 주의를 요하게 하고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돌려서 표출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단순히 햄버거라는 소품으로 문화수용이라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다분히 비약적인 해석이 없지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마 작가가 표현한 세계관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폭력도 예술이라는 장르로 승화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쿠엔틴다운 영화 그리고 감독의 색깔을 조금이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가능성을 보았다." 입니다. 예술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 합니다. 또한 저급하다, 고급하다, 라는 것은 정의가 모호한 말들입니다. 물론 기존의 '고

전이나 고급스러운 문화들을 평화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고급한 문화들이 널리 퍼져있고 또한 저급 문화의 대표적 아이콘인 '폭력'만으로 예술이라는 장르에 범접하기는 어려운건 사실이니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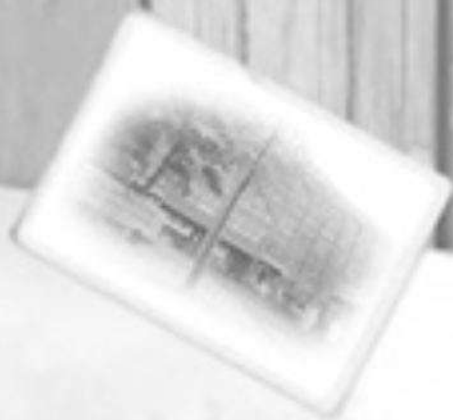
하지만 그 '폭력'이 그것 자체만이 주가 아니라 일정한 틀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수단-영화이니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건 자명하니깐요-이 되었을때 우리는 완성된 작품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작품은 좋은 평가도 받고 예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있기에 더욱 기대되는 천재 쿠엔틴은 이 가능성을 좀더 실현하고자 지금도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 Section VI

## 여행 / 여기

- 모로코 여행기
- 교토여행기
- 내 마음대로 뽑은 동성로에서 먹을만한 곳





# 모로코 여행기 : 색의 향연

글 / 2학년 김찬근

2012년 12월 31일 드디어 모로코에 도착했다.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한국에서 비행기가 뜰 수 있을 까를 걱정하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모로코에 도착하니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맞아준다. '모로코'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화로 유명해진 카사블랑카를 품고 있는 나라이다. 지리상으로는 북아프리카 이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느낌과는 사뭇 다르다. 끝없는 모래가 펼쳐진 갈색 빛의 향연 사하라 사막이 있는 곳. 스페인의 향을 간직한 푸른색의 해안가를 가진 곳. 하얀빛이 눈부신 얼음을 간직한 아틀라스 산맥. 드넓은 초원을 가진 곳 까지. 색의향연인 모로코로 떠나보자.

## 1. 마라케시



### • 모로코 스타일

카사블랑카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어둡고 조금 음산한 느낌까지 났다. 공항 곳곳에는 히잡을 쓴 여성들이 눈에 띈다. 우리의 첫 번째 행선지인 마라케시로 가기 위해선 열차를 한번 갈아타야한다. 모로코에서는 기차역이 GARE DE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프랑스어로 기차역을 뜻한다고 한다. 그리고 카페마다 의자들이 가게 밖으로 나와 있었고, 길가를 향해 배치되어있다. 이것 역시 프랑스 스타일이라고 한다. 앉아있는 사람이 죄다 남자인 점만 다를 뿐. 이처럼 프랑스의 흔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1960년대까지 프랑스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모로코에서는 베르베르어, 아랍어, 스페인어, 불어, 영어(상인들은 정말 잘한다.) 등 여러 가지 언어가 많이 쓰인다. 스페인과 맞닿은 북쪽 해안가 마을에서는 스페인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 사막에 가까워지는 마을이나 시골에서는 모로코의 원주민어 베르베르어가 많이 쓰인다. 하지만 지금도 스페인어와 불어를 잘 구분 못하겠다. 어찌 되었든 모로코의 공용어는 아랍어!



### 아프리카 택시가 벤츠? 설마?

역에 도착한 우리는 택시를 타고 사흘 동안 목을 긁인 제말프 광장으로 가야했다. 이제부터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느낌이다. 수동적인 대중교통이 아닌 소통을 해야 하는 택시를 타니까 말이다. 모로코에서 택시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 한다면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무궁무진 할 것이다. 이 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 택시가 존재한다. 첫 번째로 뽀뽀라고 불리는 'petit taxi'라는 작은 소형 택시이다. 도시마다 색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다양하다. 마라케시에서 볼 수 있는 택시는 노란색이다. 우리나라 자동차중에 프라이드 크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주로 이용한다. 두 번째로는 그랑택시라고 불리는 벤츠의 'grand taxi'이다. 주로 장거리로 이동하는 7인승(?) 택시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동그란 위안에 세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의 상징인 그 택시가 맞다. 남자의 로망, 자동차의 로망 벤츠! 그런데 이 작은 세단에 운전자를 포함해서 7명이 탄다. 이 택시를 타고 6시간을 날렸던 적이 있다. 참고로 모든 그랑택시는 1970년식이다. (무지하게 오래되어서 차문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 엉덩이가 부서질 것 같았던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흘러나온다.

여기서 잠시 모로코에서 택시를 탈 때 팁을 설명하고자 한다. 택시를 탈 때 관광의 나라답게 미터기로는 거의 가지 않는다. 차문을 열고 '미터 오케이?'라고 말하면 열에 아홉은 손을 절레절레 흔들고 간다. 아니 열에 열은 그럴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격도 모르고 웬지 바가지를 씌울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 방법이 있다. 그들이 부르는 가격의 절반이면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역에서 목적지까지 40디르함(1디르함=150원)이라고 부르면 20디르함 정도에 가면 좋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 이 거리를 미터기를 켜고 가봤는데, 12디르함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 뭐 이 정도는 기분 좋게 관광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어차피 한국보단 훨씬 저렴한 택시비니까 말이다.



### 모로코 버전 납대문 시장

우여곡절 끝에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다. 숙소를 잡고 광장으로 나왔다. 마라케시는 광장과 야시장이 유명하다. 아침엔 정말 한적한데 말이다. 밤이 되면 주변에는 온통 사람, 소음, 연기, 음악들이 가득하다. 피리를 불며 코브라탕 노는 사람, 공연하는 사람, 아바위하는 사람까지.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사람들 사진을 마음대로 찍을 수가 없다! 사진을 찍으면 보통 20 디르хам을 내야한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같이 간 일행의 목에 뱀을 둘러놓고 웃으면서 "헤이, 테이크 어 픽처! 테이크 어 픽처!"를 외친다. 그렇다. 순진하게 이 말을 듣고 신나서 사진을 찍으면 고스란히 돈을 내야한다. 이러한 사람 여럿 봤다. 하지만 우리는 인터넷 제국 한국인이 아닌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넘어갔다. 광장에서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재래시장 음식점처럼 의자와 테이블이 펼쳐져 있다. 뼈끼들 중 열에 아홉은 우리에게 "오하이오"를 외친다. 거의 우리를 일본인으로 본다. 너무 스키니 진을 입었나, 아니면 안경이 너무 동그라서 그런가?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두유 노 강 납스타일?" 싸이가 새삼 위대하게 느껴진다. 그래도 나름 아프리카 지역인데 길거리에서 강납스타일 노래가 나온다니 정말 신기하다. 참고로 라디오에서도 나오는 것도 들었다.



### ❖ 휴지는 없어요, 종이만 있을 뿐

모로코의 특이한 점 중에서 하나는 휴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휴지 대신 돌돌 말린 종이가 유리컵에 꽂혀있다. 이 곳은 휴지 대용으로 종이가 쓰이는데,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나누어주던 가정통신문 재질이다. 물티슈는 당신이 상상한대로 종이에 물을 뿌려준 것. 물론 이 나라에 휴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로컬음식점이 아닌 호텔이나 좋은 레스토랑에는 휴지가 놓여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있는데 바로 민트차이다. 모로코 사람들은 물보다 민트차를 더 많이 마신다. 민트 잎에 설탕을 듬뿍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간단하게 완성된다. 맛은 우리가 흔히 먹는 민트 아이스크림을 따뜻한 차로 만들어 마신다고 생각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모로코에서 화장실은 유료이기 때문에 잔돈을 항상 들고 다녀야 한다.





### ❖ 도심속의 오아시스 마조렐 정원

모로코에는 도시마다 구시가지라고 불리는 old medina와 신시가지라고 불리는 medina(혹은 downtown)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시가지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로컬의 향기를 잘 간직한 사람냄새가 물씬 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신시가지는 발달된 도시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마라케시의 신시가지라고 불리는 gueliz에는 쇼핑몰, 술집, 자동차 전시장 등등 서구화된 건물들이 많이 보인다. 오늘 방문예정인 마조렐 정원은 마라케시의 소음, 상인, 먼지 날리는 거리로부터 조금은 멀리 떨어진 신시가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이 정원은 모로코가 아직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1924년, 프랑스에서 건너온 예술가 자크 마조렐이 설계하였다고 한다. 1947년에 사람들에게 공개된 이후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모로코의 명소중 하나이다. 우리도 이십 여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매연에 찌든 우리를 정화시켜주는 식물, 나무, 꽃들이 정말 많았다. 그리고 아프리카답게 여러 종류의 선인장들도 있었다. 예쁜 색의 화분들도 많았고, 산책로도 예쁘게 꾸며져 있었다. 개인적으로 썩한 파란색이 무척이나 예뻐는데, 알고 보니 이 밝은 파란색은 '마조렐 블루(bleu Majorelle)'라는 이름까지 얻은 유명한 색이었다. 마라케시에 왔으면 꼭 들러야 할 곳!



## 2. 에샤웨이라

### ❖ 요새의 도시

에샤웨이라에 도착하자 강한 바람이 우리를 제일 먼저 맞이해준다. 이 곳은 마치 바다위에 떠있는 하

나의 커다란 요새 같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과 하얀 페인트가 벗겨진 벽은 세월의 흔적을 내비치며 회색빛이 감돌고 있다. 광장의 길을 따라 걷다보니 어느새 성벽의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다. 바위사이에 부딪히는 하얀 거품은 마치 카푸치노에 한 움큼 떨어뜨린 우유 거품 같다. 고층건물들이 즐비한 21세기에 이곳은 여전히 시간이 멈춘 채 18세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영국에서 들어왔다고 전해지는 청동대포들은 대서양을 향해서 성벽 사이사이 마다 포문을 열어 놓고 있었다.



#### ❖ 고양이들의 천국

모로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고양이이다. 한국의 경우 개를 많이 볼 수 있듯이 모로코에서는 어디를 가나 고양이를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는데, 이 고양이들은 사진을 찍으려 다가가도 절대로 도망가는 법이 없다. 초롱초롱한 눈을 치켜뜨고 우리를 바라본다. 모로코에서는 해안가에 마을이 많아서 인지 해산물들을 많이 먹는데, 사람들이 가게에서 음식을 먹다 바닥에 내려놓으면 어디서 냄새를 맡고 찾아왔는지 고양이들이 모여든다. 자동차 위에도, 담벼락 위에도, 공사장 위에도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모든 곳에 고양이들이 함께한다.

#### ❖ 모로코에는 인력거꾼이 있다 없다?

모로코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나라이다. 그랑택시를 보고 있자니 1980년대 같기도 하고, 젊은 이들이 많이 쓰는 삼성의 갤럭시S를 보자니 현재 같기도 하다. 성벽 안에 있는 올드 메디나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인력거꾼이다. 가방을 한보따리 메고 있는 관광객이 성벽 앞에 다다르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수레를 끄는 아저씨가 등장한다. 그리고는 웃으며 짐을 수레에 내려놓고 예약한 호텔로 가자고 한다. 대부분 이런 식이다. 양해를 구하지 않고 뭐든지 일단 해 놓고 본다. 그래서 확실하게 거절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마라케시의 야시장에서처럼.

## 3. 사하라 사막



## ❖ 사막으로 출발

오늘은 사하라 사막투어를 시작하는 날! 2박3일의 일정이다. 첫날은 사막으로 가는 길 중간의 마을 호텔에서 투숙하고, 둘째 날에는 레알 사막에서 잠을 청할 예정이다. 여기서 상식하나! 사하라란 뜻은 사막이란 뜻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하라 사막 이러는데, 이 말 뜻은 사막중의 사막이란 뜻이란다. 벌써부터 떨린다. 하지만 값진 것을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한 법. 사막입구까지 가는 길이 무척이나 험난하고 멀다. 여행의 10중에 9는 미니벤을 타고 있을 정도로 엄청 이동시간이 길지만 그래도 값어치가 충분한 여행이다. 사막투어는 팀으로 이동하는데, 우리 팀은 16-17명정도 되었고, 우리 벤에는 10명이 탔다. 가는 길 중간중간의 포토 존에서 내려 사진을 찍고, 잠시 쉬었다 가는 방식이다.



## ❖ 황토색의 고운 빛의 자태

드디어 황토색의 고운 자태를 자랑하는 사막이 보인다. 마치 첫사랑을 만날 것처럼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 우선 우리 팀은 사막입구의 한 호텔에 잠시 들렀다. 그곳에서 짐을 정리하고 귀여운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멀리서 볼 때에는 몰랐는데 막상 낙타를 타보니 생각보다 높아서 놀랐다. 낙타는 세 무리로 나누어져 있었고, 무리마다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낙타몰이꾼들이 "샤~"하고 외치면 낙타들은 미리 약속했다는 듯이 일제히 멈춘다. 해질 무렵에 낙타를 타기 시작해서 한 시간이 지났을까. 땅거미가 내려오기 시작한다. 점점 붉은 기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라색의 빛깔이 하늘을 뒤덮으며 사라진다.

### ❖ 별이 빛나는 밤에

하늘에 별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한다. 마치 흙속의 진주처럼 북쪽의 북극성이 먼저 고개를 내민다. 그리고 오리온 자리의 일부만이 눈에 들어온다. 이때 재밌던 점은 머리위에 별이 떠있는 것이 아니라 시선의 30도 위정도로 약간 앞쪽에서 보인다는 것이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저 멀리서 보이는 도시의 모든 빛들은 어둠속으로 사라져 간다. 별들은 점점 늘어나더니 어느 순간 밤하늘에 별들이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되어버렸다. 너무 아름다워서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검정도화지에 소금한통을 쏟은 것처럼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영역이 밝은 별들이 빼곡히 차있다. 지금도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하면 가슴이 떨린다.

## 4. 페즈



### ❖ 멀고도 멀다

사막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야 했다. 리싸니 버스정류장에서 사막에서 만났던 중국인 학생들과 만나기로 되어있었다. 원래는 4명이 페즈까지 가기로 했었는데 두 명의 친구들이 추가 되어 도합 6명에서 같이 가기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틀에 박히지 않는 갑작스러운 일정의 변경이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6시간 이상의 장거리 이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랑 택시를 타야 했다. 그런데 이 그랑 택시에 우린 기사까지 합쳐서 7명이 탄다. 승합차도 아닌 승용차에 어떻게 7명이 탑승하나 어리둥절했지만, 조수석에 2명이 앉음으로써 간단히 해결되어 버렸다.



### ❖ 가죽공장 테너리

페즈는 TV프로그램에도 자주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가장 눈 여겨 보아야 할 곳은 테너리라는 가죽을 씻고, 염색하는 곳이다. 이 곳은 여러 건물들로 둘러 쌓여있고, 그 가운데 공간에 작업을 하는 구덩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가죽제품들을 판매하는 건물에 들어가 밖을 내다보아야 한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있는 곳인데 냄새가 너무 역해서 민트 잎을 코에 대고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모로코에 적응이 된 듯 생각보다 냄새가 독하지 않았다. 내부를 살펴보면 작은 구덩이 같은 것이 여러 개 있었는데, 한 쪽에서는 암모니아 같은 표백제를 이용해 섬유와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가죽을 부드럽게 만든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形形色색의 여러 가지 색으로 염색을 한다.

### ❖ 상인들의 수법

여기서 모로코 상인들의 수법을 소개하겠다. 처음에 이들은 "안사도 괜찮아. 그냥 보기만해" 라고 웃으며 말한다.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이 다녀왔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 예를 들어 스카프를 파는 곳이라면 우선 자수를 놓는 광경을 보여주고, 사진을 찍어준다. 그리고 스카프를 정봉 모로코 인들처럼 씌워주고 다시 사진을 찍어준다. 그러면서 다른 것도 씌워주고...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더 저렴한 것도 보여주고, 민트차도 가져다준다. 그 다음에는 학생가격에 해준다고 우리를 설득한다. 사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설 틈 없이 친절하게 꼬신다. 나도 결국 꼬임에 넘어가 65디르함을 주고 스카프를 샀다. 하지만 다른 가게에서 같은 물건을 30 디르함에 파는 것을 보고 마음을 아파해야 했다.

## 5. 웨프사우엔



### ❖ 지중해의 물빛을 담은 마을

웨프사우엔은 모로코의 북쪽지역에 위치한 산간 마을이다. 이 곳은 흔히 모로코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예쁜 곳이다. 그래서 누구든 사진기만 가져다 대도 작품 사진이 나온다. 화이트와 인디고 블루의 대비가 이 마을을 더 빛나게 하는데, 마치 또 다른 느낌의 스페인에 온 기분이다.

쉐프샤우엔은 베르베르어로 '빨대를 보라(샤우엔=빨) 리는 뜻이다. 그래서 마을 뒤편에 두 개의 커다란 빨 같은 봉우리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재미있었던 사실은 원래 이 마을은 이슬람 전통색인 초록색을 품은 마을 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의 푸른색은 1930년대에 건너온 유대인들 덕분이라고 한다.

## 6. 아실라



### ❖ 태권소녀가 있어서 더욱 빛나는 해안마을

모래사장을 거닐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반신반의하며 다가가 보았는데 알고 보니 "태권!" 이라는 소리였다. 마라케쉬에 있을 때 호텔주인이 말했던 모로코에 일하는 한국인 두 명이 바로 이 곳에 있었던 것이다. 1974년 4월에 태권도 사범 두 분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그 규모가 커져서, 도장도 새로 만들었고, 매년 방학 때 마다 대학생 봉사단들도 와서 태권도뿐만 아니라 공부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한다. 거의 열흘 만에 만난 한국인이어서 그런지 기분이 묘했다. 도장에서는 푹푹푹한 모로코 아이들은 태권도라고 적힌 도복을 입고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 7. 카사블랑카



### ❖ 모로코엔 지상열차가 있다? 없다?

모로코의 최대도시인 바로 카사블랑카이다. 수도 라바트가 있지만 경제, 행정,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이 카사블랑카이기 때문이다. 이 곳은 서울과 비슷하다. 극장, 백화점, 식당, 전철 등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이전에 다녔던 마을들은 완전히 다른 나라인 것처럼 카사블랑카는 세련되고 부유한 도시이다. 예를 들어 여기서 가장 많이 보이는 SUV차량중 하나가 레인지로버일정도(승용차로 따지면 벤츠)로 말이다. 그리고 이 곳에 지상열차가 12월에 개통했다. 우리나라면 상상도 못했을 도심을 관통하는 형태의 지상철이다. 아직 개통하지 않은 구간이 여럿 보이지만, 모로코의 또 하나의 명물이 될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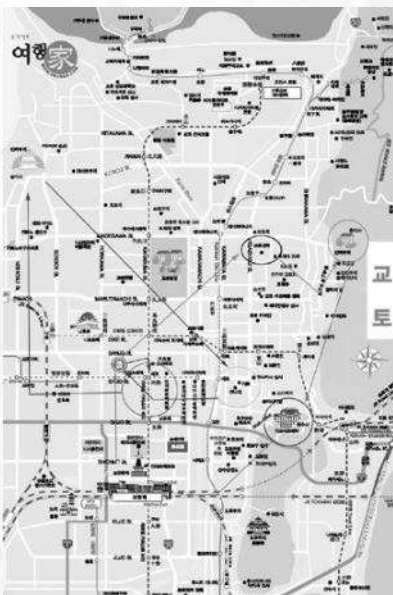
#### ❖ 모로코엔 스타벅스가 있다? 없다?

과연 모로코에는 스타벅스가 있을까 없을까? 민트티를 물처럼 마시는 나라인데.. 정답은 '있다' 이다. 카사블랑카 최대 쇼핑몰인 모로코몰에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스타벅스가 있다. 히잡을 쓴 여성들, 이슬람 전통의상을 입은 아저씨들,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붐비는 스타벅스의 느낌은 새로웠다. 그리고 모로코에서 놀라웠던 사실은 바로 삼성의 위력 이였다. 쇼핑몰에 있는 삼성관과 LG관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인산인해였다. 모로코에서 TV나 모니터는 90%이상 삼성과 LG라고 보면 될 정도로 정말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입국심사 할 때 직원이 '삼성과 LG중에 어느 제품이 더 좋으냐?'라고 물었을 정도이니 말이다.

# 길따라 마음 따라 자유로운 여행기 NO.1

글/2학년 이재혁

역사의 숨결이 곳곳에 서린,  
2013년의 교토를 가다.



✦ 2013년 2월 26일 ~ 27일

• 다녀온곳

-- 첫째날

-- 둘째날



## 첫째날

### #.1 교토 대학

교토 대학은 일본 교토[京都] 사쿄구[左京區]에 있는 국립 종합대학교다.

일본에서 두 번째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략)...교토 대학의 전신은 1897년 설립된 교토 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이다. 설립 당시에는 이공계대학이었으나 이후 법과대학, 의과대학, 의과대학부속의원 및 부속도서관이 잇따라 세워지면서 종합대학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후략)



일본의 대학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습니다.



대학가의 모습은 별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학생들 대다수가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IPS연구로 유명한 야마나카 교수의 IPS 세포 연구소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 #.2 긴카쿠지(은각사, 金閣寺)



1482년 아시카가 바쿠후의 제 8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자신의 별장 히가시야마 전을 지은 것이 시작. 나무 울타리가 있는 참배길로 들어가 중문을 빠져 나가면 지센카이유식 정원이 보입니다. 국보인 긴카쿠 앞에 있는 긴사단, 고게쓰다이라는 이름의 모래더미가 인상적입니다. 국보인 도진사이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원 건조물입니다.



← 모래더미로 된 도경 고게쓰다이





연못을 가운데에 두고 정원을 꾸민것을 지센카이유식 정원이라 합니다.

은각사라 해서 은박이 입혀 있을 것이라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정난으로 계획은 보류되었고, 옷칠이 하였다고 합니다.

### #.3 기요미즈테라 (형누사, 清水寺)



80년에 나라에서 온 승려 엔친이 세운 사찰입니다. 기요미즈(清水)는 '성스러운 물'을 뜻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성스러운 물을 마시기 위해 찾아옵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로 돌출되어 있는 본당의 '툃마루' 기요미즈 노부타이(清水の舞台)에서는 교토 시내 경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노타키펙포에서는 물을 받아먹을 수 있는데, 왼쪽의 폭포수는 지혜, 중간은 사랑 오른쪽은 장수에 좋다고 합니다.

미즈사에서 북쪽에 있는 지온인으로 향하는 길을 히가시아마의 오솔길이라 하는데 개인적으로 평소 생각해왔던 일본의 이미지와 닮아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니넨자카 (二年坂)**

총 17단인데 2년에 걸쳐서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시화 작가 나케히사 유메지가 이 길을 즐겨 산책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넘어지면 2년안에 죽거나 수명이 줄어든다는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_-;;



(우) 기모노를 입은  
키터 인형들

(좌) 산넨자카(産寧坂)



(우) 기요미트 신치(千鶴子)



**둘째날**

**#.1 니시키시장(錦市場)**

니시키코지는 니시키텐만구에서 미부로 이어지는 약 2km의 길,

그 가운데 데라마치도리에서 나카쿠라도리



까지 약 400m가 바로 니시키 시장입니다. 폭은 약 3.2m로 양쪽에 생선, 정과물, 견어물등을 파는 140여 점포가 늘어서 있습니다.



정과물 상점 말고도 시장 곳곳에 먹거리 볼거리 등이 많았습니다.

후카 니시키점의 밀떡, 슈크림이 가득한 에그 타르트 등 지나가는 곳곳에서 맛있는 향기가 납니다.

역쪽으로 조금만 더 걸으면 일본의 캐릭터 상품샵, 옷가게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행운을 준다는 라마 사진입니다.

니시키 시장에서 다음 목적지인 킨카쿠지(금각사, 金剛寺)로 향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잘 보전된 길거리의 목조 건축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 #.2 킨카쿠지(금각사, 金峯寺)



1397년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지은 별장인 기타야마넨이 그가 죽은 뒤 로쿠온지(鹿苑寺)라는 선종 사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금박을 입힌 3층 누각의 사리전이 킨카쿠리는 명칭으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어 킨카쿠지(金峯寺)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날 교토의 날씨는 조금 흐렸습니다.

경관을 제대로 보지 못할까 걱정도 되었지만 그건 기우였습니다.

오히려 안개너머로 보이는 사찰과 정원의 모습들은 매우 신비했습니다.



(위)유달리 날발했던 사리전 위의 풍향계



각 층마다 건축양식의 시대가 다릅니다. 1층은 지와라기, 2층은 가마쿠라기, 3층은 중국 당나라 양식으로 각 시대의 양식을 독창적으로 절충했습니다. 이 가운데 2층과 3층은 옷칠을 한위에 금박을 칠했다고 합니다. (좌)



문화유적지 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외국인 못지 않게 내국인들도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고등 학생부터 나이든 어르신들까지 연령대에 상관없이 많이 있었는데, 자국의 문화유적을 아끼고 알려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 #.3 기온(祇園)



교토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시조도리에서 남쪽의 하나미코지 사이에는 특히 오래된 건물이 많았습니다. 대나무를 엮어 만든 키 낮은 울타리 너머로는 붉은색 벽으로 된 오래된 전통찻집이나, 과자 전문점, 술집등이 보이곤 합니다. 참고로 이곳은 교토를 배경으로 하는 일본 드라마에 항상 등장한다고 합니다.



해가 넘어 어스름이 푸르게 비출때 기온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삼삼오오 수다를 떠는 사람들 사진을 찍으러 여기저기 둘러보는 사람들, 느즈막하게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 하지만 곧 내린 비로 거리는 스산해졌고 사람들은 하나 둘 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간곳에는 불빛과 정적만이 돌아서 쓸쓸함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Fin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 여행이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가다보면 무엇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된 여행이라서 그런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같이 간 동기분이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전반적인, 아주 전반적인 여행에는 차질이 없긴 하였습니다.)

아는만큼 보이게 된다는 말이 있듯이, 제게는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행기를 적게됨으로서 많이 알아보고 찾아보아서 그나마 남긴 했다만 ㅎㅎ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것들을 느끼게 된 여행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니 마음으로라도 느끼자(?)라는 생각으로 더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든 더 많이 교감하려고 노력했거든요.

한 선물집에서 거리낌없이 다가와준 카츠 삼촌아저씨, 조밥집에서 우물쭈물하던 날 도와주시던 친절한 일본할머니, 호텔 로비에서 말없이 기다리시던 동물광 일본 호텔직원, 등등 말로는 통하지 못했어도 마음으로 통할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것 같습니다.

비록 지면관계상 뒷문단에 열거한 많은 사건들은 일일이 서술하지 못하고 일정 위주로 소개를 드렸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갈까말까 망설이는 그대들 그 마음 접고 지금 당장 떠나라!



# 내 마음 대로 뽑은 동성로에서 먹을 만한 곳 !!! version. 1

글 / 2학년 오정석

겨울방학동안 기숙사에서 지내다보니 먹는 게 걱정거리였다. 돌아보니 작년에 내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구로 내려오면서 한 생각은 '뭐 먹고 살까?' 였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후배님들이 제실 거라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괜찮은 식당을 추천해주고 싶어서 이 기사를 쓰게 되었다.

## 1. 약전 삼계탕

우선 내가 삼계탕을 좋아하기 때문에 삼계탕 집을 많이 가는데 대구에서 먹었던 삼계탕 중 가장 괜찮았다. 우선 기본으로 닭뿔집과 인삼주를 주고 닭의 크기도 작지 않고 적당한 크기이다. 여름철만 아니면 닭뿔집이나 인삼주를 계속 서비스 해준다. 여름철에는 한 번 밖에 주지 않는다. 메뉴는 삼계탕 두종류.



가끔 몸이 허할 때 자주 가는 곳. 가격은 11000원.

## 2. 부산인면옥

동성로에서 냉면 먹을 만한 곳이 몇 군데 없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 곳이 여기다. 냉면집은 옥수가 생명인데 옥수가 맛있었다.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할 때에는 임시 휴업 중이었다. 겨울철에는 문을 열지 않고 여름에만 장사를 한다. 여름철에 몇 번 가서 먹었는데, 맛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래된 음식점이어서 그런지 어른신들이 많았다. 대구의 더운 열기를 식혀줄만 한 몇 군데 안 되는 장소이다.



냉면 가격은 7000원 일반적인 냉면집에 비해서 조금 비싼 느낌을 받았다. 메뉴판에는 없지만 매콤한 냉면에 어울리는 만두도 팔고 있다.

### 3. 스시라스도

대구 변화를 걷다보면 유독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리는 초밥집이 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곳. 왜 사람들이 줄서서 먹나 궁금증을 유발하는 곳. 사람들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게 만드는 곳. 내부에 자리가 많이 없기도 하거니와 준비된 재료 떨어지면 장사를 접는 곳. 그래서 점심, 저녁식사 시간에 미리 와서 기다리는 곳. 분위기가 이런 것은 좁기 때문에 뭐 분위기 챙기면서 먹기에는 좀 그렇지만 한 끼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가는 곳. 나는 이곳을 적당한 가격에 신선하고 맛있는 초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커플메뉴 20000원인데, 왜 커플메뉴 일까? 세트메뉴가 아니라? 종류에 따라 가격대는 다르지만 인당 10000원정도. 포장도 가능하다.

### 4. 함지박

1학기 때 정말 학교 근처에서 맛있게 먹었던 곳이다. 얼마 전에 이음 2학년들끼리 회의도 할 겸 한번 갔는데, 그날 상당히 불친절했다. 그래서 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음식 맛은 괜찮았기 때문에 쓰기로 했다. 원래는 삭제하려고 했으나 그래도 내가 한식을 좋아하는 편이라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서 넣었다. 밥도 맛있고 반찬도 다양하고 맛도 괜찮다. 가끔 집밥이 그리울 때 가면 좋은 곳. 가격은 인당 10000원정도.



### 5. 중구청 ★★★★★

내가 가장 많이 가는 식당. 학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면 매일 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곳. 중구청에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 3200원에 영양사 누넉께서 매일 매일 새로운 메뉴를 제공해주시는 곳. 음식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 곳. 먹고 나서



는 후식도 챙겨주는 그곳. 동짓날은 관죽도 주는 정말 좋은 밥집.

대구에서 내가 씹는 최고의 밥집은 중구청!!

단점을 씹자면 늦게 가면 반찬이 없을 수 있다. 가끔은 정말 뱀 지나간다고 농담을 할 만큼 영양식이 나온다.

## 6. 녹양

생고기 파는 곳(육사시미). 밥집이 아니라 술집이다. 육사시미를 대구에서는 뭉티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음식점은 대구에서 오래 되고 유명한 곳이다. 나는 여기서 육사시미를 처음 먹어봤다. 육회는 많이 먹어봤지만 소고기를 회처럼 포를 떠서 먹어보기는 처음이었다. 고기는 매일 정해져 있는 것 같다. 고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문을 받으신다. 육사시미를 시키면 횡집처럼 밑반찬 많이 나오고 자동으로 술상을 세팅해주신다. 밥을 안 먹고 가도 배를 채울 수 있다.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육사시미는 육회처럼 양념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뭔가 모르게 씹는 맛이 남달랐다. 가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비싸지 않았다. 학교 근처에 왕거미집도 녹양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맛있는 곳이다.



가격대는 고기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메인 메뉴인 생고기는 대자가 50000원 중이 40000원이다. 세 명이 가서 중자 시키면 술안주로 괜찮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생고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밑반찬도 많이 주기 때문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

## 7. 대동조계찜

밥집이 아닌 술집이지만 양도 많고 칼국수나 밥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저녁식사겸 한 잔 하러 가기 좋은 곳이다. 음식점 이름처럼 조개랑 닭을 같이 찜해서 먹는 곳인데 맛이 괜찮아서 동성로에서는 꽤 유명하다. 저녁에 가면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동성로 중심가에서 약간 벗어난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린다. 단점은 밥집이 아니라 술집이라서 밖에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 바다음식이 그럴고 소주 한 잔 먹고 싶을 때 가는 곳.



가격은 대가 58000원, 중 48000원, 소 38000원. 소자에는 닭이 반마리 들어가고 다른 메뉴에는 한

마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먹고 나면 칼국수도 나오고 밥도 시킬 수 있어서 반주하기 좋은 곳이다. 술만 마시겠다면 小를, 밥과 같이 먹겠다면 中을 추천.

8. 삼면이 바다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보는 술집 중 한 곳인 삼면이 바다. 젊은 청년? 들이 하는 곳이라 실내에 낙서나 메뉴판에서 센스가 엿 보인다. 우선 바다에서 나는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면 일단 재료가



신선해야 음식이 맛있다. 재료도 신선하고 종업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써준다. 조용하게 술 마실 수 있는 곳은 입구만 봐도 알 수 있다. 싼 가격은 아니지만 분위기도 좋고 조개구이도 맛있다. 한 번 가게 되면 다시 한 번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편한 술집이다. 여름되기 전에 한 번 가 봐야겠다. 조개의 양에 따라 59000원, 39000원, 29000원이다. 큰 거는 안 먹어봤지만 술안주로는 중간 사이즈가 좋은 것 같다.

\* 동성로에서 괜찮은 음식점 30.

- 독다리 - 그냥 찜밥 같은 느낌의 한식집. 반찬이 많이 나온다.
- 한옥집 - 우리학교 근처에 위치한 맛집 김치 찜과 김치찌개 파는 곳.
- 개령 - 동성로에서 한식집으로 유명한 찜 분위기 좋고 깔끔한 곳.
- 태산만두 - 동양파출소 근처에 있는 만두집 만두가 유명하다.
- 영생덕 - 한약거리에 있는 중국집 튀김만두로 유명하다.
- 해방찜밥 - 노보텔 지하에 있는 한성식집. 찜은 괜찮지만 12000원이라 조금 비싼 느낌.
- 비빔밥 B2 - 기동사에서 가까운 비빔밥 의원원생 현원 할인되는 곳. 반찬도 맛있고 깔끔함.
- 봉대박스파케티 - 무난한 스파케티집 대구에서 유명한 스파케티집.
- 국밥파로 국밥 - 국밥이라고 하지만 육개장과 비슷.
  - 병글병글 식당과 비슷하다. 택시기사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
- 금곡삼계탕 - 변화가에 위치한 오래된 삼계탕집.
  - 맛은 약전삼계탕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음. 투관적인 견해.
- 병글식당 - 육개장 파는 곳. 병원근처와 228공원 근처에 있다.
- 품(하늘정원) - 조개탕 많이 하는 곳. 분위기도 좋고 맛은 보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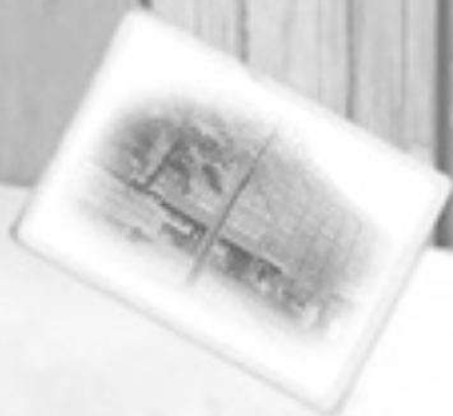
- 양계미식당 - 뭉터기 파는 곳. 학교 근처에 있고 오래된 곳. 정말 맛있다.  
속양구이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유명하고 맛있는 곳.
- B2 - 학교 근처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 햇고을 - 한식집 된장찌개, 김치찌개 등을 파는데 맛은 보통이다.
- 진류떡볶 - 낙지떡볶이 괜찮았다. 얼큰한 국물이 생각나면 가볼만 한 곳.
- 카페 플로리안 -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쇼케팅 하기 좋은 장소. 마추려면 모른 척 해두기.
- 쇼두살식당 - 국밥집 오래된 만큼 국물 맛이 괜찮았다.
- 화담, 스시테코 - 스시라스또 기다리기 싫어서 가는 곳. 맛은 보통.
- 동화반점 - 야기우동 전문점. 원조라고 하는데, 약간 느끼함.
- 산시로 - 일순라면 전문점으로 일순식 인테리어로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다.
- 풍기인삼갈비탕 - 학교 근처에 있고 가격이 저렴하고 맛도 괜찮다. 가장 많이 가는 곳.
- 마산설렁탕, 부산설렁탕 - 동성로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지만 국물이랑 고기가 맛있는 곳.
- 동로초밥 - 대구에서 오래된 초밥집. 오징어가 유명하다고 함.  
초밥 괜찮았고 회덮밥은 별로였음. 오징어에 소추가간 하기 좋은 곳.
- 경주해매국수 - 옛날식 갈국수 파는 곳. 맛있는데 찾기가 쉽지 않다.
- 라루체 - 병원 맞은편에 위치한 이탈리아 레스토랑.  
유명하고 교수님들도 자주 가시는 곳. 분위기도 좋고 맛있다.
- 된미수라상 - 된밥 생각날 때 가는 곳. 한식집
- 두남자 치킨 - 찜닭 파는 곳. 맛있다. 후식도 행겨두는 곳.
- Yellow corner - 스파게티랑 피자 파는 곳. 무난하게 먹을 만하다.
- 동성로에 있는 레스토랑 모음 - 맛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동성로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 묶어서 적어줍니다. 미트 컨테이너, 시가엔국, 허디허디 bistro hurdy gurdy, 골드라벨, man in the kitchen, 어썸(awesome), 카페르네, 민후, 테스 등등
- 덧붙여 제가 안 가봤지만 분위기 좋아 보이는 곳 - 리틀 이탈리아, 넵프 뉴욕, 인토 연인끼리 가기 좋아 보입니다. 쇼케팅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가서 쇼케팅하는 거 보면 모른 척해두는 센스~

이번 version 1 보다 내년 version 2 에는 더 알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Section VII

## 일상/참여

- 스마일 캠페인
- 라이프가드연수후기
- 조혈모세포기증
- 살과의 전쟁





# '눈이 마주치면 웃어주세요' 의대생들의 자살예방운동 스마일캠페인

글/3학년 김예은

2013년 4월 13일 오후 2시, 동성로 중앙파출소 앞에는 오랜만에 좋아진 날씨덕분인지 토요일이어서인지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했다. 그 중심지에서 피켓을 들고 사람들의 얼굴 한 명 한 명을 마주하며 이야기하는 의대생들이 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스마일캠페인'이자 메디키퍼(자살예방을 위해 모인 의대생 단체) 1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역 '스마일캠페인!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 봉사활동에 대한 후기를 적어보며 의대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스마일캠페인에 대해서도 알고자 한다.



스마일캠페인이란, 우울증이 심각해져가는 대한민국 사회를 마주하며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의대생들이, 2011년 여름 거리로 나와 시작된 캠페인이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그런데 더 심각하게는 우울증 증가율이 커져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 30분마다 한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한민국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공부하는 의대생들이 무엇이라도 할 수 없을까 고민한 끝에, 학교 안에서 책과만 씨름하는 것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한 것이다.

'눈이 마주치면 웃어주세요' 'Share your smile'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함께 각자 만든 피켓도 들고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는 활동이다. 스마일캠페인을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적힌 리플렛도 나눠드리고, 함께 웃는 사진들을 찍기도 한다.

2011년 7월에 처음 삼성역에서 시작한 이후, 서울 주요명소(명동, 청계천, 광화문 등)에서 캠페인이 진행되다가 지역으로도 퍼져 대구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메디키퍼로써 내가 참여한 대구지역 메디키퍼팀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난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처음엔 그저 지나다니는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도 어색하고 큰 소리를 쳐볼 용기도 잘 나지 않았다. 설명 드리며 나누어드려야 할 리플렛이 손에 한 가득인데 고개만 어색하게 두리번거리며 누구라도 눈을 마주치지 않아주는지 한 동안은 멍하게 서있어야 했다. 하지만 경험이 있는 팀장 언니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곧 용기를 내고, 훌쩍훌쩍 쳐다보는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건네며 밝게 이야기해보았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살예방을 위해 의대생들이 모인 메디키퍼입니다. 눈이 마주치면 웃어주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다행히도 '우와, 여기 언니오빠들 다 의대생이에요?' 흥미 반 재미 반 가지며 다가오는 고등학생 소녀들도 있었고 의대생들이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냐면서 기특하게 여기시며 설명을 들어주시는 아저씨도 계셨다. 사진을 찍고 바로 포토인쇄 해준다는 말에 신이 나서 달려오는 아이들도 있었다. 사진이 인쇄되어 나오기 전까진 학생들과 아이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었다. 파란색 옷을 입은 두 꼬마아이들은 각자에게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남자아이는 "화가요!", 여자아이는 "전 두꺼데요~ 스튜어디스랑 선생님이에요!"

하고 밝게 대답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 아이들이 계속 그 꿈을 이어가든 아니면 또 다른 꿈이 생기든, 늘 꿈을 가지고 달려 나가는 꿈나무들로 밝게 성장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공부하느라 힘들지 않니? 네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없니?"

"저희 고3이러세요! 수능대박~!!!"

순수한 고등학생 소녀들은 친구들과 자신들을 응원하는 문구를 화이트보드에 적어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고, 어떤 아버님께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수의대에 올 해 입학한 자랑스러운 딸에게 애정을 담은 메시지를 쓰고 사진을 찍어 두 장을 프린트해가셨다. 그 사진을 받은 따님에게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전해져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다.



다른 행사에서도 늘 그렇지만 스마일캠페인에서도 제일 적극적으로 반응 해주신 분들은 외국인분들이었다. 사진을 보면 우리가 혹시 몰라서 준비해 놓았던 알록달록 가발까지 쓰고 단채로 문구까지 적어 사진을 찍어주셨다.

두 시간정도 이루어진 캠페인이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중심에 서있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표정과 마주했고 웃고 밝아지자는 메시지를 말로 나 표현 못하는 만큼 밝은 표정도 더해 전달했다. '어색해서 어떻게 하지' 라는 주저함은 컷 10분 정도 안에 다 끝났던 것 같다. 다 끝난 후 찍은 사진도 보고 만났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순수하게 우리가 한 활동이 분명히 의미가 있음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작은 거리에서 몇 시간 동안 몇 명이 외치는 말이지만, 이 스마일캠페인이 지금은 전국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밝은 에너지와 메시지를 들을 것이다. 또한 나비효과라는 말처럼, 우리가 이 거리에서 외치는 말들이 결코 이 거리 안에 갇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으로 멀리까지 전달되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

눈이 마주치면 웃어달라는 말은 정말 쉬운 말이지만, 얼굴도 모른 낯선 사람들끼리는 하기 힘든 말이며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타인일 뿐이다. 의대생들이 모여 거리의 중심에서 이렇게 밝은 메시지를 외치며 행동하는 일 하나하나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에너지가 되어, 우울증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지는 씨앗으로 곳곳에 심어지기를 바란다.

## 라이프 가드 연수 후기

글/2학년 고민철

**누구에게나 힐링은 필요하다.**

하루 종일 공부에 매달려 있는 의대생들에게는 무언가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어야 한다. 모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열심히 놀아야 한다고, 아이러니하지만 나는 이 말에 깊게 공감한다. 물론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 경우 열심히 놀아야 공부가 잘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답답하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면 수영장을 찾는다. 수영장에 가서 정신없이 수영을 하다보면 안 좋았던 기억들도 잊게 되고 몸이나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이다.

수영을 좋아하다보니 수영관련 자격증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고 생활체육지도자 수영과정을 연수받아 수영지도법도 배우고 싶었다. 하지만 일 년에 한번밖에 기회가 없고 그것이 또 학기 중이기에 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게 되어서 수상인명구조요원을 알아보게 되었다. 찾아보니 운이 좋게 방학 기간에 연수 과정이 있었고 그것이 또한 동아리 활동과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었지만 수상 인명구조원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인명을 구조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 설레임반 걱정 반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즐거움과 어렵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을 가지고 연수과정을 시작하였다. 인명을 구조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실수나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기에 강습의 분위기 자체가 엄했다. 수상 인명구조원의 연수과정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데 점심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을 물속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 연습량도 많지만 저녁에 수업을 마치고 집



으로 돌아가서는 그날 배운 내용을 이론적으로 다시 공부하고 리포트를 내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체력적으로 힘들어한다. 하지만 새로운 영법과 구조 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생각했던 것처럼 역시나 흥미로웠다. 횡영과 임영, 트러젠 영법 등 이전에 몰랐던 수영 방법과 인명구조에 대한 지식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재미가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 5분이라는 긴 시간

연수중 어려운 과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영이다.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물 안에서 두 손이 자유로워야 하며 발만을 이용해서 제자리에 떠있어야 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에 검정 평가를 할 때 다른 테스트에 비해서 심사가 까다로워 5분 동안 시작한 자리에서 움직이거나 손목이 물에



잠기거나하면 바로 실격 처리되기 때문에 연습을 혹독하게 시킨다. 깊은 수심에서 연습하기에 바닥에 발은 닿지 않는데 손은 물 밖으로 들어야하고 머리는 잠기고 입과 코로 계속 물은 들어가고 정말 이려다가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입영이 잘 되지 않아 힘들어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입영 연습을 많이 시킨 그 날 이후로 보이질 않았다. 스스로 연수과정을 포기한 것이다. 그렇게 하루에 몇 명씩 빠지다 보니 50명으로 시작한 인원이 마지막 검정에선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그래도 어려운 과정을 끝까지 버티고 테스트를 본 사람들은 마지막 검정시험에서 모두 합격할 수 있었다.

###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연수를 받으면서 수영구조(맨몸구조라고도 하며 아무런 장비 없이 인명을 구조하는 것을 말한다)를 배웠다. 하지만 수영구조라는 것은 사실상 구조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성이 있는 상태(실제로 물에 빠진 사람이 아닌)의 강사를 상태로 연습을 하였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 맨몸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 나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물에 빠지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되고 잡는 힘은 평소의 10배나 강해진다고 한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어머니와 딸이 물에 빠졌을 때 어머니가 물 밖으로 나와 숨을 쉬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딸을 잡고 물 밑으로 누른다는 것이다.

만약 물에 빠진 사람에게 잡혔을 때 어떻게 물 밖으로 나올까? 답은 물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물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물 밑으로 들어가야만 익수자가 구조자를 놓게 되고 풀려나서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연수과정에 익수자에게 잡혔을 때를 대비해서 막기, 풀기 등의 수업과정이 있다. 물 밑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여러 가지 형태로 익수자에게 잡혔을 때 기도를 확보하는 방법, 물속에서 푸는 방법, 그리고 물밑으로 들어가 익수자를 바라보며 누운 상태로 잠영을 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방법 등을 배운다.

이렇게 잡혔을 때 푸는 것만 하고 실제로 구조해서 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수영 구조를 배

운 이유는 뭘까? 우선 의식이 잃은 사람을 신속하게 물 밖으로 건져오는데 그 이유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구조대상자를 위해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목격자인 자신이 불가능한 일에 뛰어들어 위험에 처하면 구조대상자 또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다. 익수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영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상황판단과 구조지식이 더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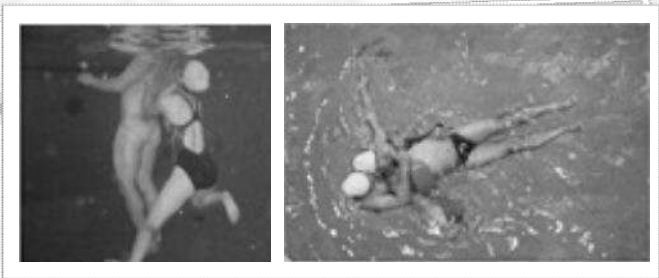


### ❖ 라이프가드 강습내용

배우는 내용과 검정시험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입수법

- 물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데크(현 위치)와 물과의 거리(높이), 구조자와 익수자와의 거리, 물의 투명도와 안전성, 물의 깊이, 상황의 긴박함 정도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입수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근접거리에서 물의 안정성이 확보되었고 상황이 규할 때는 흔히 다이빙이라고 하는 머리부터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익수자에게 지속적으로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깊은 물에 뛰어내렸을 때도 머리가 잠기지 않도록 다리를 벌려 입수하는 방법 등이 있다.



#### • 접근법

- 구조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구조자와 익수자와의 거리, 구조자의 체력의 정도, 긴박함 등에 따라 헤드업 자유형, 헤드업 평형, 트러젠영 등을 선택한다. 구조상황시 구조자는 지속적으로 익수자를 주시하여야하므로 모든 접근법은 머리를 물 밖으로 내놓고 수영을 한다.

#### • 구조법

- 구조법은 장비의 유무에 따라 크게 장비구조와 맨몸구조로 나뉘고 장비구조와 맨몸구조의 방법

은 익수자의 의식여부, 익수자의 남은 체력정도, 물 밖과의 거리등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다시 세부적으로 나뉜다.

• **막기, 풀기**

- 의식이 있는 익수자에게 잡혔을 때 이를 풀기 위한 방법들과 잡히기 전에 막는 방법들이 있다.



• **탐영**

- 물속에 가라앉은 익수자를 탐색하기 위함이다. 25m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한다.

• **수하물 운반**

- 물밑에 가라앉은 익수자를 구출하기 위함이다. 가라앉은 익수자는 부력으로 인해 5kg 정도의 무게가 되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은 5kg 바벨을 들고 수영을 해서 나오는 연습을 한다. 25m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한다.

• **얕은 물 운반**

- 일반 수영장처럼 수심이 낮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부상에 따른 운반법을 배운다. 2차 부상을 예방하면서 신속하게 구출하는 방법들이 있다.

• **입영**

- 손을 들고 제자리에서 발만을 이용하여 5분간 떠 있어야 한다. 대체적으로 로터리 킥을 이용한다.

•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제세동기의 작동법 등을 배운다.

검정시험은 오전에 필기시험과 응급처치, 오후에 실기시험을 본다.

• 또 다른 도전

나에게 무엇이 그토록 수영에 미치도록 만드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배움에 대한 즐거움일 것이다. 취미로 수영을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배웠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유형,

배영, 접영 등 영법의 종류로 답을 한다. 그리고 스타트나 플립턴 등을 할 줄 알면 거의 다 배웠다고 얘기들 한다. 난 그냥 계속 배우고 있어 라고 답을 한다. 수영을 처음 배울 때 하는 기본적인 자유형 발차기에서 조차 아직까지 배우고 고쳐야할 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이 보이고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마스터즈 대회라는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다. 호기심에 나간 대회에서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 기록에 대한 욕심을 더 키웠다. 꾸준히 연습을 해서 대회에서 좀 더 좋은 기록을 갖고 싶다. 새로운 도전은 항상 날 설레게 한다.



## 조혈모세포 기증 수기

글/ 2학년 백은지

작년 6월, 우리학교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헌혈차가 왔을 때,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너무 기뻐다. 학부 때,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알게 된 후, "한국에 돌아 가면 등록해야지" 마음먹었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숙제였기 때문이다. 기증 등록은 간단한 설명과 함께 피 3cc만 채취하면 되었다. 그리고 5개월 후, 정신 없었던 1학년이 끝나갈 무렵에 온 전화 한 통은 지난 겨울방학을 좀 더 의미있게 보내게 한 선물이었다.

"여보세요? 백은지님이신가요. 여긴 카톨릭 조혈모세포 은행의 정소라코디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백은지님이랑 유전자 매치가 되시는 환자분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예? 저당요?"

"네. 지금 급성림프구백혈병을 앓고 계신 환자분인데요~ 혹시 기증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당연하죠~ 기증하려고 등록한건데..."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부모님이랑 상의를 하시고..."

"아, 아뇨~ 저 여기서 확실히 할게요 저 기증합니다!"

나중에 내 결정에 대해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서는 잘했다는 격려보다는 걱정을 더 하셨고, 내가 상의 없이 기증동의 한 것에 대해서도 많이 섭섭해하셨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 때의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기증의뢰가 들어온다면 꼭 가족과 상의 후 충분히 설명과 설득을 한 다음, 기증을 했으면 좋겠다. 가족들의 지지와 사랑이 있다면 기증과정이 좀 더 편하고 수월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 후 정코디님과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기증방법, 병원, 날짜 등을 의논하였고, 2013년 2월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기증하기로 결정되었다. 환자분이 약 3개월 동안 기증 받을 준비를 하는 동안, 나도 설레는 마음으로 나만의 준비를 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먹는 것도 최대한 건강식으로 먹으려고 애썼다.

기증 3일전부터 G-CSF라는 백혈구 성장촉진제를 부여해 뱃속의 조혈모세포를 활성화시켜 채취한 것을 '말초혈 조혈모세포'라고 하는데, 성분헌혈 같이 간단하고 전신마취의 위험도 없어서 공여자들이 선호한다고 한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기증 자체는 헌혈같이 간단하였지만, 오히려 G-CSF 주사의

minor한 부작용들이 조금 힘들었다. 백혈구 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주사이다 보니, 요통과 두통, 불면증을 일으켰고, 혹시 나의 이런 나쁜 컨디션이 조혈모세포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아닌가 겁도 났다. 그렇지만 이런 부작용들은 예상되는 자연스런 증상이고 기증 후 모두 사라졌다.

♣ 정리하자면 나의 조혈모세포 기증절차는 이렇다.

1.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한다.
2. 매치가 되면 전화 연락이 오고 기증 동의를 한다.
3. 병원과 기증 날짜를 정하고 건강 검진 등을 통해 의료진을 미리 만난다.
4. 기증 3일전부터 하루 한차례씩 G-CSF 투사를 맞는다.
5. 기증 하루 전 입원하고 기증 날 4~5시간 정도의 성분헌혈 방식으로 조혈모세포를 채집한다.
6. 필요시 그다음날도 기증할 수 있고, 2박3일 입원하면서 휴식을 취한다.
7. 2투 뒤, 다시 건강검진을 하여 몸 상태가 회복 됐는지 점검한다.

2학년이 돼서 혈액학을 배웠을 때, 백혈병 외에도 재생불량성 빈혈, 다발성골수증 등 예상외로 많은 질병이 조혈모세포 공여가 원치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놀랐고,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다.

현재 국립장기 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공여 희망자는 15만명이 넘지만, 환자와 같은 HLA형을 가진 공여자를 찾을 확률은 약 40%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공여 받을 경우 HLA형 6개 중 최소 4개가 맞아 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식 받은 후 신체의 거부반응이 적고 생착할 수 있는 확률, 즉 이식에 성공해 생명을 구할 확률 또한 HLA matching에 운명이 달려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공여 희망등록자가 20만 명을 넘는다면 HLA matching이 되는 공여자를 찾을 확률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한다.

2주 전, 정소라 코디넛께서 전화 주셔서 조혈모세포 받은 환자분께서 중요한 시기를 잘 넘기셨다고 알려주셨다. 원치의 여부는 5년이 지나야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큰 부작용 없이 잘 생착되고 있는 것 같다니, 그날 하루 종일 내 가슴은 벅차고 입가의 미소는 가시질 않았다.

2박3일 입원해서 조혈모세포를 기증한다는 것은 바쁜 의대생이나 의사들에게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다. 코디넛께서도 실제로 기증등록자 중 의사들은 많지만 막상 환자분을 찾게 되어 연락을 드리면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다. 하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자신의 의지와 주변의 따뜻한 배려만 있다면 실낱 같은 희망을 기다린 한 환자에게 원치라는 선물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은 값진 경험이라고 믿는다.

이 자리를 빌어, 나를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신 정소라 코디넛과 락민정 코디넛, 병문안 외준 화수언니, 헤민이, 유선이. 또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살과의 전쟁

글/ 2학년 박경민

처음 학교를 입학했을 때 이렇게 단조롭고 반복적인 생활일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학교, 기숙사로 이어지는 반복되는 일상과 하루 8시간이상 의자에 앉아 수업을 듣고 공부만 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쉬지 않고 이어지는 시험의 압박은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생활이었다. 시험이 없는 주중과 주말이 생긴다면 침대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고 만약 동아리 행사가 있다면 술자리의 연속이었다. 결론적으로 의지가 없다면 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생활이었다.

자연스럽게 체중관리가 어려웠고 음주와 지나친 운동부족으로 인해 처지는 뱃살, 퍼져버린 엉덩이, 터져버릴 것 같은 허벅지가 이런 반복된 생활의 결과물로 돌아왔다. 의전원 입학 전에 합격의 기쁨을 같이 나눈다고 전혀 몸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과 보낸 생활의 여파에다가 입학 후의 자기관리의 부족으로 몸무게는 정상 체중을 벗어났고 몸도 많이 둔해진 상태였다. 망가진 몸뿐만이 아니라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도 걱정이 되었다.

운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한 시점은 가장 바쁘고 정신없었던 해부학과 행운체를 끝내고 난 다음 부터였다. 그러나 솔직히 운동을 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효과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많았다. 여름방학은 대학교처럼 길지 않고 한 달 이내로 짧아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잘 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영부영 1학년 2학기가 시작되었다. 아마 이때부터 이리다가 언젠가는 살이 빠지겠지 이런 식으로의 자기최면과 운동 습관이 형성되었다. 운동 스케줄은 시간 날 때마다 하루 90분에서 120분 정도로 하고 시험 전날과 이틀날을 제외하고 웬만하면 운동을 했다. 그리고 최적의 다이어트 조건이 되는 겨울방학 시작되었다. 겨울방학이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좋은 이유는 첫 번째로 여름방학과 달리 2달이나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날씨가 추운만큼 우리 몸은 체온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열량 소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운동 효과를 더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학교내 모임이나 행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술자리나 식사 약속이 없어서 체중관리하기에 더 용이하다.

겨울방학 시작 전 6개월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해서 체력은 좋아졌지만 체형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이번 2달 동안 다이어트에 큰 목표를 잡고 시작하였다. 먼저 운동량을 늘렸다. 아침에 40분 러닝을 하고 복근 운동을 하면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였다. 그리고 저녁에 50분 러닝 및 전체적인 근력 운동을 하면서 2시간 운동을 하였다. 운동뿐만 아니라 식사량도 조절하였다. 아침에 운동하기 전 두유하나, 점심에 800-1000kcal 정도,



저녁은 운동 후 계란1개나 비스킷 하나를 먹으면서 녹차를 마셨다. 녹차는 지방 분해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물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마셨다. 다이어트 중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은 누구나 아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일 것이다.

방학 두 달 동안 매일 전체적으로 하루 섭취 칼로리를 1200-1500kcal 정도로 유지하였다. 권장 섭취 칼로리인 2100-2500kcal에서 많이 줄였다. 또한 꼭 운동 한 날에는 달력에 표시를 하면서 운동량도 같이 기록하였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친구들과의 술 약속도 있고, 동아리 회식도 있었다. 그런 날이면 약속 시간 전에 운동을 꼭 하고 그 날 점심은 식사량을 줄였다. 그리고 다음 날 피곤하다고 운동을 쉬지 않고 오히려 평상시 보다 러닝시간을 1시간 정도로 늘려서 오전, 오후에 뛰었다.

방학 동안의 다이어트 결과는 방학 시작 전 몸무게가 64-65kg이었고 방학이 끝날 때는 57-58kg으로 약 7kg정도 체중 감량에 성공하였다.

나의 다이어트 방법은 비만관리 원칙과 거의 유사하지만 약간 다르다. 본래 비만관리의 원칙에서 평소 1일 열량 섭취량이 2100kcal인 경우 주당 0.5kg의 체중감량을 위하여 500kcal를 줄인 1600kcal를 1일 필요량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원칙보다 더 강하게 식사요법을 하였다. 그리고 거의 점심만 제대로 식사를 하였는데 이 점은 2013년에 이슈가 된 1일1식 다이어트 방법과 유사하다.



1일1식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 방법은 아침, 점심을 거르고 저녁만을 먹고 일주일에 이틀정도 시행한다. 공복을 유지하다가 한 끼에 배부르게 먹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저녁에 식사를 하는 이유는 저녁 이후에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해 소화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난 뒤에서 체내 흡수가 빨라지는 이유로 그렇게 한다. 이 다이어트의 효과는 당연히 탁월하다. 필요 열량보다 더 적게 먹는데 살은 빠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서도 1일1식 다이어트 효과를 본 후기로 가득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영양분이 고르지 못하면 근육량도 같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러면 제대로 된 다이어트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쉽게 요요현상이 올 수 있으며 오히려 빠져버린 수분과 지방으로 살이 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다이어트 방법에서 1일1식 다이어트 방법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근력 운동을 매일했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되도록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사를 하였다. 이렇게 근육량이 증가되어있으면 근육에 의해 기초대사량이 증가되어 칼로리 소모가 커져 학기 중에 운동시간이 줄어들어도 다이어트 후에 관리가 쉬워진다.

또한 1일1식으로 다이어트로 식사량 자체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부작용이 많다. 나도 식사량을 줄이다 보니 밤에 쉽게 잠을 자기가 어려웠다. 식사량이 체내 필요량보다 적으니 불면증이 부작용으로 온 것이다. 그리고 한 번씩 식욕이 미친 듯이 올라올 때 참아내는 것도 괴로웠다. 또한 식사를 하기 전이나 군것질 등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무조건 가격보다는 칼로리를 비교하면서 사는 버릇이 생겼다.

먹는 것을 줄이면서 다이어트에 집착하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번 다이어트의 목표치는 이루었지만 결국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식사요법을 어느 정도 하면서 꾸준한 운동을 습관처럼 몸에 베게 하는 것이 건강한 다이어트의 첫걸음이다. 흔히들 급속히 몸무게를 줄인 후 요요현상으로 많이 괴로워하는데 이 또한 습관으로 만든 운동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다이어트는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그러므로 꾸준한 운동만이 답이 될 수 있다. 한창 몸무게를 줄일 때의 운동량은 아니어도 된다. 즉, 몸이 나태해졌다는 느낌이 안 받을 정도로 운동을 하면 된다. 본인도 2학년 학기를 시작하고 겨울 방학 때만큼의 운동량을 하기는 힘들다. 그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러닝을 하고 시험공부를 하다가도 답답하면 30분씩 간단하게 근력 운동을 하면서 운동습관을 유지하려고 한다.

의전원 생활에서 운동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살을 빼고 예쁜 몸매를 가꾸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전원 공부를 하기 위한 기본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이다. 첫 시작이 어렵지 한 번 운동을 시작하면 모두들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이 다이어트를 준비하고 결심하는 의전원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 각양각색의 울림

글/의학과3학년 고상진 '이음'편집장



두 해 전의 겨울, 눈이 없던 대구에 한박눈이 소복이 쌓이던 2월을 기억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거처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처음 캠퍼스에 의학과 학생으로 반걸음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얼마 지나지 않은 온해의 기억이고, 누군가에게는 이미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아득한 옛 추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억 속의 그 첫 날, 우리의 모습은 각양각색이었지만 그 마음만은 의학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었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다양했던 우리의 첫 모습이 학교와 병원의 규율을 배우고, 의학의 각 과목들은 학습하며 경북대학교 의학과만의 색으로 덧칠해졌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주눅이 들고 어리둥절했던 본과 1학년, 캠퍼스의 고참 역할을 담당해야 했던 본과 2학년, 다시 병원에서 신참의 역할을 해야 했던 PK 3, 4학년이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경북대학교 의학과 학풍을 이어받은 의사가 되기 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덧칠해 왔습니다. 하지만 각 학년마다 100개의 뛰는 심장이 내는 그 울림은 다양했습니다. 바쁜 학업 일정 중에도 자신의 취미를 계발하거나 방학을 이용해 여행이나 연수 등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영화나 독서를 통해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시나 수필 등을 통해 생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행운'은 경북대학교 의과과가 만드는 소식지입니다. '이음' 편집부와 재학생, 그리고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경북대학교병원 교수님들까지 다양한 시선의 글이 실립니다. 발행되는 '행운'은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경북대학교병원의 선배님들,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선배님들께 전해집니다. 아직 무르익지 않은 풋풋한 시선이지만, 각양각색의 경북대학교 의과과의 울림을 전합니다. 이 울림을 통해 선배님들에게는 화창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재학생들에게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34호 '행운'에 글을 기고해준 경북대학교 의학과 재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흔쾌히 글을 내어주신 경북대학교 의학과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운' 발행의 선배이신 '안행수필' 회원님들께서 이번 '행운'에도 귀한 글을 내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음' 편집부와의 좋은 인연을 기대합니다. '행운' 발행을 허락하고 격려해주신 원장님과 고문, 지도 교수님, 학생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처 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울림은 경북대학교 의학과 웹([club.cyworld.com/knumedicalschoo1](http://club.cyworld.com/knumedicalschoo1))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업과 계속되는 시험 일정에도 '행운' 발행에 최선을 다해준 이음 2학년 편집부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 편집후기



행운지 34호 제작을 위해 애쓰신 분들 모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학년이 되면서 후배님들을 자주 찾아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영원한 이음이 됩시다~

-의학과4학년/정유진



올해 "행운"을 편집하느라 고생한 2,3학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책 한 권 제 손으로 만들어 본다는 것은 정말 책에 관심이 많지 않은 한 경험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 손이 많이 가고 귀찮지만 여러분 삶에 오래 기억되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잘 읽겠습니다.

- 의학과 4학년 / 임준근



1학년 때 첫 번째 행운에 실을 팻메스니 공연 후기 글을 쓰던 기억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학년이 되어 이렇게 네 번째 행운 발간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바쁜 학교생활 틈틈이 편집장과 부편집장은 물론 모든 '이음'식구들이 애쓰는 덕에 올해도 정말 알차고 좋은 내용이 가득한 '행운'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운 34호'를 위해 글을 써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학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학과 4학년 / 박솔희



작년까지 편집부 선배님들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따르다가, 3학년이 되어 행운지 제작에 참여해보니 책자 하나가 나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올해도 역시 이렇게 행운지가 무사히 완성되어 뿌듯하네요;) 행운지가 무사히 발간될 수 있도록 제일 애쓰는 편집부장님, 그리고 글 하나하나 쓰고 모아준 이음가족들과 행운지에 소중한 글 실어주신 다른 모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 이 행운지도 경북의대 재학생, 졸업하신 선배님들 뿐만이 아니라 교수님,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들에게도 우리 학교의 이야기를 전하고 소통을 이어나가게 하는 따뜻한 '이음' 다리가 되었으면...!

-의학과 3학년 / 부편집장 김예은



올해도 2013행운지를 만들기 위해 땀흘린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분들께 유익한 행운지, 웃음을 드릴수 있는 행운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학과3학년 / 종무 이미경



행운지의 첫 원고 제출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벌써 행운지 제작에 참여한지 3년차가 되었네요. 언제나 행운지에 좋은 글을 보내주시는 여러 선배님들, 조금이라도 더 양질의 행운지가 나올 수 있게 많은 수고를 해주신 편집부장님, 그리고 여러 동기들과 후배님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우리의 글 하나, 하나가 모여서 '행운지'가 되고, 또 그 행운지들이 쌓이고 쌓여 앞으로 이어져 갈 경북대 출신 의학도들의 자부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

-의약과 3학년 / 최역진



첫 행운지를 제작하던 것이 얼마 전 일 같은데 벌써 두 번째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만든 만큼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운지는 저희 뿐 아니라 경북대 출신 의학도 분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 2학년 / 이승재



제게 이번 행운지는 남다른 것 같습니다. 1학년 때와 달리 직접 편집에도 참여하고 의견도 내고...하여튼 빨리 손에 잡아보고 싶은 맘뿐이네요~ 선배, 동기님들 모두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잘해 보아요~^^

그럼 2013년 행운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의약과 2학년 / 주요림



1학년 때랑 다른 느낌의 행운지 제작. 2학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2013년 행운이 한권의 책으로 나오게 되어 정말 기대가네요. 완성된 행운지를 보면 느낌이 새롭을 것 같네요. 다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2학년 / 오영석



2012년 행운지에 글을 실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13년 행운지가 나왔네요. 2013년 행운지는 저희 학년이 직접 편집에 참여했던 만큼 저에게 다가오는 그 의미 역시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글 주제 선정부터 마지막 편집에 이르기 까지 하나하나의 과정이 행운지를 통해 희열로 승화되었으면 좋겠네요. 행운지 재미있게 읽어주시고 이번 편집에 참여한 이음, 그리고 행운지에 글을 투서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2학년 / 김태경



한권의 행운지가 만들어지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이 든다는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글을 기고하신 교수님, 선배님, 동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의 정성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해주신 편집부원들과 기자님들의 노력이 이 한권의 행운지에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사랑받는 행운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학과 2학년 / 이재역



눈깜짝(?)할 사이에 2학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행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쁘게 나올 행운지! 재미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글써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무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의학과 2학년 / 김잔근



처음 행운지에 참여 했을 때는 겨우 글 하나 쓴 게 나였는데 올해 행운지를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면서 기분이 새롭습니다. 이음 선배님 동기들 후배님들도 고생하셨고, 행운지는 이음이 졸업하신 선배님부터 신입생까지를 이어주는 역할을 통해 만들어 지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34회 행운지를 위해 글을 써주신 분들, 함께 행운지를 만든 이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학과 2학년 / 박지연



설레는 맘으로 행운지에 첫 글을 쓰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행운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네요! 글쓰는 것이 참을 수 없이 무겁다가도 막상 쓰고 나면 깃털처럼 가벼워 아쉽기만 합니다. 제작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신 장봉현 교수님, 좋은 글 함께 나눠 준 은지, 경민이, 명현이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학과 2학년 / 쟁지윤



교내 유일한 소식지인 행운지에 내 글을 읽고,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면 보람되고 재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가입한 이음, 평소에 시험공부를 꾸준히 해 오지 않았던 터에 예상치 못한 글을 써야 했던 부담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공부를 하는 중간중간 글을 쓰는 순간만큼은 시험스트레스를 잊고 글쓰기에 몰두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부때문에 얼른 써버리려고 하다가도 선배님들, 동기님들 또 내년에 들어올 후배님들까지 읽게 될 글이라고 생각이 들어 어느 한문장 허투로 쓸 수 없었습니다. 제 글이 새로 발간되는 행운지에 실릴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는, 글 하나만 쓰면 되는 나와 달리 행운지 전체를 제작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일까지 모두 해야 하는 선배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글만 기고하는 지금과 달리 행운지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제작되고 발간되는 것인지 앞으로 더 많은 과정에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의약과 1학년 / 윤영상



모든 것이 새로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이지만, 행운지에 발행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 배울 일들과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글이 행운지에 실린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이 안나고 얼떨떨하지만, 내년에는 한 사람뭉의 일을 거뜬히 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약과 1학년 / 안상준





오랜 시간 행운을 아껴주시고,  
새로 태어난 “이음”을 사랑해주신  
모든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Special Thanks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서 장 수 교수님  
전 보 영 교수님

고문 교수 김 재 식 명예교수님

그 외 취재활동에 힘써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 쇄 : 2013년  
발 행 : 2013년  
발행인 : =  
발행처 :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음」  
인쇄처 : 대동출판인쇄소(053)425-6548

우700-422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 101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음 편집부  
[cyworld.com/knumedicalschool](http://cyworld.com/knumedicalschool)

Design by K.C.K.